

‘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활용 심층분석(경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0. 10. 28.

통 계 청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일상생활의 시간구조와

시간체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0. 10. 28.

통 계 청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일상생활의 시간구조와 시간체험”
용역 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계약기관 ㉠

연구진

책 임 연 구 자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 구 자	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차승은 (서울대학교 고령화연구소 연구교수)
연 구 보 조 원	고영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최종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일상생활의 시간구조와 시간체험
주제어	유급노동, 무급가족노동, 미취학자녀돌보기, 부모 및 조부모돌보기, 활동적 여가, 시간인식, 시간부족, 주관적 시간

이 연구는 생활시간조사자료의 심층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활동 등의 내용, 성격, 시간량 및 시간대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의 일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확보하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특성을 보여 주는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활동의 세부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위치와 변동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남녀성인들의 유급노동>

이 장에서는 한국인의 유급노동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장은 크게 세 절로 나뉘어 유급노동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첫째, 00세부터 75세까지의 한국인의 여러 사회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급노동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둘째로 시간대 유급노동의 분포를 통해 단순한 유급노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의 특성이 유급노동에 반영되어 있는지 혹은 유급노동의 특성의 변화가 한국사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을 시간대분석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 장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유급노동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유급노동을 하는 주체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만 20세부터 75세까지의 한국인 중 유급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은 남자였다. 유급노동 및 유급노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까지 합한 시간을 총유급노동시간이라고 한다면 20세부터 75세까지의 남자는 하루 평균 332.19분을 유급노동으로 사용한다. 반면에 여자는 187.16분을 유급노동으로 보낸다.

둘째 유급노동은 연령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젊은 층에서 나이든 층으로 갈수록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을 통과하면 유급노동에서 빠져 나오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인당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사이에는 평균 유급노동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국인 가운데 40대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높다. 그러나 40대를 지나게 되면 다시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고 60대를 넘어서면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가파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교육수준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령이 낮은 층은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은 층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수준별 평균 유급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의 학력을 지닌 사람과 대학교의 학력을 지닌 사람 사이에는 유급노동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대학교 학력을 넘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니게 되면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다시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층과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층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과 평균 유급노동시간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넷째, 유급노동시간은 너무도 당연하게도 요일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사회에는 2004년에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04년 조사 자료부터는 토요일의 유급노동시간이나 유급노동패턴이 주중의 유급노동시간이나 유급노동패턴과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었다. 2004년 생활시간자료 분석에서도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평일에는 한국인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328분이었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180분으로 크게 감소하고, 일요일에는 다시 110분으로 크게 감소한다. 토요일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주중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에 가깝지 않고 일요일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에 가까운 양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평균 유급노동시간의 패턴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난다. 남자의 경우 연령별 유급노동시간의 패턴을 살펴보면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많다. 즉 20대 → 30대 → 40대 로 갈수록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다 40대를 넘어서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연령별 유급노동시간 패턴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여자의 경우 20대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20대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여자의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30대가 되면 여자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크게 감소한다. 이 연령대의 여자는 노동시장에서 많이 이탈해서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다 여자는 40대에 이르면 다시 유급노동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 30대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던 여자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결과적으로 여성 40대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나 여자들의 경우에도 40대가 지나면 다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한다.

여섯째, 남자와 여자 모두 유급노동시간은 요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남자의 경우 평일에는 425분, 토요일에는 147분, 일요일에는 141분으로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크게 변한다. 여자의 경우에도 평일에는 240분, 토요일에는 140분, 일요일에는 81분으로 크게 감소한다. 요일별 감소의 패턴은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곱째, 유급노동시간을 성별, 요일별로 좀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평일에 남자의 경우 1시간 이하의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은 21%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49%에 달한다. 반면에 남자는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비율이 11%,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비율이 16%,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비율이 14%에 이른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량의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각각 7.6%, 11%, 8%이다. 이러한 유급노동시간의 분포는 여자의 경우 노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지만, 일단 일을 하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파트타임직보다는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전일제의 유급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평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에는 1시간의 이하의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평일과 같이 세분화된 노동시간대별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연구영역의 하나는 한국사회가 24/7 사회로 전환하면서 유급노동시간대가 자유로워져,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일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소위 2교대, 3교대 직을 수행하는 한국인이 증가하는지의 여부였다. 이를 위해 시간대별로 유급노동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였다. 24/7사회의 도래와 함께 유급노동의 성격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직업별, 산업별 유급노동시간의 시간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성별, 지역별로 시간대에 따라 유급노동비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는 오전시간대의 오후 시간대에 유급노동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둘째, 직업별로 보면 24/7사회에서 한 밤 중에도 깨어 있고, 밤 늦게에도 유급노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종인 서비스직이다. 전문가나 혹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늦은 반이나 한 밤 중 혹은 새벽에 일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 그러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종과 확연히 다르게 밤늦게까지 심지어 자정을 넘겨서도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24/7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면 유급노동의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업분야는 서비스직이고, 아직 제조업분야는 모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교대 혹은 3교대와 같은 방식으로 유급노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24/7 사회의 도래에 따라 유급노동시간대가 다른 산업분야와 확연히 구분되는 산업분야는 숙박음식업이다. 숙박업소나 음식을 파는 분야는 9시부터 일하고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하루 생활 패턴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듯이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분야는 대부분 음식점이나 편의점 그리고 숙박업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유급노동의 시간대분석에서도 산업별로 유급노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균의 노동시간 패턴과 가장 많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을 유급노동, 무급가사노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의 시간대 분석을 통해 평일에는 남자와 여자의 총노동시간은 비슷한 가운데 남자는 모든 시간대에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고 반면에 여자는 무급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남자는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급가사노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반면, 여자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일요일에는 무급가사노동 때문에 또 다시 “일”을 해야 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제인 유급노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요일에는 여자도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시간대별로도 성별로 유급노동의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족돌봄행위와 시간량, 시간체험>

이 연구는 한국의 성인남녀가 함께 살고 있는 미취학아동과 노인들을 돌보는지, 돌본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시간부족을 경험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이틀간 일지자료 중에서 둘째 날 자료를 선택한 후, 연구관심에 따라 분석표본을 차별적으로 추출하였다. 미취학아동 돌봄행위와 시간량분석을 위해서는 6세 이하의 아동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20-44세의 유배우 성인남녀 2151명이 추출되었다.

노부모 돌봄행위와 시간량 분석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25-54세의 유배우 성인남녀 1165명이 추출되었다. 미취학아동과 노부모를 돌보는데 쓰는 시간량이 남녀, 요일, 취업상태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에 비해 가족돌보기 시간량이 가구구성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일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많지 않다. 그 배경에는 2004년과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제공될 수 있는 가구구성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가구원명부자료를 기초로 해 가구구성의 기본적인 정보(예. 특정연령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존재)를 구축함으로써, 가구구성에 따른 가족돌보기 시간량의 차이를 접근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요일, 취업상태, 가구구성 등의 효과가 남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고 남녀를 분리해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미취학자녀돌보기와 노부모돌보기를 주행동 뿐만 아니라 동시행동의 측면에서도 접근함으로써 이들 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주요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지 않는 비율은 주행동과 동시행동 모두 일반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훨씬 높았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주행동으로 미취학아동돌보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의 결과, 남녀간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취학아동돌보기는 대부분 여자들이 하고 있으며, 그에 사용되는 시간량 또한 여자들에게서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요일별로는 남자들이 주말에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한 비율이 높으며, 여자들은 요일에 관계없이 해당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일요일에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미취학아동돌보기의 시간량 또한 이와 유사하다. 주말의 경우 남자들의 미취학아동돌보기 시간량은 많아지며, 여자들은 다소 적어진다. 이 같은 현상은 평일에 직장일로 인해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아버지가 주말을 맞아 자녀를 돌보고 시간을 함께 보낼 가능성을 보여준다. 행위자비율에서는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비취업 남자들에 비해 취업 남자들이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할 비율은 훨씬 낮다. 한편, 여자들의 경우는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에 행위자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들은 대체로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미취학아동돌보기를 위해 쓰는 시간은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다른 연령층의 아동존재유무에 따른 차이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학아동의 연령 또한 높고, 이는 다시 미취학아동에게 요구되는 돌봄의 강도와 시간이 낮아짐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내 아동연령의 구성효과는 여성에게서만 발견된다. 즉, 다른 연령층의 아동들이 있으면 여자들이 미취학아동돌보기를 위해 쓰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효과가 남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째, 중고령 가구원의 존재가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치 않았다. 대체로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층 가구원의 존재는 부모의 대리자로서 돌봄노동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모들의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비율과 행위평균시간량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연령대별로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율은 남자와 여자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의 경우, 젊은 연령층에서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자들에게서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많았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취업자내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가구내 7-12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은 강하게 나타났다.

일곱째, 성과 요일에 따른 노부모돌보기의 행위비율은 요일에 관계없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남자들의 경우 취업자에 비해 비취업자들이 노부모돌보기를 하는 비율이 조금 높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취업자와 비취업자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내 존재하는 노인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부모돌보기 행위자 비율은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노인돌보기사례에 있어 시간부족의 인식은 농가에 비해 비농가에서, 홀벌이부부보다는 맞벌이부부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가구내에 미취학자녀가 있으면 시간부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돌봄의 대표적인 내용인 어린 자녀 돌보기와 노부모 돌보기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취업여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취업과 가족돌보기는 결국 여성의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어려운 사회적 과제로 연결된다. 직장과 가족돌보기를 함께 해나가야 하는 여성으로서의 당연히 시간부족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가족과 일에 대한 과도한 부담, 그로 인한 시간부족경험 등은 여성의 삶의 질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염려는 온당하다. 개별가족성원의 고단한 삶은 그 가족 전체의 삶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여성 개인 뿐 아니라 여성이 속해있는 가족과 사회 모두가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여성의 이중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립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와 사회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인의 시간압박과 여가>

이 연구는 사람들이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에 대한 탐색이다. 한국인들에게 일하고,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남는 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그 여분의 시간은 어떠한 활동들로 채워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자료 가운데 20-60대 도시거주 기혼남녀 9891명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의 소비에는 사회적 제약과 역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 연령에 따라 계층에 따라, 또한 가구 내에 따라 여가활동의 종류가 선택되는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둘째, 시간압박이 높아지면, 모든 측면에서 여가행위나 여가시간량은 감소한다. 특히 시간압박이 크면-그것이 시간표상의 구조적 압박에서도,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압박에서도- 쉬기, 걷기,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에서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시간압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자들의 문화활동을 포함하는 야외활동과 같이 계획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활동,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희생될 가능성은 오히려 적었다.

넷째, 문화 및 야외활동이 학동기 자녀가 있는 가족에서, 사회계층의 측면에서도 교육수준이 높고,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행위비율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결혼한 남녀의 여가활동이 사회적 관계 맥락-특히 가족-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다섯째, 시간압박을 느끼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여가시간은 모든 측면에서 증가하지만, 앞서 살펴본 시간압박을 느끼는 사람들과는 상반되게, 여가활동 중에서도 행위이행이 상대적으로 쉽거나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의 시간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여섯째, 이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은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걷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까다로운 활동”인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활동이 여가활동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도 일정량의 바쁜 와중에도 일정시간을 감내 할 수 있는 시간계획이 있어야 한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목차

제1장 연구개관	1
1. 연구목적과 연구배경	1
2. 선행연구고찰	1
3. 연구내용	4
4. 자료구축	6
제2장 유급노동, 무급가족노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분포	8
1. 성별 및 요일별 유급, 무급, 여가행위자비율 및 행위시간	8
2. 유급, 무급 및 여가시간의 분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10
3. 시간부족의 분포와 행위시간의 관련성	13
제3장. 유급노동	16
1. 20-75세 한국인의 유급노동시간의 분포	16
2. 20-75세 한국인의 유급노동의 시간대별 분포	19
3. 20-75세 한국인 중 맞벌이가구부부의 유급노동	27
4. 소결	30
제4장. 가족돌봄행위와 시간량, 시간체험	34
1. 미취학아동돌보기	34
2. 노부모 돌보기	44
3. 소결	49
제5장. 한국인의 시간압박과 여가	51
1. 들어가며	51
2. 관련연구고찰	52
3. 분석방법	56
4. 연구결과	58
5. 소결	67
참고문헌	70

표 차례

<표 1-1> 변수의 구성	6
<표 1-2> 표본의 특성별 분포	7
<표 1-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유급노동 행위시간 차이	10
<표 1-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무급가족노동 행위시간 차이	11
<표 1-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 행위시간 차이	13
<표 1-6> 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요일별 시간부족(주관적 시간)	14
<표 2-1> 성, 연령, 교육수준, 요일별 노동시간(단위: 분)	16
<표 2-2> 남자의 연령, 교육수준, 요일별 유급노동시간 (단위: 분)	17
<표 2-3> 여자의 연령, 교육수준, 요일별 유급노동시간(단위: 분)	18
<표 2-4> 성별, 요일별 노동시간의 분포	19
<표 2-5> 요일별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 무급가사노동, 자유시간 및 개인유지 시간 (분)	27
<표 3-1> 가족돌보기 행동의 분류체계	34
<표 3-2> 미취학아동돌보기 분석표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5
<표 3-3> 남녀별 미취학아동돌보기(주행동) 행위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	38
<표 3-4> 미취학아동돌보기(주행동) 행위참여에 대한 성별 로짓회귀분석	40
<표 3-5> 미취학아동돌보기(주행동) 행위시간량에 대한 회귀분석	41
<표 3-6>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서열형로짓회귀분석(미취학아동돌보기사례)	43
<표 3-7> 부모 및 조부모돌보기 분석 표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4
<표 3-8> 남녀별 노부모돌보기(주행동) 행위비율	46
<표 3-9> 노부모돌보기(주행동) 행위참여에 대한 성별 로짓회귀분석	47
<표 3-10>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서열형로짓회귀분석(노부모돌보기사례)	49
<표 4-1> 표본의 특성별 분포	56
<표 4-2> 행동 분류표	57
<표 4-3> 다섯 가지 여가 활동 나타나는 행위자 비율 및 행위시간	61
<표 4-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5개 여가활동의 관련성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61
<표 4-5> 노동시간과 다섯 가지 여과활동 여부에 관한 Logit 분석 결과 요약	63
<표 4-6> 노동시간과 다섯 가지 여가 행위시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요약	63
<표 4-7> 주관적 시간압박 수준과 다섯 가지 여가활동 여부에 관한 Logit 분석결과 요약	64
<표 4-8> 주관적 시간압박 수준과 다섯 가지 여가행위시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요약	64
<표 4-9> 시간압박-여가시간 유형분포와 유형별 특성	65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내용과 범위	5
<그림 1-2> 자료변환 과정	6
<그림 1-3> 성 및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의 구성비율	8
<그림 2-1> 성별, 지역별 시간대별 유급노동 비율	20
<그림 2-2> 주중 도시남성의 연령별 유급노동 비율	20
<그림 2-3> 주중 농촌남성의 연령별 유급노동 비율	21
<그림 2-4> 주중 도시여성의 연령별 유급노동 비율	21
<그림 2-5> 주중 농촌여성의 연령별 유급노동 비율	22
<그림 2-6> 주중 도시남성의 직업별 유급노동 비율	22
<그림 2-7> 주중 농촌남성의 직업별 유급노동 비율	23
<그림 2-8> 주중 도시여성의 직업별 유급노동 비율	23
<그림 2-9> 주중 농촌여성의 직업별 유급노동 비	24
<그림 2-10> 주중 도시남성의 산업별 유급노동 비율	24
<그림 2-11> 주중 도시여성의 산업별 유급노동 비율	25
<그림 2-12> 주중 농촌여성의 산업별 유급노동 비율	26
<그림 2-13> 주중 도시여성의 혼인상태별 유급노동 비율	26
<그림 2-14> 주중 농촌여성의 혼인상태별 유급노동 비율	27
<그림 2-15> 평일 맞벌이 부부의 시간대별 유급노동 및 가사노동의 비율	28
<그림 2-16> 토요일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 및 가사노동 비율	29
<그림 2-17> 일요일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 및 가사노동 비율	30
<그림 3-1> 미취학아동돌보기행위의 주행동, 동시행동 구성비율: 성과 요일	36
<그림 3-2> 미취학아동돌보기행위의 주행동, 동시행동 구성비율: 성과 경제활동상태	37
<그림 3-3> 성 및 연령대별 시간부족인식분포(미취학아동돌보기사례)	42
<그림 3-4> 성 및 경제활동상태별 시간부족인식분포(미취학아동돌보기사례)	42
<그림 3-5> 노부모돌보기행위의 주행동, 동시행동 구성비율: 성과 요일	45
<그림 3-6> 노부모돌보기행위의 주행동, 동시행동 구성비율: 성과 경제활동상태	45
<그림 3-7> 성 및 경제활동상태별 시간부족인식분포(노부모돌보기사례)	48
<그림 4-1> 각 활동시간으로 살펴본 요인분석 결과	58
<그림 4-2> 20-69세 기혼의 도시거주 남녀의 여가활동구분	59
<그림 4-3> 여가활동 및 요일별 행위자 시간	60
<그림 4-4> 시간압박에 따른 여가시간 유형의 개념적 모형	66
<그림 4-5> 다섯 가지 여가활동에서 유형별 비중	67

일상생활의 시간구조와 시간체험: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김정석, 은기수, 차승은

제1장 연구개관

1. 연구목적과 연구배경

이 연구는 생활시간조사자료의 심층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활동 등의 내용, 성격, 시간량 및 시간대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의 일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확보하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특성을 보여 주는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활동의 세부 요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위치와 변동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반복적이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하루일상이 어떠한 문법과 구성으로 짜여지며, 그것의 반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상이나, 이를 체계적인 연구를 활용한 정보가 생산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 창출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거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하루, 일주일 그리고 일년으로 이어지는 행위와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람들의 시간활용과 일상의 구성에 대한 작업은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생활시간자료가 생산되었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나 성과물은 사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생활시간자료의 수집과 자료구성이 까다로운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어떠한 연구문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연구논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다. 이 연구는 생활시간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하고, 연구주제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부족했던 시간연구성과물을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국내외 학술발표와 학술지투고 등으로 그 성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생활시간조사자료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이 연구 수행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2. 선행연구고찰

일상생활은 크게 수입을 목적으로 한 유급노동, 수입이 없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무급가사노동, 노동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가, 그리고 수면 등 개인유지활동 등 네 부분이 큰 영역을 구성한다. 이 가운데 개인유지 부문은 비교적 유연성이 적고 이질성이 적다고 본다면,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세 부문은 사회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크게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인 노동, 무급가사노동, 여가의 세 영역을 연구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근대 이후 개인의 생활시간에 대한 관심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라는 두 영역 간의 시간 배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간의 교환 개념은 1930년 Robbins에 의해 공식화되었고, 이후 Lewis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이론은 노동자로 하여금 늘어난 수입을 이용해서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듯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구입하게끔 하는 효과, 즉 소득 효과(income effect)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간을 여가시간으로 교환하는데 따르는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시간을 늘리게 작용하는 효과, 즉 대체 효과(substitution effect)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작용을 제시했다(Robbins, 1930; Lewis, 1956).

이에 대해 Becker 등은 생활시간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만으로 구분할 경우, 가사노동에 소비된 시간을 비롯한 다른 범주의 시간이 무시됨을 지적하고, 이러한 범주의 시간도 이론에 포함시켜 다루어야 함을 주장했다(Becker, 1965). 이에 따르면 가구를 단위로 가장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하여 시간배분의 한계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노동시간을 배분하는가가 중요해진다. 이러한 관점은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소비해온 여성의 노동시간 결정 과정을 밝히는 데 기여했으며,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의한 노동시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Robinson, 1977; Becker, 1965)¹⁾.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노동시간과 여가 시간의 변화에 대한 미국 내 논쟁이 관심을 모았다. CPS 등의 자료를 이용해 Hedges와 Taylor 등(1980)이 2차 대전 이후 노동 시간의 감소와 여가 시간의 증가를 주장하고 이를 지지하는 결과들이 제시된 것에 대해 Schor는 1970년대 이후 20년간에 걸쳐 미국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소비하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그 결과 1950년대에 비해 오히려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여가 시간이 감소했음을 주장했다(Schor, 1992).

한편,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의 변화를 연구한 Robinson 등은 시간일기법(time-diary method)에 의한 Michigan대학과 Maryland대학의 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1965년부터 1981년에 걸쳐서 여가 시간은 증가하고 주당 노동시간은 46.8시간에서 40.5시간으로의 뚜렷한 감소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Robinson, 1986; Robinson and Godbey, 1999).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에 대해 Jacobs 등은 노동 시간의 평균적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포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Schor의 사례에 해당하는 미국인은 전체의 일부일 뿐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 상반되는 주장에 대해 생활시간의 연구 관점을 개인에서 가구로 옮길 경우 그 일치점을 찾을 수 있다고도 보고하고 있다(Jacobs and Gerson, 1998, 2004; Jacobs and Gornick, 2002).

국내에서는 사회학, 경제학, 여성학, 가족학 등을 중심으로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1) 이 이론에서 가정하는대로 정말 남성은 밖에서 노동을 하는 것으로 특화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여성은 가사노동에 특화되어 이런 형태로 성별 노동분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분업이 가구당 가장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하여 한계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기도 하다(은기수, 2009; Folbre, 2008). 은기수(2009)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가사노동은 여성이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그는 가사노동분업에 관한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이 이론이 한국의 가사노동분업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적합한지, 어느 이론이 한국의 가사노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I/II』가 국내에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결과물로 인정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외국에서의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임금 기혼 맞벌이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에 연구 관심을 보였다(황익주, 1997). 이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여가활동 가운데 지배적 현상으로 나타난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연구 관심이 대두되어 텔레비전에 의한 여가의 식민화, 여가 패턴의 동시화, 여가의 관행화, 생활양식의 사사화, 미디어 대체, 사회자본과 텔레비전 시청의 차별화 등의 이론적 논의로 그 폭이 확대되었다(이재현, 1993, 1994, 1996, 2001). 2000년대에 들어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여가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김현주·이창현·박소라, 2002). 이와 함께 1999년과 2004년에 실시된 통계청 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인의 여가생활과 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김복수, 2005). 김복수(2005)의 연구는 TV시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 가운데 여가의 식민화라는 가설적 개념을 동원하여 한국인의 TV시청이 여가의 성격상 어디에 해당 하는지를 실제 TV 시청 패턴분석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직접 활용한 연구로는 1999년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의 생활시간 사용실태 및 의미를 밝히고자 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오만석, 2005a; 2005b, 2009)가 있다. 주5일 수업제의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2004년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공개는 교육 분야에서 생활시간 연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졌다. 학생들의 생활시간의 특징과 이의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 이미식, 전필여의 연구(2008),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을 탐색한 진미정의 연구(2008),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실태와 변화과정을 학생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니트(NEET,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일도하지 않는 청소년)청소년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탐색한 김기현, 이경상의 연구(2006)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시간에 대한 관심은 결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김정석(2005)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을 배경으로 노인들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를 그 시간의 식과 시간활용패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양한 개인 변수에 의한 노인들의 생활시간의 시간량과 시간대별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배경으로 고령자의 생활시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진욱, 2006; 박수미, 2007).

또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 중에는 시간 사용의 젠더화에 주목한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박수미(2005)는 생애주기별로 시간사용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한 바 있다. 손문금(2005a)은 가구 형태에 따른 무급 가사노동시간에 있어서의 차이, 그리고 성별 차이를 제시, 분석하고 있다. 박수미(2007) 역시 한국 고령자들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간 차이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이종희·이연숙(2002)의 연구에서는 기혼 남녀의 주말 생활시간구조를 특히 여가시간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 행동유형별로 어떠한 젠더화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공개와 함께 1차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2차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종단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유성용(2008a)은 1999년과 2004년에 각각 조사된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간 변화를 제시하고, 이를 동

시기의 사회 구조와 제도의 변화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주로 개인적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온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가구 단위로 재구성해 가구별 노동시간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윤인진·배은식(2009)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그 여가활동이 구체적인 행동유형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그 시간량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의한 설명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그 결과를 1999년 자료와 2004년 자료를 각각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시간압박에 관한 연구도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차승은, 2010). 사회구성주의에서는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의미파악도 시간압박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Daly, 1996) 더욱이 최근 들어 건강에 관련된 문헌들에서 시간정서가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영역은 물론 피로도와 같은 신체건강의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논의와 연결되면서 최근 들어 사회학자들 뿐 아니라 보건학, 사회복지학자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는 영역이다(Mattingly & Sayer, 2006; Schneider & Wait, 2005; Sullivan, 2007).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시간압박지표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이 행하는 다양한 활동시간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ianchi, Casper & King, 2005; Mattingly & Sayer, 2006).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간압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기는 하나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에서는 이 시간압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간압박에 대한 연구는 최근 연구로 차승은(2008; 2010)의 연구가 발견되는데, 시간압박에서의 남녀 차이와 그 결정요인, 또한 일과 가족 그리고 여가의 유형에 따른 시간압박수준의 차이와 그 함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3. 연구내용

이상의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포괄성과 구체성에 초점을 두었다. 일상생활의 주요 주제(대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세부 주제에 대한 동시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유급노동(paid labor), 무급노동(unpaid family labor), 여가활동(leisure) 등의 내용과 성격이 성과 연령을 비롯한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과 맞물려 어떠한 차별성(동질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유급, 무급노동과 여가활동의 전반적인 추세를 총론에서 파악한 이후, 각론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 트렌드에 주목하고 관련된 영역들을 유급노동, 무급노동, 그리고 여가활동별로 집중 조명하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 유급노동: 지금까지 낮시간에 이루어지는 정규직 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과 차별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소득확보의 수단으로 한국사회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야간근무, 2교대 근무에 초점을 둬. 생활시간자료를 통해 "야간근무/2교대 근무(night-time work/shift work)"의 실재를 파악하게 됨

- 무급노동: 전통적으로 가사노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면,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돌봄노동(care work)"에 주목. 통계청의 2009생활시간자료에서 나타나는 가족돌봄노동의 추이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성을 밝히게 됨

- 여가활동: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주제에 다학제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개인

의 건강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능동적 여가활동(active leisure)"에 관해 분석, 건강과 관련된 활동시간의 전반적인 소비양상을 파악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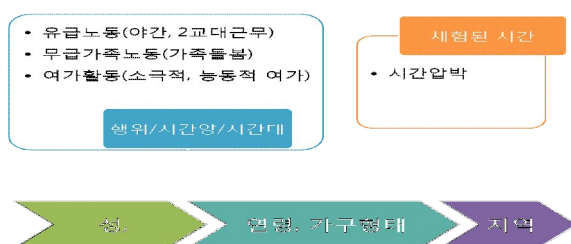
둘째, 객관적인 시간사용과 경험하는 시간(experienced time)간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일상생활의 내용과 시간사용형태를 개인이 경험하는 시간압박(time pressure) 및 시간사용만족도와 연계시켜 두 차원(dimension)간의 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유급노동, 무급노동의 세부주체와 시간압박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상호 관련성을 각각 탐색, 한국사회의 최근 변화 내용과 개인의 시간경험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제 시간압박으로 대표되는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정서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시간량과는 달리 "체험된 시간(experienced tim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생활영역에서의 변화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시간압박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실제로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에서 소비지향적 문화(consumption), 사건의 한시성(temporality), 교통과 기술 발달(technology)이 메가 트렌드로 기능하면서 일반인들의 시간체험(경험)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된다. 이 연구가 주목한 세부주체인 유급노동에서의 2교대 근무, 무급노동에서의 돌봄노동의 부각, 그리고 건강행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이러한 소비지향적 문화, 시간의 한시성으로 대표되는 후기산업사회의 변화의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시간경험, 특히 시간압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시간압박이 어떠한 활동과 관련하여, 어떻게 특성화 되어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면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스트레스 및 건강문제가 어떠한 활동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급노동, 무급노동, 그리고 여가활동과 시간압박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적용,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부분도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유급노동, 무급노동(특히 돌봄노동), 그리고 여가활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시간배분이론(Becker, 1965; Robbins, 1930; Lewis, 1956), 성역할이론, 여가와 노동의 대체효과이론(Robinson, 1986; Robinson and Godbey, 1999; Schor, 1992)이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소득효과(income effect), 교육효과(education effect) 그리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따른 "시간활용에서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가 시간연구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음. 시간연구의 주제분야도 더 다양해지고, 기존 사회학, 보건학 이론을 적용하는 이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본 전제와 가설을 검증. 이러한 작업은 주요 활동시간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설명함과 동시에 "시간들 간의 상호관련성(inter-relationship among activities)"의 탐색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구조는 <그림 1-1>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내용과 범위



4. 자료구축

1) 자료구성

데이터 파일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통계청의 2009생활시간자료에 가구원정보와 행정구역정보를 병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가구변수 및 지역변수를 생성하였다. 이 전체데이터 가운데 둘째날 자료(n=20,263)를 따로 추출하여 각종 시간변수 및 활동변수를 구성 테스트하여 최종적으로 시간변수 및 기타 생성변수에 대한 프로그램 파일을 구축하였다.

총괄분석 파트에서는 둘째날 자료 가운데 연령을 20-79세로 제한함. 10대의 경우 학생신분이 우세하여 또한 80대이상의 초고령노인의 경우 유급이나 무급노동의 비율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한을 가하였다. 또한 해당연령인 20대에서 70대 사이 연령에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역시 학생이기 때문에 구성하는 시간사용방식의 차이가 일반인에 비해 크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통제도 가하였다. 이상을 고려하여 데이터 파일을 새롭게 생성한 결과 최종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에는 연령과 재학여부를 제한을 가한 후의 사례수 15,500명의 시간량 자료와 생성변수자료가 포함되었다.

<그림 1-2> 자료변환 과정



2) 변수구성

이 연구에서 다루는 유급노동시간, 무급가족노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1-1>에 제시하였다. 유급노동, 무급가족노동 그리고 여가활동의 구분은 최대한 통계청의 행동분류표를 참조하여 이루어졌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개인유지에 해당하는 수면 및 음식섭취 등의 시간은 제외하였다. 또한 학습, 사교활동, 각종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은 포함하지 않았다.

<표 1-1> 변수의 구성

유급노동	노동시간 출퇴근시간 일관련이동시간	직장, 제테크, 사업체 등에서 노동시간 및 노동관련된 업무시간
무급노동	가족돌봄시간 돌봄관련이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가정관리, 구매 및 서비스 가정관리,가사노동관련이동시간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자녀, 배우자, 기타가족원 돌봄시간 의식주생활과 관련된 모든 가사노동시간 가정계획 및 재정관리, 관련서비스 이용 및 각종 구매활동
여가시간	관람 및 문화 건강행동 TV 기타 미디어 이용 여가관련된총이동시간	공연, 전시장 관람 및 기타 문화생활, 각종 취미활동과 놀이, 게임 등산, 걷기, 헬스시설이용, 단체스포츠, 및 각종 야외활동 텔레비전 시청 및 각종 비디오, PMP DMB와 같은 영상물시청 전화통화, 신문, 잡지 읽기, 라디오, 오디오,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블로그 만들기, 웹검색 등)

3) 표본(n=15,500)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표본의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요일 분포는 평일에 관한 자료가 60%, 토요일과 일요일 자료가 각각 20%씩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날 자료만을 추출하여 자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2009생활시간자료에서 평일은 월, 수, 금요일 자료만 분석에 포함되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52.7로 남성보다 약간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학력은 고졸학력자가 40% 가까이 차지하여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중졸이하의 학력자도 전체 표본의 30% 가까이 차지하였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취업자는 67% 이었으며, 혼인상태에서는 유배우자가 75%를 차지하였다. 우리 표본에서 대도시 거주자는 전체의 50%였으며, 맞벌이 가구는 28%가 해당되었다. 가구 자녀 및 노인가구원을 파악해 본 결과, 만 6세이하 미취학자녀가 한명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16.2%이었고, 65세 이상 가구원이 존재하는 가구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전체의 24%가 해당되었다.

<표 1-2> 표본의 특성별 분포

		n	%			n	%
전체		15500	100.0	주택점유형태	자가	10603	68.4
요일	평일	9223	59.5		전세	2894	18.7
	토요일	3136	20.2		월세, 사글세	1616	10.4
	일요일	3141	20.3		무상주택, 사택	387	2.5
성	남성	7331	47.3	농가구분	농가	1307	8.4
	여성	8169	52.7		비농가	14193	91.6
연령	20대	1888	12.2	맞벌이가구	그 외	7672	49.5
	30대	3491	22.5		맞벌이	4408	28.4
	40대	4042	26.1		비맞벌이	3420	22.1
	50대	2799	18.1	한부모 양부모 가구	그 외	12830	82.8
	60대	1941	12.5			한부모(남자)	37
70대	1339	8.6			한부모(여자)	89	0.6
학력	중졸이하	4522	29.2		양부모	2544	16.4
	고졸이하	6121	39.5	6세 이하 가구원수	없음	12978	83.7
	대학교(전문대포함)이하	4482	28.9		1명	1694	10.9
	대학원이상	375	2.4		2명	783	5.1
취업여부	비취업	10506	67.8		3명 이상	45	0.3
	취업중	4994	32.2	65세 이상 가구원수	없음	11646	75.1
혼인상태	미혼	2148	13.9		1명	2431	15.7
	유배우	11724	75.6		2명	1404	9.1
	사별	1100	7.1		3명 이상	19	0.1
	이혼	528	3.4	75세 이상 가구원수	없음	14184	91.5
거주지역	대도시	7650	49.4		1명	1153	7.4
	중소도시	6164	39.8		2명 이상	163	1.1
	농어촌	1686	10.9				

제1장. 유급노동, 무급가족노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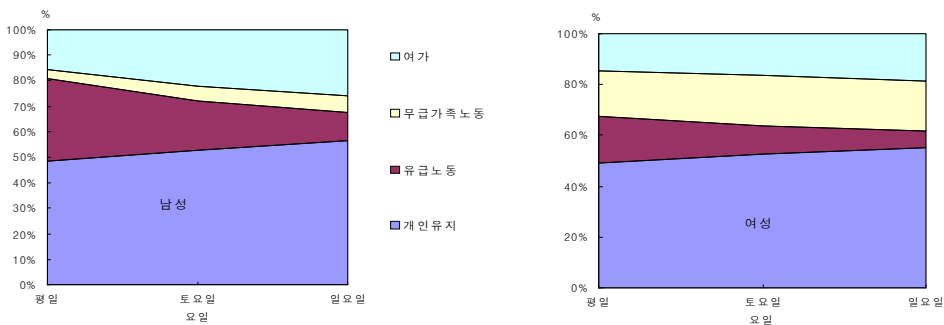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시간구성에서의 포괄성과 구체성에 초점을 두었다. 일상생활의 주요 주제(대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세부 주제에 대한 동시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유급노동(paid labor), 무급가족노동(unpaid family labor, 이하 무급노동), 여가활동(leisure) 등의 내용과 성격이 성과 연령을 비롯한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과 맞물려 어떠한 차별성 (동질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총론부분에서는 선행연구(Moen, 2003; Bianchi et al, 2006)들을 참고로 하여 요일과 성별에 따라 분석대상자들의 유급노동, 무급노동, 그리고 여가시간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세 가지 주요활동시간의 증감이 요일의 리듬에 따라 그리고 남녀가 처한 다양한 맥락에 따라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면밀하게 살펴 보게 된다.

총론은 모두 세 파트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성과 요일에 따라 유급, 무급, 여가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시하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유급, 무급가족 그리고 여가시간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살펴보았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시간부족의 전반적인 분포에 대해 살펴보고, 유급, 무급가족 그리고 여가시간과 시간부족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성별 및 요일별 유급, 무급, 여가행위자비율 및 행위시간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 다루어질 생활시간구성에서 성과 요일별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그림 1-3> 참조). 유급노동, 무급가족노동, 그리고 여가시간 그리고 기본적인 개인유지시간을 통해 남녀의 생활시간의 구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제시하였다. 그림 1-3에서 나타나는 영역은 각 활동시간의 비중을 100%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이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수면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유지, 유급노동, 그리고 여가시간의 비중이 컸으며, 이러한 패턴은 평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서 다르지 않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일요일에 감소하면서 곧바로 일요일의 여가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패턴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일요일에 감소하기는 하나, 무급가족노동시간의 비중이 생활시간에 큰 탓에 유급노동시간의 감소가 여가나 개인유지의 증가로 곧바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남성은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 활용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반면,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활시간의 패턴은 요일에 따른 차이가 남성만큼ダイナミック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아직까지도 남녀의 생활시간활용에서 무급가족노동에서 여성의 몫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3> 성 및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의 구성비율



우리 표본에서 나타나는 유급노동 비율은 남성이 68%, 여성이 44%로 남성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통의 남녀 취업률에 비하면 남성 대상자의 노동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대상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대상자가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체로 평일에 유급노동을 할 비율이 높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점차 유급노동 비율이 낮아지는 패턴이다. 요일별 유급노동의 비율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남성의 36%, 여성의 21%는 일요일에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휴일노동인구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휴일 유급노동 비율에서도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상 우세하게 나타나는 패턴은 유지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무급가족노동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전체 표본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무급가족노동의 행위비율이 요일에 따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성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행위비율에서 남녀의 패턴이 엇갈리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여성은 무급가족노동의 행위비율이 평일에 높고, 휴일에 감소하는 패턴이다. 그에 비해 남성은 무급가족노동의 행위비율이 평일에 낮다가 휴일에 증가하는 패턴이다. 무급가족노동 중에서도 이러한 요일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 (16%p 증가), 가계관리 및 구매활동(8%p 증가) 그리고 가사노동 관련이동 (8%p 증가)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휴일에 특히 감소하는 무급가족노동 분야는 가족돌보기 (7% 감소)이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가족 돌보기를 제외하면, 휴일에도 여성의 무급가족노동이 감소는 가파르지 않았다. 이는 휴일에 남성은 무급가족노동 비율이 증가하나, 여성의 경우는 이러한 남성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무급가족노동의 비율이 감소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여가활동의 구성을 보게 되면, 여가활동 중에서도 요일에 따라 특성화된 활동과 요일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활동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취미, 관람 및 문화활동의 경우 요일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운동 및 야외활동, 여가관련 이동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평일보다는 휴일에 행위자 비율이 높다. 즉 이러한 활동은 주로 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에 각종 미디어 이용은 평일과 토요일에 높다가 휴일에는 감소하는 패턴이다. 흥미롭게도 여성들은 미디어 이용이 평일에 높게 나타나는데, 남성의 경우 미디어 이용이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높게 나타나 성에 따라 미디어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급노동시간양에서 남녀는 평일에는 남녀간 격차가 약 한 시간 반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요일에는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 남녀의 근무시간차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급가족노동의 경우 앞서 남성의 무급가족행위자 비율이 휴일에 증가하는 방향이었고, 실제 시간량에서도 남성들이 휴일에 많은 시간을 가족돌보기(일요일 약 115분), 가족돌보기 관련이동(일요일 81분), 그리고 가계관리 및 구매활동에 소요(일요일 약 45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비율에서는 남성 가운데 휴일에 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시간소비 측면에서는 요일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남성들은 쉬는 날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40-50분정도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일에는 더 많은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기는 하나,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했을 때 수행하는 평균시간은 대략 한 시간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무급가족노동을 하는 여성의 행위시간을 살펴보면, 요일별 차이가 남성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즉, 여성은 휴일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과 양의 무급가족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명 “쉬는 날” 가운데에도 가사노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특정한 요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에 무급가족노동시간이 20분가량 더 길게 나타났다 (평일 251분, 토요일 271분). 이러한 토요일 패턴은 가족돌보기, 돌보기 관련 이동에서 두드러졌다. 또

한 행위시간만으로 본다면, 가사노동, 가계관리 및 구매, 그리고 관리를 위한 이동시간은 평일보다는 휴일에 더 길었다. 이는 우리 표본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약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러한 취업여성들이 일주일간 미루어 놓은 각종 구매활동, 가계관리 그리고 세탁이나 청소와 같은 가사노동이 대체로 토요일에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가의 경우 남녀모두 여가에 소요하는 시간양이 휴일에 증가하는 패턴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남녀모두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증가하며, 특히 토요일보다도 일요일 텔레비전시청시간은 거의 3시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남성은 여성보다 평일보다 휴일에 운동과 야외활동을 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도 조기축구회와 같이 남성들의 스포츠 동호회 활동부분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운동시간의 차이는 평일과 휴일 차이가 7분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취미, 관란 및 문화활동에 소요하는 시간차이가 12-14분정도 난 것이 요일별 차이로서는 가장 크게 난 활동이었다. 즉, 텔레비전 시청을 제외하고 남성의 경우 평일과 휴일에 이루어지는 여가활동 및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는 여가에 있어서 요일별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2 유급, 무급 및 여가시간의 분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각 유급, 무급 그리고 여가시간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행위자비율과 행위시간을 산출하여 구체적인 분포양상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표 1-3>에서 <표 1-5>에 제시하였다.

<표 1-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유급노동 행위시간 차이

		남 성			여 성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평 일	토요일	일요일
연령	20대	525.6	437.1	420.0	503.3	418.9	374.4
	30대	556.1	427.0	378.8	460.8	372.1	322.9
	40대	551.5	449.8	357.1	475.7	424.5	392.0
	50대	512.8	431.3	353.6	431.1	378.8	322.1
	60대	442.6	379.0	385.9	373.6	349.3	357.0
	70대	339.8	285.0	299.7	279.1	211.7	206.0
학력	중졸이하	453.7	382.2	386.3	404.3	356.7	324.0
	고졸이하	538.0	440.4	381.3	458.6	422.9	400.7
	대졸(2년제 포함)이하	540.4	426.9	328.8	482.2	343.4	263.8
	대학원이상	556.2	402.1	338.2	489.3	295.0	233.3
혼인상태	미혼	519.3	416.4	376.0	505.2	413.0	352.1
	배우자 있음	526.6	427.6	365.4	437.6	375.0	338.0
	사별	432.6	284.5	386.7	391.4	312.4	303.3
	이혼	496.0	383.0	364.5	500.7	469.1	412.2
지역	대도시	541.5	451.9	370.1	473.2	403.7	373.0
	중소도시	524.8	416.2	374.1	441.0	367.4	334.0
	기타지역	434.3	341.0	341.5	384.2	342.2	285.4
맞벌이여부	그외	475.6	374.9	360.2	444.0	368.1	332.4
	맞벌이	546.6	450.7	372.7	456.6	397.7	363.2
	비맞벌이	559.3	451.9	367.0	86.4	47.5	84.2
6세이하 아동유무	예	549.6	432.4	381.9	435.2	348.7	312.6
	아니오	517.8	420.4	364.5	449.2	381.1	341.2

유급노동행위시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남성은 30대에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어서 하루 평균 9시간 넘게(556분)가량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20대에 유급노동시간이 8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500분)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30대에 피크를 이룬 후 연령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는 패턴이나, 여성의 경우는 30대에 유급노동시간이 약간 감소하다가 40대에는 다시 증가,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유급노동시 행위시간이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즉, 여성의 경우 취업률의 M자 곡선과 유사하게 유급노동시간양에서도 이러한 M자형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별 차이에서는 남녀모두 평일에는 고학력자인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난 반면, 휴일에는 유독 남녀모두 고졸자의 유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로 보면, 남성은 유배우자가, 여성의 경우는 무배우자인 미혼, 이혼, 그리고 사별자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었고 이러한 패턴은 평일에 특별하게 두드러졌다. 일요일에는 여성의 경우에도 유배우자의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남성의 경우에도 일요일에는 상대적으로 사별자나 이혼자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혼 및 사별자의 수가 우리 표본에서는 매우 적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혼인상태에 따른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는 다른 연령특성과 혼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으로 보면, 예상대로 대도시 지역의 유급노동 행위자의 실제 노동시간이 길었다.

맞벌이 가구와 다른 가구형태를 비교한 분석에서는 비맞벌이가구의 남성 유급노동시간이 길었다. 여성의 사례에서는 비맞벌이가구보다는 맞벌이가구의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었다. 즉, 맞벌이가구의 경우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 존재하고, 그 길이여하에 따라 남편은 상대적으로 일을 덜 하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한편,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은 유급노동시간이 약간 길었고, 반면에 여성은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유급노동시간이 약간 더 짧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표 1-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무급가족노동 행위시간 차이

		남 성			여 성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평 일	토요일	일요일	
연령	20대	59.0	82.7	94.7	190.4	209.9	209.3	
	30대	89.1	137.4	135.1	332.4	342.3	311.9	
	40대	76.0	105.8	120.8	243.2	269.9	274.8	
	50대	77.7	103.7	103.1	231.7	242.7	246.7	
	60대	94.4	105.3	103.2	240.9	254.0	236.4	
	70대	112.4	102.8	100.0	205.0	232.8	198.7	
학력	중졸이하	96.5	103.1	106.9	220.9	239.2	233.6	
	고졸이하	80.4	102.7	103.9	273.6	286.4	275.1	
	대졸(2년제 포함)이하	78.9	123.9	128.8	263.6	290.4	267.9	
	대학원이상	82.4	128.3	147.3	224.7	386.5	275.9	
취업여부	일을 했음	72.5	109.7	114.9	174.5	216.8	234.0	
	일을 하지 않았음	122.2	114.2	115.6	342.2	328.6	289.1	
혼인상태	미혼	65.0	74.9	75.0	89.5	99.8	127.5	
	배우자 있음	84.6	114.2	121.4	281.6	305.2	288.4	
	사별	138.3	158.8	124.3	193.1	202.2	193.9	
	이혼	102.2	122.4	126.2	178.9	184.2	202.7	
지역	대도시	82.2	106.3	112.6	254.2	272.4	261.1	
	중소도시	84.3	119.8	119.8	255.1	282.9	261.5	
	기타지역	93.0	97.1	108.1	227.2	226.4	241.0	
맞벌이여부	그외	96.5	100.0	98.7	207.0	222.6	215.4	
	맞벌이	68.9	117.5	117.1	200.0	259.8	270.0	
	비맞벌이	74.4	124.2	138.4	420.5	394.9	340.1	
6세이하	미취학자녀 여부	예	94.2	150.7	169.2	423.6	427.8	391.0
		아니오	82.2	98.9	101.9	222.2	235.9	236.7

<표 1-4>에서는 무급가족노동 행위시간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남성의 경우 20대와 40-50대가 무급가족노동시간이 가장 짧았고, 30대에 약간 증가한 이후 60대 이상에서 다시 무급가족노동시간이 증가하는 패턴이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무급가족노동시간이 긴 가운데 특히 30대에 무급가족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기에 여성의 가족돌봄시간이 포함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남성의 경우도 30대에 무급가족노동시간이 약간 길게 나타난 패턴은 남성 역시 이 연령대에서 가족돌봄, 혹은 가사노동이나 그밖에 무급가족노동시간이 40이나 50대에 비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급가족노동시간의 분포를 학력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평일에는 중졸이하의 학력자와 대학원 이상의 집단의 무급가족노동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길었다. 그리고 휴일에는 역시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무급가족노동시간이 길었다. 앞서 고학력자들은 평일 유급노동시간이 길었고 휴일에는 완화되는 양상이었는데, 이들 고학력 남성들은 휴일이 되면 그 대신 무급가족노동시간을 증가하는 요일에 따른 2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여성의 경우 평일은 고졸학력자의 무급가족노동시간이 길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의 무급가족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여부는 남녀모두에서 무급가족노동을 감소시키는 방향이었으며, 이러한 패턴은 요일에 따라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남녀가 엇갈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는데, 남성의 경우 사별이나 이혼자의 무급가족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유배우자의 무급가족노동시간이 다른 혼인상태의 여성들에 비해 길었다.

지역별 차이도 흥미로웠는데, 남성의 경우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의 무급가족노동시간이 도시지역보다 길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무급가족노동시간이 길었다. 아마도 대도시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가구의 무급가족노동시간 분포도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였다. 남녀 모두 맞벌이가구에서 무급가족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남녀모두 맞벌이가구가 아닌 경우에 오히려 무급가족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맞벌이가구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무급가족노동을 공유하던지 혹은 외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거나 구매하는 것과 같은 아웃소싱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5> 참조). 연령집단별 여가행위시간양을 보게 되면, 남녀모두 대체로 20대에 여가시간이 길고 30대-40대에 짧아졌다가 다시 50대 이후에 여가시간이 길어지는 U자형 패턴이다. 학력수준으로 보면, 대졸자의 경우에는 평일 여가시간이 짧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의 여가시간이 길어서 휴일에 여가를 보충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경우에는 평일과 휴일 모두에서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여가시간 전반적으로 길었으며, 이러한 간극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도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다.

혼인상태와 여가의 관련성은 보다 복잡한 양상이었다. 남성의 경우 미혼이나 사별, 이혼처럼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도 유배우자의 여가시간이 전반적으로 짧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한 경우의 여가시간이 유배우자나 미혼, 혹은 사별자보다도 유난히 여가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물론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족한 여가시간이 상당부분 보충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모두 유배우자들은 휴일에 이루어지는 여가시간양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표 1-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 행위시간 차이

		남 성			여 성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평 일	토요일	일요일
연령	20대	217.2	302.7	350.4	185.8	221.7	284.8
	30대	165.7	260.9	299.2	164.7	194.1	219.9
	40대	167.2	259.7	316.9	180.4	199.7	224.1
	50대	206.6	272.4	345.1	209.7	214.8	241.7
	60대	300.8	334.3	363.9	233.9	248.3	239.9
	70대	373.5	412.2	373.6	270.9	281.8	297.3
학력	중졸이하	265.9	313.2	321.5	222.1	233.5	253.2
	고졸이하	206.2	270.6	331.9	191.0	204.4	228.6
	대졸(2년제포함)이하	188.9	296.0	340.1	177.2	216.6	251.8
	대학원이상	190.6	334.7	307.6	194.9	238.1	238.6
취업여부	일을 했음	168.4	248.0	313.3	137.5	174.4	219.2
	일을 하지 않았음	416.3	453.9	431.1	270.2	264.9	272.8
혼인상태	미혼	225.6	326.1	360.2	187.8	251.6	319.1
	배우자 있음	208.6	283.4	323.4	192.6	209.2	226.0
	사별	299.1	342.9	407.8	252.1	260.6	277.0
	이혼	217.3	267.1	340.4	171.4	174.5	238.7
지역	대도시	214.0	297.9	342.0	201.5	223.9	247.5
	중소도시	207.3	283.6	324.8	197.2	217.1	240.3
	기타지역	235.1	281.0	308.7	190.3	202.1	236.0
맞벌이여부	그외	274.6	346.0	365.5	214.2	238.4	268.2
	맞벌이	158.3	228.3	291.9	126.7	163.4	199.3
	비맞벌이	156.3	255.3	324.5	245.9	232.6	245.6
6세이하 미취학자녀 여부	예	147.6	223.3	279.4	150.5	176.4	177.5
	아니오	224.8	306.2	340.7	206.1	227.8	253.8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에서는 평일 대도시지역의 평균여가시간량이 기타지역에 비해 짧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남녀모두 대도시 지역 거주자의 여가시간이 길었다. 이는 앞서 여가시간의 구성에서 텔레비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만큼, 일정수준의 여가가 텔레비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외로 기타지역의 여가시간량이 부족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지역의 경우 문화생활이나 취미, 또한 여가를 위한 이동시간에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으로 여가를 위해 쏟는 시간량은 길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여부 역시 여가시간과 관련이 있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남녀모두 여가시간의 절대량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짧았다. 또한 미취학자녀의 존재여부 역시 여가시간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시간부족의 분포와 행위시간의 관련성

이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표 1-5>에 제시한 바와 유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활용하여 시간압박, 시간사용만족도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요일별 시간압박인식의 차이를 보게 되면, 대체로 토요일에 사람들은 시간압박을 덜 느끼는 반면에, 평일과 일요일에는 시간압박 수준이 토요일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평일보다는 일요일에 여가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간압박을 “항상” 혹은 “가끔” 지각하는 비율에서는 평일보다는 일요일에 시간의 압박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표 1-6> 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요일별 시간부족(주관적 시간)

		항상부족	시간부족(주관적 시간)		전 혀	전 체
			가끔부족	별 로		
요일	평일	27.5%	41.3%	21.9%	9.3%	100.0%
	토요일	26.2%	39.3%	23.3%	11.2%	100.0%
	일요일	29.3%	40.3%	22.5%	7.9%	100.0%
성	남성	28.7%	40.9%	21.6%	8.9%	100.0%
	여성	26.6%	40.5%	23.0%	9.9%	100.0%
연령	20대	28.5%	47.8%	18.2%	5.5%	100.0%
	30대	34.5%	49.0%	13.6%	2.8%	100.0%
	40대	33.7%	45.2%	16.9%	4.2%	100.0%
	50대	26.2%	39.8%	25.7%	8.4%	100.0%
	60대	15.7%	27.4%	37.7%	19.3%	100.0%
	70대	9.8%	16.3%	38.0%	35.9%	100.0%
학력	중졸이하	20.0%	28.8%	31.6%	19.6%	100.0%
	고졸이하	28.1%	44.2%	20.9%	6.7%	100.0%
	대학교(전문대포함)이하	33.0%	47.7%	15.8%	3.5%	100.0%
	대학원이상	44.8%	42.7%	10.7%	1.9%	100.0%
취업여부	취업중	35.9%	45.3%	15.7%	3.2%	100.0%
	비취업	10.2%	31.0%	36.4%	22.4%	100.0%
혼인상태	미혼	27.2%	46.0%	19.5%	7.3%	100.0%
	유배우	28.6%	41.9%	21.7%	7.8%	100.0%
	사별	15.8%	21.0%	33.0%	30.2%	100.0%
	이혼	31.3%	32.4%	25.4%	11.0%	100.0%
거주지역	대도시	26.7%	41.9%	22.1%	9.3%	100.0%
	중소도시	28.3%	41.0%	21.9%	8.9%	100.0%
	농어촌	29.2%	33.8%	25.2%	11.7%	100.0%
주택점유형태	자가	27.0%	40.7%	23.2%	9.1%	100.0%
	전세	29.7%	42.7%	19.5%	8.0%	100.0%
	월세, 사글세	28.1%	38.2%	21.5%	12.2%	100.0%
	무상주택, 사택	25.1%	35.7%	22.0%	17.3%	100.0%
맞벌이가구	그 외	21.6%	33.4%	28.9%	16.1%	100.0%
	맞벌이	39.8%	46.9%	11.5%	1.9%	100.0%
	비맞벌이	25.4%	48.9%	21.6%	4.1%	100.0%
6세 이하 가구원수	없음	25.7%	39.7%	23.9%	10.6%	100.0%
	1명	36.7%	46.6%	13.5%	3.2%	100.0%
	2명	37.7%	44.3%	15.3%	2.7%	100.0%
	3명 이상	48.9%	35.6%	13.3%	2.2%	100.0%
65세 이상 가구원수	없음	30.4%	44.9%	19.2%	5.5%	100.0%
	1명	21.1%	30.7%	29.3%	18.9%	100.0%
	2명	15.5%	23.1%	35.8%	25.6%	100.0%
	3명 이상	15.8%	47.4%	36.8%		100.0%
75세 이상 가구원수	없음	28.2%	41.9%	21.7%	8.2%	100.0%
	1명	21.6%	28.7%	28.8%	20.9%	100.0%
	2명 이상	14.7%	17.2%	31.3%	36.8%	100.0%
전체		27.6%	40.7%	22.3%	9.4%	100.0%

남녀차이를 보게 되면, 남성이 여성보다 시간압박수준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시간압박이 유급노동여부와 관련이 있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성차이는 유급노동의 행위비율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연령 분포에서는 30-40대가 시간압박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60-70대에서는 시간압박이 완화되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학력은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자 집단이 중졸이하나 고졸학력자에 비해 우세하게 시간압박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력간 시간압박차이는 상당부분 연령집단간 차이, 즉 노인인구에서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학력수준에 따른 시간압박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령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준다.

예상대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취업자보다 시간압박수준이 높았다. 혼인상태로 보게되면, “항상부족”의 카테고리에서 이혼자가 유배우나 미혼 그리고 사별자보다 비율이 높아서 시간압박으로 보면 이혼자가 가장 압박감을 심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항상부족”과 “가끔부족”을 합한 비율에서는 유배우, 미혼 그리고 이혼자의 비중차이는 크지 않았다. 맞벌이가구가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시간부족을 “항상”지각하는 비율이 높아,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내 가구원의 연령구성 역시 시간부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 연구는 가정하였다. 예상대로 6세이하의 가구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부족을 “항상”지각하는 비율 역시 증가하는 방향이었다. 돌봄 노동이 요구되는 어린 자녀의 존재가 행위자들의 시간부족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 수의 증가는 우리의 가정과는 달리 “항상”부족의 비율이 감소로 나타났다. 물론 노인가구원이 가구 내에 있다는 것은 “가끔”바쁜 정도의 시간압박을 초래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이는 그 대상자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수의 증가에 따른 시간압박인 것으로 보인다. 노인가구원이 한명이상 있을 때 시간압박이 완화된다는 것은 그 노인가구원이 가구 내에서 시간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포함된 가구에서 노인단독가구와 3세대가구의 특성이 혼재하고 있어서, 앞서 노인들이 젊은이들에 비해 시간압박을 덜 지각한다는 경향과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제3장. 유급노동

이 장은 2009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유급노동시간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요일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현상을 살펴본다. 이 절은 다시 다음과 같은 소절로 구성된다. 첫 소절은 20세부터 79세까지의 학생이 아닌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유급노동시간의 분포를 살펴본다. 두 번째 소절은 시간대별로 유급노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 세 번째 소절에서는 2009생활시간 조사에서 통계청이 맞벌이가구로 분류해 놓은 가구에서 부부가 있는 가구를 뽑아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을 노동시간량과 시간대별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 참여비율을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을 조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절은 단순빈도 분석 및 시간대별 유급노동 및 무급노동 비율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20-75세 한국인의 유급노동시간의 분포

이 소절은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20세부터 79세 까지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유급노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유급노동시간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 <표 2-1>은 성, 연령, 교육수준 및 요일별 노동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 성, 연령, 교육수준, 요일별 노동시간(단위: 분)

	노동	이동	기타이동	합	N
전체	212.29	32.14	11.32	255.75	15500
남자	272.63	41.73	17.83	332.19	7331
여자	158.14	23.54	5.48	187.16	8169
20대	220.29	37.53	9.02	266.84	1888
30대	223.88	34.27	11.60	269.75	3491
40대	263.18	40.06	13.97	317.21	4042
50대	225.93	33.43	11.74	271.10	2799
60대	149.47	20.60	8.22	178.29	1941
70대	79.76	9.92	6.91	96.59	1339
중등	172.22	22.52	9.08	203.82	4522
고등	229.53	34.79	11.37	275.69	6121
대학	225.97	37.61	13.09	276.67	4482
대학원 이상	250.72	39.65	16.58	306.95	375
평일	271.61	41.61	14.69	327.91	9223
토요일	157.52	14.13	8.12	179.77	3136
일요일	92.81	12.34	4.64	109.79	3141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가운데 20세부터 79세까지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 지 않은 조사대상자는 15500명이다. 이 가운데 남자는 7331명, 여자는 8169명이다. 남자는 하루 평균 272.63분동안 유급노동을 했다. 일을 위해 하루 평균 41.73분동안 출퇴근을 하였고, 기타 이동하는데도 17.83분이 걸렸다. 이동시간을 포함해서 남자는 하루 평균 332.19분을 일했다. 반면에 여자는 하루 평균 158.14분동안 유급노동을 했다. 유급노동을 위해 23.54분동안 출퇴근을 했고, 기타 이동하는데도 5.48분

이 걸렸다. 그 결과 이동시간을 포함한 총 유급노동시간은 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187.16분이었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하루 평균 145분 정도 더 일을 했다.

연령별로 노동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대의 노동시간은 220.29분, 30대의 노동시간은 223.88분이다. 40대의 노동시간은 263.18분으로 가장 높다. 50대의 노동시간은 225.93분으로 30대의 노동시간과 비슷하다. 60대의 노동시간은 149.47분으로 현저히 낮아지고, 70대의 노동시간은 79.76분으로 가장 낮다.

이동시간을 포함한 총 유급노동시간은 20대 266.84분, 30대 269.75분, 40대 317.21분으로 증가하다가 50대 271.1분, 60대 178.29분, 70대 96.59분으로 감소한다.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들은 하루 평균 250.72시간의 유급노동을 했다. 반면에 대학학력 소지자는 225.97분,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는 229.53분, 중등학력 소지자는 172.22분동안 유급노동을 했다. 이동시간을 합한 총 유급노동시간은 대학원이상의 학력소지자가 306.95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학학력 소지자와 고등학교학력 소지자가 각각 276.67분, 275.69분으로 비슷했다. 중등학력 소지자는 203.82분으로 가장 낮았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271.61분의 노동시간을 기록했다. 토요일에는 157.52분으로 크게 감소하고, 일요일에는 92.81분으로 더 크게 감소한다. 이동시간을 합한 총 유급노동시간을 보면 평일에는 327.91분, 토요일 179.77분, 일요일 109.79분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석대상자의 유급노동시간의 분포를 성별, 연령별 등으로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성별로 나누어 남자와 여자의 유급노동시간의 분포를 각각 살펴본다. 먼저 남자의 유급노동시간의 분포를 살펴본다. 다음 <표 2-2>는 남자의 연령, 교육수준, 요일별 유급노동시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 남자의 연령, 교육수준, 요일별 유급노동시간 (단위: 분)

	노동	이동	기타이동	합	N
20대	247.23	41.83	15.48	304.54	849
30대	307.89	47.29	21.01	376.19	1648
40대	322.44	50.44	21.69	394.57	2000
50대	293.46	43.56	17.74	354.76	1361
60대	197.43	27.47	11.68	236.58	916
70대	101.04	12.81	8.54	122.39	557
중등	225.79	29.15	14.41	269.35	1636
고등	290.25	44.30	17.77	352.32	3034
대학	280.56	46.79	19.75	347.10	2405
대학원 이상	288.82	44.21	22.46	355.49	256
평일	348.62	53.76	23.15	425.53	4379
토요일	202.11	31.58	12.97	246.66	1468
일요일	118.18	16.27	6.98	141.43	1484

남자의 경우 이동시간을 합한 총유급노동시간은 40대가 가장 높은 394.57분이다. 그 다음은 30대로 376.19분을 기록하고 있다. 50대가 그 뒤를 이어 354.57분이고 20대는 이보다 훨씬 낮은 304.54분동안 유급노동을 했다. 반면에 60대는 하루 평균 236.58분, 70대는 122.39분동안 유급노동을 했다.

남자의 교육수준별 유급노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지닌 남자의 하루 평균 총 유급노동시간이 355.49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 학력 소지 남자로 352.32분이었다. 대학학력 소지 남자는 하루 평균 347.1분동안 유급노동을 했다. 반면에 중등학력을 지닌 남자는 하루 평균

269.35분동안 유급노동을 했다.

노동시간은 요일별로 큰 차이가 난다. 남자의 유급노동시간은 요일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요일별로 총유급노동시간의 분포를 살펴 보면 평일에는 남자는 하루 평균 425.53분동안 유급노동을 했고, 토요일에는 246.66분동안 유급노동을 했다. 반면에 일요일에는 141.43분 동안 유급노동을 했을뿐이다.

다음에는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의 분포를 살펴본다. 다음 <표 2-3>은 여자의 연령별 유급노동시간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2-3> 여자의 연령, 교육수준, 요일별 유급노동시간(단위: 분)

	노동	이동	기타이동	합	N
20대	198.27	34.02	3.73	236.02	1039
30대	148.76	22.62	5.08	176.46	1843
40대	205.14	29.91	6.40	241.45	2042
50대	162.03	23.85	6.06	191.94	1438
60대	106.62	13.44	5.13	125.19	1025
70대	64.60	7.86	5.75	78.21	782
중등	141.85	18.76	6.06	166.67	2886
고등	169.85	25.45	5.07	200.37	3087
대학	162.77	27.00	5.38	195.15	2077
대학원 이상	168.73	29.83	3.94	202.5	119
평일	201.99	30.63	7.04	239.66	4844
토요일	118.27	17.58	3.86	139.71	1668
일요일	70.09	8.82	2.55	81.46	1657

<표 2-3>을 보면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40대의 여자가 하루 평균 205.14분으로 가장 오랫동안 유급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은 20대 여자로 198.27분이다. 그 다음은 50대 여자로 162.03분이다. 특이한 점은 30대 여자의 유급노동시간이 적은 점이다. 30대 여자는 148.76분 동안 유급노동을 했다. 이는 20대의 경우 미혼인 여자들이 유급노동에 많이 참여한 반면 30대의 여자 가운데는 결혼과 출산 등의 이유로 유급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자가 많아서 나타난 현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동을 포함한 총 유급노동시간을 구해보아도 40대 241.45분, 20대 236.02분, 50대 191.94분, 30대 176.46분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자의 교육수준별 유급노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이동을 포함한 총 유급노동시간의 측면에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여자의 총 유급노동시간이 202.5분으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고등학교 학력 소지 여자로 200.37분, 그 다음은 대학 학력 소지 여자로 195.15분으로 나타난다. 중등학교 학력 소지 여자는 하루 평균 166.67분동안 유급노동을 하였다.

여자의 노동시간도 요일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여자는 평일에 이동을 포함하여 총 239.66분동안 유급노동을 하였고, 토요일에는 139.71분으로 유급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일요일에 여자는 하루 평균 81.46분동안 유급노동을 하였다.

지금까지는 평균시간량을 계산하여 남자와 여자의 유급노동시간이 연령별, 교육수준별, 요일별 등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유급노동시간량을 범주로 나누어 분포를 살펴본다. 다음 <표 2-4>은 성별, 요일별로 노동시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준다.

<표 2-4> 성별, 요일별 노동시간의 분포

노동시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시간	20.69	49.34	46.32	66.61	67.25	80.87
<2	2.33	1.86	4.09	3.06	4.31	2.23
<3	2.56	2.48	4.43	3.06	2.90	1.15
<4	3.49	3.28	4.90	3.06	2.49	1.39
<5	4.20	3.65	4.63	3.60	2.83	1.93
<6	6.51	6.01	5.79	3.96	2.96	1.99
<7	10.82	7.56	5.65	4.08	3.44	2.47
<8	16.10	10.65	8.92	4.26	3.84	2.23
<9	14.48	8.07	5.86	3.24	4.58	2.90
<10	9.71	3.70	5.04	2.22	2.83	1.63
10<=	9.11	3.41	4.36	2.88	2.56	1.21
합	100	100.01	99.99	100.03	99.99	100

주: 이동을 뺀 순수한 유급노동시간임.

남자의 경우 평일에는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16.1%,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의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14.48%,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10.82%로 40% 이상의 남자가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의 유급노동을 하고 있다. 9시간 이상의 장시간동안 유급노동을 한 남자의 비율도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평일에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유급노동을 한 비율이 10.65%,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의 유급노동을 한 비율이 8.07%,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의 유급노동을 한 비율이 7.56%로 약 26%의 여자가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의 유급노동을 하고 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21%는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의 유급노동을 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4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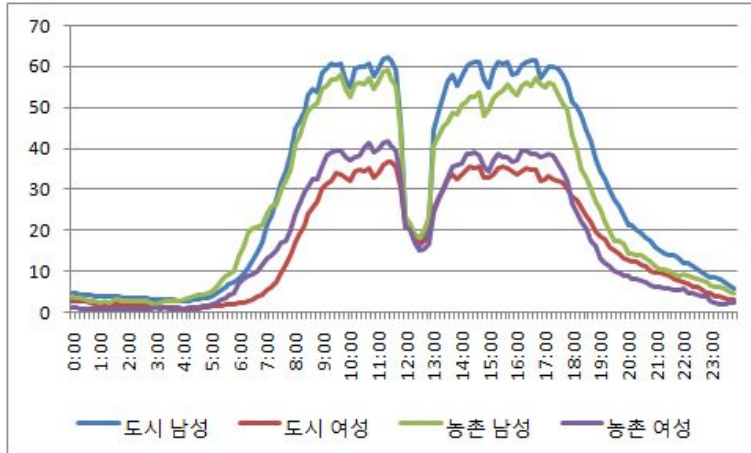
2. 20-75세 한국인의 유급노동의 시간대별 분포

이 소절에서는 한국인의 유급노동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소절의 목표는 유급노동의 전개를 시간대별로 시각적으로(visually) 살펴보아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시간대별 유급노동의 전개에 관한 후속 심층연구를 위한 입문의 형식을 띤다. 비록 탐색적이기는 해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한 일상생활의 분석이 주로 시간량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유급노동시간의 시간대분포를 살펴본다.

시간대별 분석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24/7 사회에서는 유급노동이 소위 “9-5” 시간대에 일어나지 않는다. 제2교대, 제3교대, 파트타임 노동 등이 증가하면 유급노동은 하루 24시간 중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은 한국인은 노동시간량을 증가시켜 낮은 노동생산성을 상쇄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에 더해 1997년말의 경제위기로 촉발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2008년에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의 결과 노동강도는 더 높아지고, 직업의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노동시간량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대도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24/7 사회의 전개, 그리고 직업별, 산업별로 24/7 사회 혹은 노동시장과 직업의 불안정성을 반영하여 어떤 부문에서 노동시간대가 다양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 2-1>은 성별, 지역별로 유급노동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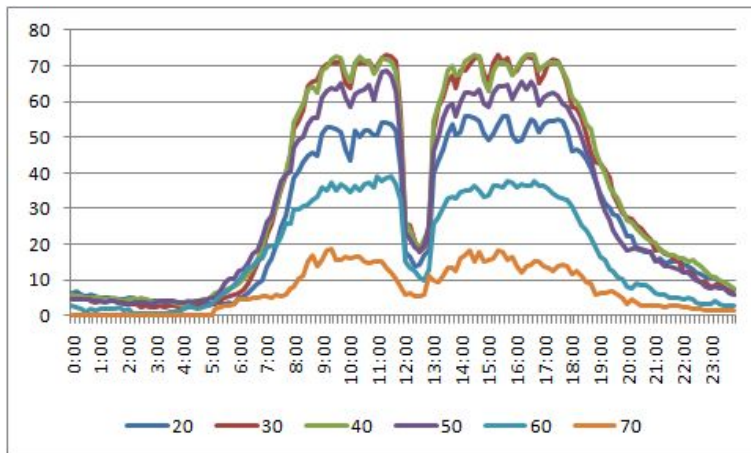
<그림 2-1> 성별, 지역별 시간대별 유급노동 비율



위의 <그림 2-1>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첫째, 지역에 관계없이 남자 혹은 여자에 따른 유급노동의 패턴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우 농촌 남성이 도시 남성에 비해 일을 시작하는 시점은 약간 빠르다. 그러나 시간별로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은 도시 남성이 농촌 남성보다 더 높다. 즉 도시 남성이 농촌 남성보다 유급노동시간이 길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현상이 관찰된다. 도시 여성 보다는 농촌 여성의 노동참여가 더 많다. 새벽에도 일하는 농촌 여성의 비율이 도시 여성보다 더 높다. 그러나 저녁 및 밤에는 도시 여성의 유급노동 비율이 농촌 여성보다 더 높다.

다음 <그림 2-2>는 주중 도시 남성의 연령별 유급노동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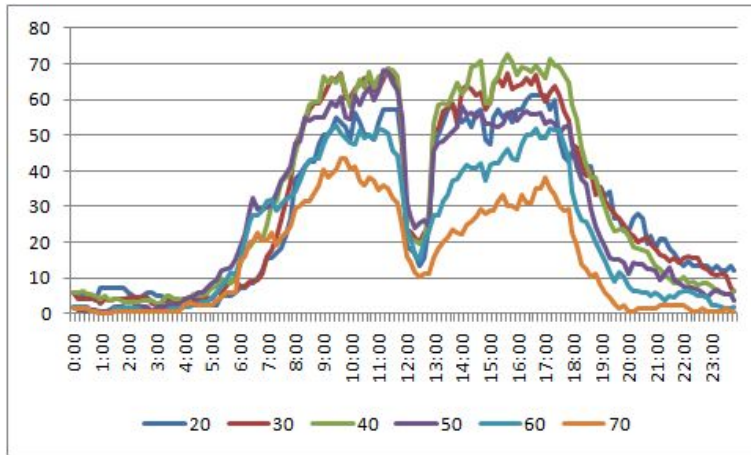
<그림 2-2> 주중 도시남성의 연령별 유급노동 비율



주중에 가장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30대와 40대이다. 30대와 40대의 시간대별 유급노동 참여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패턴은 유사하지만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낮은 연령대는 50대이다. 그 다음이 20대, 60대, 70대의 순으로 나타난다. 오전 일찍이나 밤 늦은 시간대에는 20, 30, 40, 50대의 연령별 유급노동 참여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음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2-3>은 주중 농촌 남성의 연령별 유급노동 참여 비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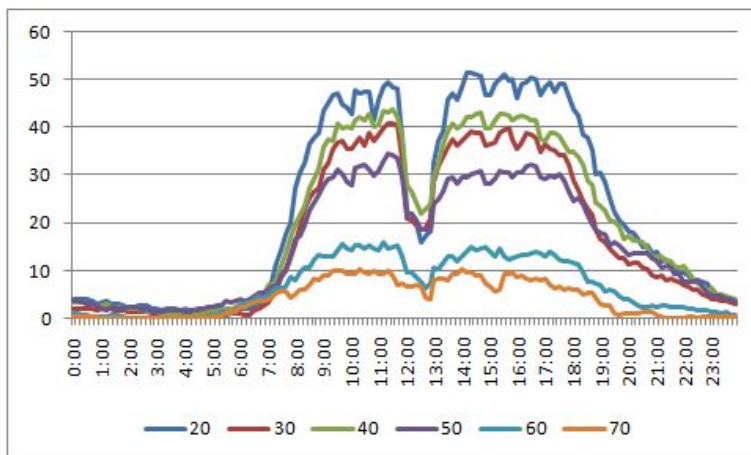
<그림 2-3> 주중 농촌남성의 연령별 유급노동 비율



농촌 남성들의 시간대별 유급노동 참여 현상은 도시 남성과는 약간 다르다. 첫째, 70대와 6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시간대별 유급노동 참여가 적은 것은 비슷한 현상이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유급노동 참여 비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둘째, 도시 남성들은 오전에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대가 되면 바로 높은 비율로 일하기 시작하고 점심 시간후 다시 비슷한 비율로 유급노동에 종사한다. 그러나 농촌 남성의 경우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 후에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셋째, 도시 남성과는 달리 농촌 남성들은 저녁 시간에 연령별로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7시 이후에도 연령별로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에 연령별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는 도시 남성의 시간대별 유급노동 참여 현상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점이다.

다음 <그림 2-4>는 주중 도시 여성의 연령별 유급노동 참여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2-4> 주중 도시여성의 연령별 유급노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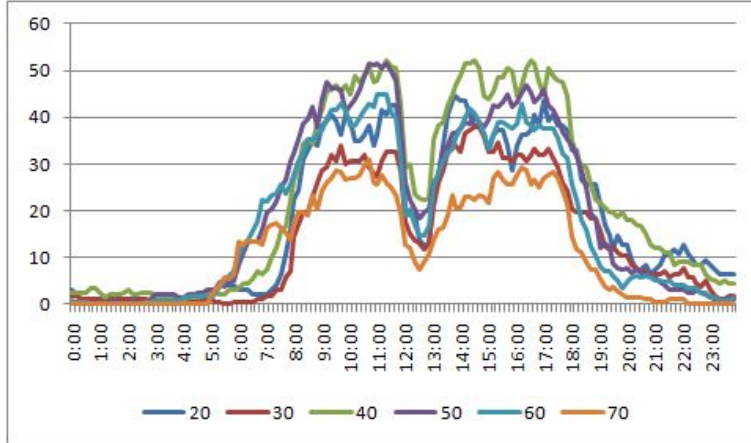


도시 여성 가운데 유급노동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연령대는 20대이다. 20대 도시 여성들은 40대, 30대, 50대 여성 등에 비해 시간대별로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오후 1시 이후에는 다른 어느 연령대에 비해서도 20대의 유급노동 종사 비율이 뚜렷이 높게 나타난다. 도시 남성들과는 달리 20대 도시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0대, 30대, 50대의 순으로 연령별 유급노동 참여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도시의 60, 70대 여성들은 유급노동 참여 비율이 매우 낮고 주로 낮시

간대에만 일을 한다.

다음 <그림 2-5>는 주중 농촌여성의 연령별 유급노동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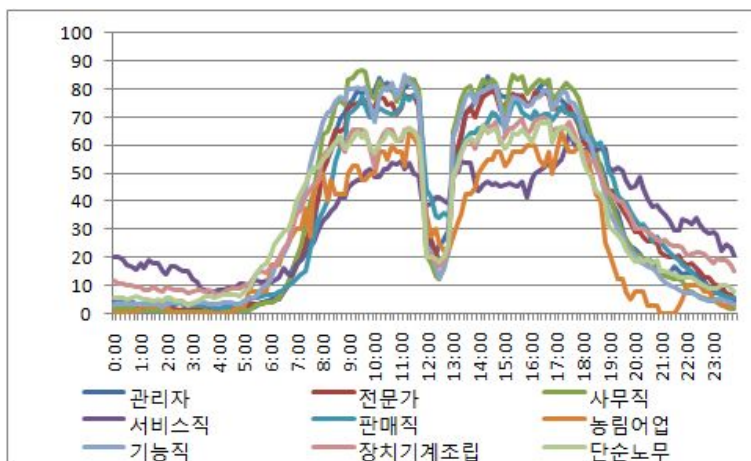
<그림 2-5> 주중 농촌여성의 연령별 유급노동 비율



도시와는 달리 농촌에서는 여성의 유급노동을 연령별로 볼 때 매 시간대별로 가장 많이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연령대가 40대와 50대로 나타난다. 농촌 여성의 50대는 40대와 함께 오전에 12시 정도까지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점심 시간후 오후가 되면 40대 농촌 여성은 대부분 다른 연령보다 높은 비율로 유급노동에 참여한다. 농촌에서는 40대 여성 다음으로는 50대와 60대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가 높다. 반면에 농촌에서 30대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는 거의 모든 시간대에서 70대를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그림 2-6>은 주중 도시 남성의 직업별 유급노동 참여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6> 주중 도시남성의 직업별 유급노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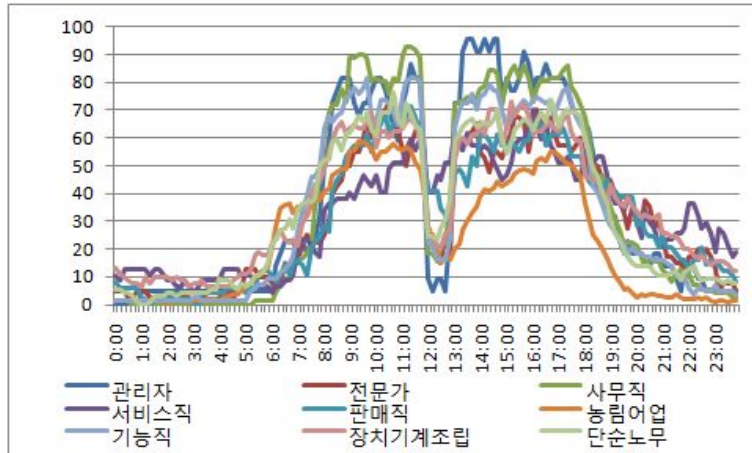


<그림 2-6>에서 시간대별 유급노동 참여 비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직업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도시의 남성들은 한밤 중에도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예를 들어 밤 0시부터 2시에 이를 때에도 20%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깨어 일을 한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도 다른 어느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보다도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오전 오후 등 낮시간대에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보다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유급노동 참여가 낮게

나타난다. 직업만으로 봤을 때 24/7 사회에 걸맞는 시간대별 유급노동의 패턴을 보이는 직업은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2-7>은 주중 농촌 남성의 직업별 시간대별 유급노동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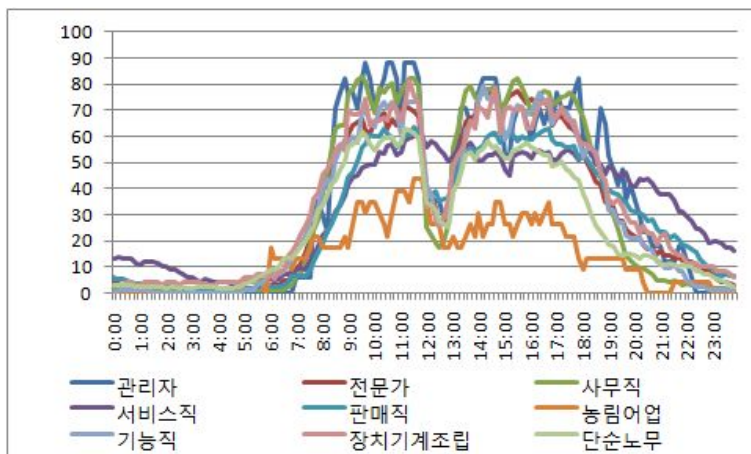
<그림 2-7> 주중 농촌남성의 직업별 유급노동 비율



농촌지역에서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가장 높게 유급노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낮 시간대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농촌 남성의 일하는 비율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농촌 남성들의 비율에 비해 낮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촌 남성들의 일하는 비율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농촌 남성의 비율보다 낮다. 시간대별로 보아도 특히 낮 12시 이후에는 밤 늦게까지 보아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농촌 남성에 비해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농촌 남성의 유급노동 참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그림 2-8>은 주중 도시 여성의 직업별 유급노동 참여 비율을 시간대별로 보여준다.

<그림 2-8> 주중 도시여성의 직업별 유급노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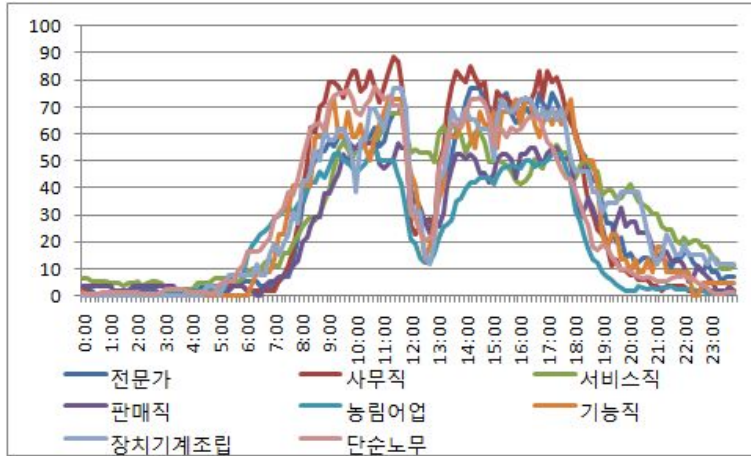


도시의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새벽과 밤 늦은 시간대에 일하는 비율이 다른 어느 직업의 도시 여성보다 높다. 그러나 낮시간대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도시 여성의 유급노동 비율이 다른 직업을 가진 도시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다. 물론 도시 지역에서 일부 발견되는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도시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가 시간대별로 볼 때 가장 낮지만 이를 제외

하고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도시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 비율이 낮다.

다음 <그림 2-9>는 주중 농촌 여성의 직업별 유급노동 참여를 시간대별로 보여준다.

<그림 2-9> 주중 농촌여성의 직업별 유급노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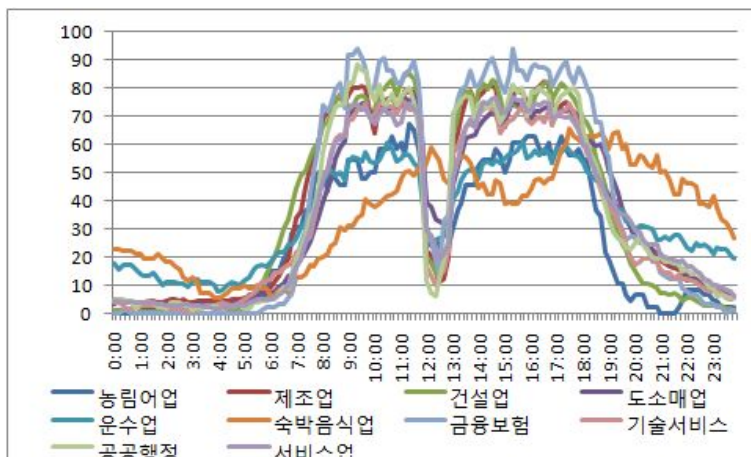


농촌 여성의 경우에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밤 늦은 시간대에는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농촌 여성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낮 시간대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유급노동 참여가 높지 않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유급노동 참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비해 높은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직업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 비율을 시간대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들이 밤시간대에 가장 높은 비율로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현상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 2-10>은 주중 도시 남성의 산업별 유급노동 참여를 시간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0> 주중 도시남성의 산업별 유급노동 비율



<그림 2-10>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숙박음식업에 종사하거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도시 남성들이 가장 밤늦게, 새벽까지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숙박음식업이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꼭 “9·5”의 노동패턴을 따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도시 남성들은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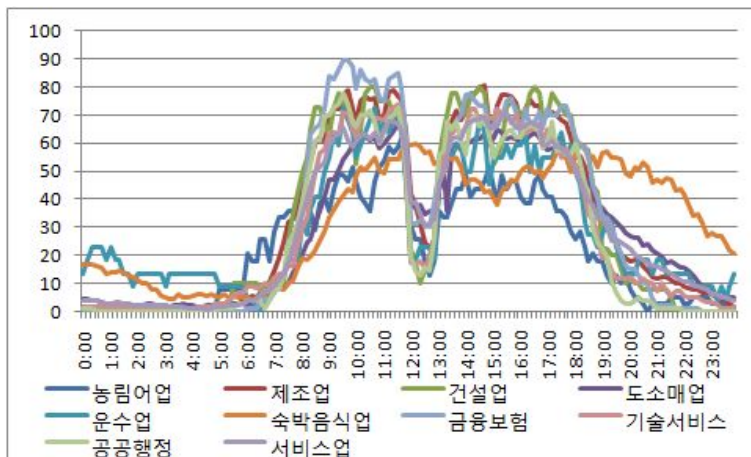
전 시간대에는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그러나 남들은 점심을 먹기 때문에 유급노동을 멈춘 시간대에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도시 남성들은 높은 비율로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점심시간대가 지나면 다시 유급노동에서 빠져 나온다. 그러다 남들은 저녁시간대에 유급노동을 멈추지만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도시의 남성들은 다시 높은 비율로 유급노동에 종사한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아지지만, 다른 어느 산업에 비해서도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도시 남성들의 유급노동 참여율이 높게 유지된다.

운수업은 숙박음식업을 제외하고는 낮 시간대에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다. 만약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라면 2교대 등의 제도에 따라 낮시간대에 쉬는 도시 남성들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밤시간이 되면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도시 남성보다는 낮지만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도시 남성에 비해서는 늦게까지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숙박음식업과 운수업 그리고 도시에서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도시 남성들의 시간대별 유급노동 참여 비율은 우선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그림 2-11>은 주중 도시 여성의 산업별 유급노동 참여 비율을 시간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1> 주중 도시여성의 산업별 유급노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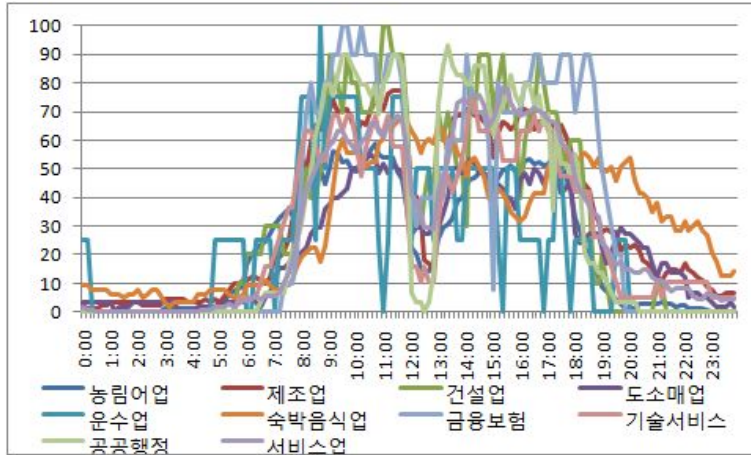


도시 여성의 경우에도 시간대별로 유급노동 참여 비율이 가장 독특하게 구분되는 산업은 역시 숙박음식업이다.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도시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오전시간대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점심시간 이전인 11시 및 12시 경에 유급노동 참여비율이 정점에 달한다. 12시가 지난 후에도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도시의 여성들은 계속 유급노동에 종사한다. 오후 3-4시 경까지는 유급노동 비율이 약간 감소하지만, 이후에 다시 유급노동 비율이 증가하고 오후 5시에서 7시 경에 정점에 도달한다.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조금씩 감소한다.

도시 여성의 경우에도 운수업에 종사하는 경우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여성 다음으로 늦게까지 일하는 비율이 유지되지만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도시의 여성도 늦게까지 일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림 2-12>.는 주중 농촌 여성의 산업별 유급노동 참여를 시간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2> 주중 농촌여성의 산업별 유급노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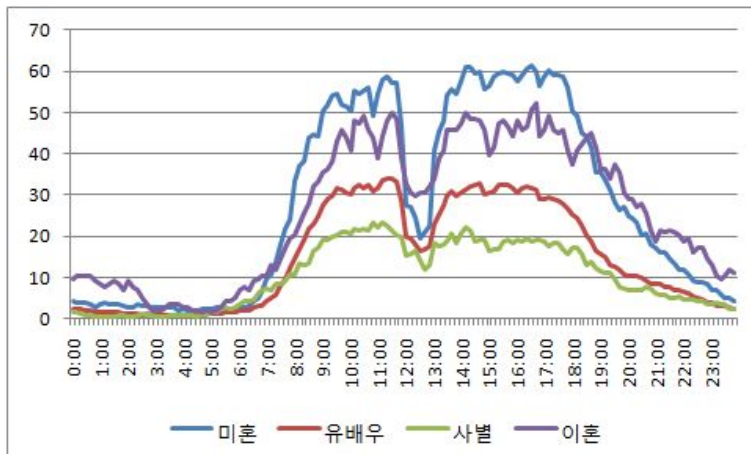


<그림 2-12>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 여성의 산업별 유급노동 참여를 시간대별로 보는 것은 각 산업에 포함된 절대수가 부족하여 파악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역시 분명한 것은 농촌 여성의 경우에도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유급노동 참여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다는 점이다.

직업과 산업별 유급노동 참여를 시간대별로 살펴 본 결과 우리는 숙박음식업종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들의 유급노동 패턴이 다른 어느 직업과 산업에 비교해서 독특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숙박음식업종에 종사하는 서비스직 남성과 여성들은 밤에도 깨어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낮에는 오히려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직업과 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다른 직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들은 유급노동을 마치는 밤시간대에도 이들은 여전히 유급노동에 종사한다. 24/7 사회에서 2교대 혹은 3교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비스직이고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산업별로 나누어보면 숙박음식업, 운수업 아니면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24/7 사회로 이행할 때 밤과 낮은 바뀌가며 살게 되는 체 일차적인 대상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그림 2-13>은 도시와 농촌의 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라 유급노동 참여가 시간대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2-13> 주중 도시여성의 혼인상태별 유급노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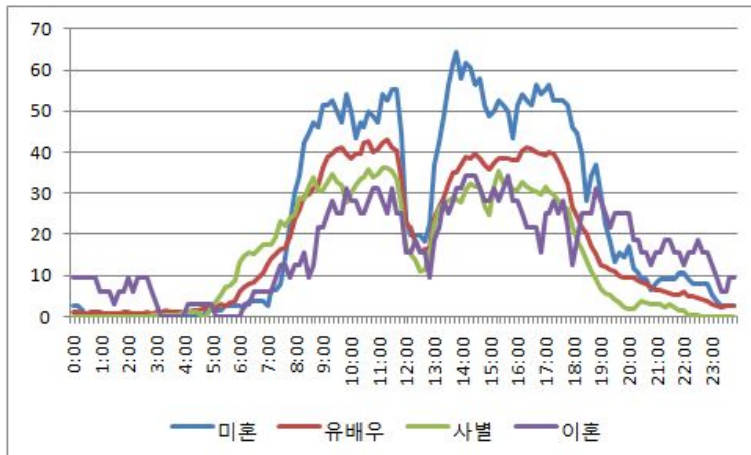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혼인상태는

미혼이다. 도시의 미혼 여성들이 일상생활의 낮시간대에 유급노동에 가장 높게 참여한다. 그 다음은 이혼, 유배우, 사별의 순이다. 이혼한 여성은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미혼 여성 다음으로 높을 것이다. 반면에 유배우 여성들은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 낮시간에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대별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혼한 도시 여성들이 밤늦게까지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아마 숙박음식업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 가운데 이혼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그림 2-14>는 주중 농촌 여성의 혼인상태별 유급노동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4> 주중 농촌여성의 혼인상태별 유급노동 비율



도시의 여성들은 혼인상태에 따라 유급노동의 참여에 시간대별 패턴이 뚜렷하다. 그러나 농촌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 여성의 경우 오전 시간대보다 오후 시간대에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오후 시간대에 이혼과 사별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가 비슷해지는 등 도시 여성의 혼인상태별 유급노동 참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농촌 여성의 경우에도 이혼한 여성들이 밤 늦게까지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혼인상태의 여성보다 높고, 밤 12시가 넘어서도 새벽 2시 30분 쯤도까지 10%의 여성들이 유급노동에 종사한다.

3. 20-75세 한국인 중 맞벌이 가구 부부의 유급노동

이 소절에서는 전체 분석대상 중 맞벌이 가구만을 골라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의 유급노동에 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맞벌이 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만을 골라 분석을 실시했다.

다음 <표 2-5>는 요일별로 맞벌이 가구의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시간, 무급가사노동시간, 자유시간 및 개인유지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 2-5> 요일별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 무급가사노동, 자유시간 및 개인유지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유급노동	448.0	222.8	268.7	132.5	154.3	94.7
무급가사노동	44.5	282.1	76.4	301.0	85.3	287.7
자유시간	299.4	294.7	410.4	326.4	481.1	358.2
개인유지	648.1	640.4	684.5	680.0	719.4	699.5
총노동시간	492.5	504.9	345.1	433.6	239.5	382.4

이 <표 2-5>에서 알 수 있듯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평일에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은 평균 448분인데 반해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평균 223분으로 남성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나 무급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경우 평균 44분인데 반해 여성의 평균 무급가사노동시간은 282분으로 남성의 6배가 넘는다. 그래서 유급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을 계산하면 남성의 경우 평균 492분인데 반해 여성은 평균 504분으로 결국 평일에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남성의 총노동시간보다 더 길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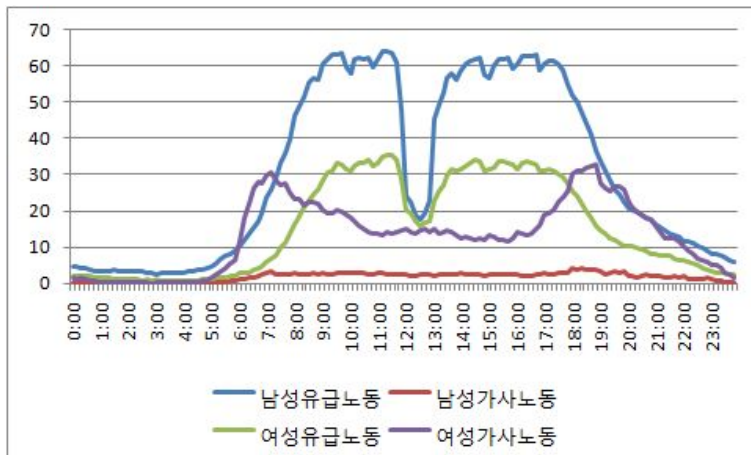
토요일에도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은 평균 269분이고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평균 132분으로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의 2배이다. 그러나 역시 토요일에도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 보다 훨씬 길다. 그 결과 총노동시간을 계산해보면 남성의 총노동시간은 평균 345분인데 반해 여성의 총노동시간은 433분으로 남성보다 거의 100분이나 더 많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토요일에도 남성은 유급노동은 여성보다 더 많이 하지만 여성들은 무급가사노동에 훨씬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총노동시간이 더 길다.

일요일에 남성은 평균 154분동안 유급노동을 한다. 반면에 여성은 95분을 한다. 일요일에는 남성이 여성의 두 배 정도 유급노동을 하는 편이 아니다. 그러나 무급가사노동에 남성은 평균 85분을 쓰는 반면 여성은 일요일에도 하루 평균 288분을 사용하여 남성보다 200분이상을 더 일하는 셈이 된다. 그 결과 총노동시간을 계산해 보면 남성의 총노동시간은 239분인데 반해 여성의 총노동시간은 382분으로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남성의 총노동시간보다 150분 가량 더 길다. 평일이나 토요일에 비해 일요일에는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더 길게 일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토요일에 비해 일요일에 총노동시간은 50분 가량 줄어들지만 그러나 남성의 총노동시간과 비교하면 일요일에도 여성은 유급, 무급 노동에 남성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다음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다음 <그림 2-15>는 평일 맞벌이 부부의 시간대별 유급노동 및 무급가사노동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5> 평일 맞벌이 부부의 시간대별 유급노동 및 가사노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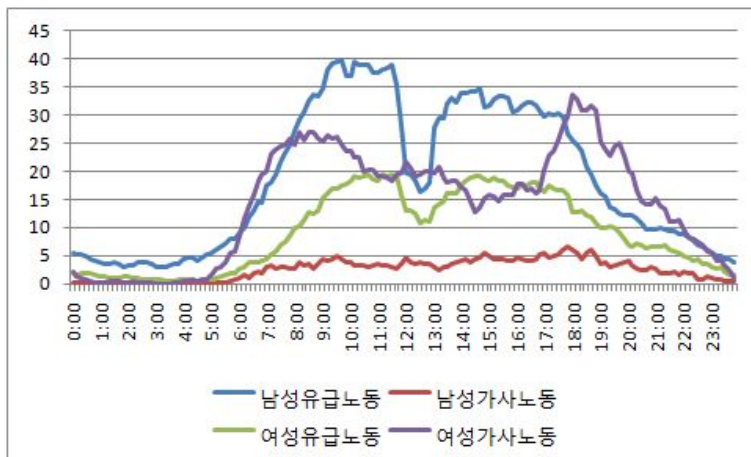
평일에 맞벌이를 하는 남성의 경우 오전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일하고 5시 이후부터는 유급노동을 그치게 된다. 맞벌이를 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이런 패턴은 동일하다. 남성보다

늦은 시간에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유급노동을 지속한다. 그러다 남성과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유급노동을 그치기 시작한다. <그림 2-19>를 보면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은 맞벌이 남성과 여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간대별 노동패턴은 유사하다.

그러나 평일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패턴은 매우 다르다. 무엇보다 맞벌이 남성은 평일에 가사노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유급노동을 시작하기 전이나 유급노동을 마친 후에도 맞벌이 남성은 평일에 가사노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맞벌이 여성의 경우 본격적인 유급노동을 하기 전 시간대에서는 무급가사노동을 수행한다. 그러다 유급노동을 하는 시간대에는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그러나 맞벌이 여성은 유급노동을 마치기 시작하는 시간대에 다시 무급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이 시간대에 맞벌이 남성은 가사노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오후 6시에 맞벌이 여성의 무급가사노동 참여 비율이 정점에 달한 후 조금씩 그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다음 <그림 2-16>는 토요일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 및 가사노동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6> 토요일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 및 가사노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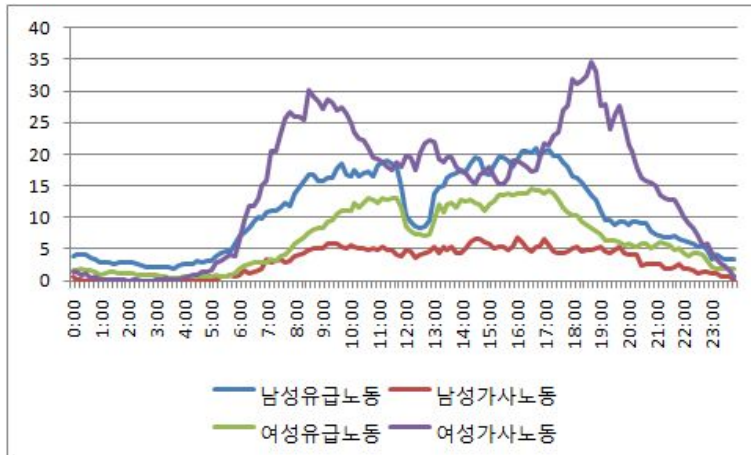


토요일에 맞벌이 남성의 경우 오전에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오후보다 높다. 역시 일을 하는 경우에도 토요일에는 오전에 더 많이 일을 하고 오후에는 유급노동의 비율이 남성의 경우에 감소한다. 맞벌이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훨씬 늦게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오후에도 오전과 비슷한 유급노동 패턴을 이어간다.

일을 하는 맞벌이 남성의 경우 토요일에는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평일보다는 높다. 그러나 매 시간대에 무급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은 최대 5%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에 맞벌이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사노동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급가사노동 참여 비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토요일에 유급가사노동을 마치는 시간대가 되면 맞벌이 여성의 무급가사노동 참여비율은 다시 높아진다. 그래서 오후 6시쯤에 무급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정점을 이루고 이후에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다음 <그림 2-17>은 일요일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 및 가사노동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7> 일요일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 및 가사노동 비율



일요일에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 패턴은 매우 유사하다. 비록 시간대별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일요일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 패턴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일요일에도 맞벌이 남성의 무급가사노동 참여율은 시간대별로 보아도 매우 낮다. 역시 최대 5%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맞벌이 여성들은 일요일에 남성들이 유급노동이나 무급가사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일요일 오전 8시경 맞벌이 여성들의 무급가사노동 비율은 정점을 이루고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오후 7시 경에 무급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정점을 이룬다. 이 시간대에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남성들은 무급가사노동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아 여성의 일상생활과 대조를 이루게 된다.

우리는 이 소절에서 맞벌이 부부만을 골라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 무급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이를 합한 총노동시간을 비교해 보았다. 맞벌이 남성은 맞벌이 여성보다 유급노동시간이 길다. 그러나 맞벌이 여성은 맞벌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무급가사노동을 수행한다. 그 결과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은 요일에 관계없이 맞벌이 여성이 맞벌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대별로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 참여 비율을 살펴본데서도 쉽게 확인된다. 맞벌이 남성은 유급노동을 하기 전이나 유급노동을 끝낸 후 무급가사노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반면에 맞벌이 여성은 유급노동에 참여하기 전에 무급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유급노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무급가사노동을 수행한다. 시간대별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의 분포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을 둘러싼 성별 차이 혹은 성차별은 2009년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인의 유급노동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장은 크게 세 절로 나뉘어 유급노동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첫째, 00세부터 75세까지의 한국인의 여러 사회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급노동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둘째로 시간대 유급노동의 분포를 통해 단순한 유급노동의 특성뿐

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의 특성이 유급노동에 반영되어 있는지 혹은 유급노동의 특성의 변화가 한국사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을 시간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장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유급노동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유급노동을 하는 주체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2009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만 20세부터 75세까지의 한국인 중 유급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은 남자였다. 유급노동 및 유급노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까지 합한 시간을 총유급노동시간이라고 한다면 20세부터 75세까지의 남자는 하루 평균 332.19분을 유급노동으로 사용한다. 반면에 여자는 187.16분을 유급노동으로 보낸다.

둘째 유급노동은 연령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젊은 층에서 나이가 들수록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을 통과하면 유급노동에서 빠져 나오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인당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사이에는 평균 유급노동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국인 가운데 40대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높다. 그러나 40대를 지나게 되면 다시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고 60대를 넘어서면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가파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교육수준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령이 낮은 층은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은 층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수준별 평균 유급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의 학력을 지닌 사람과 대학교의 학력을 지닌 사람 사이에는 유급노동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대학교 학력을 넘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니게 되면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다시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층과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층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과 평균 유급노동시간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넷째, 유급노동시간은 너무도 당연하게도 요일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사회에는 2004년에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04년 조사 자료부터는 토요일의 유급노동시간이나 유급노동패턴이 주중의 유급노동시간이나 유급노동패턴과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었다. 2004년 생활시간자료 분석에서도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평일에는 한국인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328분이었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180분으로 크게 감소하고, 일요일에는 다시 110분으로 크게 감소한다. 토요일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주중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에 가깝지 않고 일요일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에 가까운 양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평균 유급노동시간의 패턴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난다. 남자의 경우 연령별 유급노동시간의 패턴을 살펴보면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많다. 즉 20대 → 30대 → 40대 로 갈수록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다 40대를 넘어서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연령별 유급노동시간 패턴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여자의 경우 20대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20대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여자의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30대가 되면 여자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크게 감소한다. 이 연령대의 여자는 노동시장에서 많이 이탈해서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다 여자는 40대에 이르면 다시 유급노동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 30대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던 여자들이 다시 노동시장

에 진입하고 결과적으로 여성 40대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나 여자들의 경우에도 40대가 지나면 다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한다.

여섯째, 남자와 여자 모두 유급노동시간은 요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남자의 경우 평일에는 425분, 토요일에는 147분, 일요일에는 141분으로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크게 변한다. 여자의 경우에도 평일에는 240분, 토요일에는 140분, 일요일에는 81분으로 크게 감소한다. 요일별 감소의 패턴은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곱째, 유급노동시간을 성별, 요일별로 좀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평일에 남자의 경우 1시간 이하의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은 21%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49%에 달한다. 반면에 남자는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비율이 11%,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비율이 16%,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비율이 14%에 이른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량의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각각 7.6%, 11%, 8%이다. 이러한 유급노동시간의 분포는 여자의 경우 노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지만, 일단 일을 하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파트타임직보다는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전일제의 유급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평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에는 1시간의 이하의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평일과 같이 세분화된 노동시간대별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연구영역의 하나는 한국사회가 24/7 사회로 전환하면서 유급노동시간대가 자유로워져,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일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소위 2교대, 3교대 직을 수행하는 한국인이 증가하는지의 여부였다. 이를 위해 시간대별로 유급노동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였다. 24/7사회의 도래와 함께 유급노동의 성격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직업별, 산업별 유급노동시간의 시간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성별, 지역별로 시간대에 따라 유급노동비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는 오전시간대의 오후 시간대에 유급노동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둘째, 직업별로 보면 24/7사회에서 한 밤 중에도 깨어 있고, 밤 늦게에도 유급노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종인 서비스직이다. 전문가나 혹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늦은 반이나 한 밤 중 혹은 새벽에 일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 그러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종과 확연히 다르게 밤늦게까지 심지어 자정을 넘겨서도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24/7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면 유급노동의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업분야는 서비스직이고, 아직 제조업분야는 모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교대 혹은 3교대와 같은 방식으로 유급노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24/7 사회의 도래에 따라 유급노동시간대가 다른 산업분야와 확연히 구분되는 산업분야는 숙박음식업이다. 숙박업소나 음식을 파는 분야는 9시부터 일하고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하루 생활 패턴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듯이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분야는 대부분 음식점이나 편의점 그리고 숙박업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유급노동의 시간대분석에서도 산업별로 유급노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균의 노동시간 패턴과 가장 많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을 유급노동, 무급가사노동 등으로 나누어 살펴왔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의 시간대 분석을 통해 평일에는 남자와 여자의 총노동시간은 비슷한 가운데 남자는 모든 시간대에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고 반면에 여자는 무급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일요일에는 남자는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급가사노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반면, 여자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일요일에는 무급가사노동 때문에 또 다시 “일”을 해야 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제인 유급노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요일에는 여자도 유급노동을 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시간대별로도 성별로 유급노동의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3장. 가족돌봄행위와 시간량, 시간체험

이 장에서는 무급가족노동 중에서도 가족돌보기, 특히 미취학아동과 노인돌보기에 집중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시간조사 2009년도 행동분류표에서 가족돌보기는 미취학아이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 배우자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보살피기, 그 외 가족보살피기 등 5가지의 중분류 범주를 가지고 있다. 아래 <표 3-1>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미취학아이보살피기는 신체적 돌보기, 공부 봐주기, 놀아주기, 간호 및 기타 등의 5가지 하위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부모 및 조부모돌보기는 간호와 그 외 보살피기의 2가지 하위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1. 미취학아동돌보기

1) 미취학아동돌보기 분석사례와 행동구분

여기서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성인들이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를 하는지,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시간부족을 경험하는지에 집중한다. 미취학아동돌보기의 참여여부와 행위자 시간량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25-44세의 유배우자들을 선택하였다. 이혼이나 사별을 제외하고 유배우자에 한정된 것은 무배우자(한부모가족)와 유배우자간에 자녀를 돌보는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한부모가족을 이루는 아동들에 대한 돌보기는 별개의 분석이 요구된다. 성인남녀의 연령을 25-44세로 한정된 것은 생애주기상의 변이를 어느 정도라도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연령층이 대체로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일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뽑힌 분석대상자는 남자 1,044명, 여자 1,107명으로 다음의 <표 3-2>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 요일별로는 평일이 60%정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20%를 차지한다. 이들의 조사일지 내용에서 둘째 날을 뽑는 과정에서 평일은 월, 수, 금요일이 기록된 일지로 구성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의 부모 연령에 가까운 3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연령이 다소 낮은 연령층에 몰려있는 것은 남녀간의 평균결혼연령차를 반영한다. 분석표본이 30대의 연령층이 중심이기 때문에 학력수준도 높아, 초대졸 이상의 비율이 50%를 넘는다. 교육수준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표 3-1> 가족돌보기 행동의 분류체계

가족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신체적 돌보기(씻기기, 먹이기, 재우기 등) 공부 봐주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미취학 아이 간호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	씻기기, 등·학교 도와주기 숙제 및 공부 봐주기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방문 초·중·고등학생 간호 기타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보살피기	배우자 간호 기타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배우자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간호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보살피기	그 외 가족 간호 기타 그 외 가족 보살피기

가족돌보기 행위여부를 알아보는 데 있어, 우선 해당 가구에 미취학아동이나 노인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생활시간조사자료에 “미취학자녀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가구원명부에 기초해서 해당 가구에 6세 이하 가구원(즉, 미취학아동)의 존재여부를 판별하였다. 마찬가지로, 해당 가구에 노인이 있는지에 대한 판별도 가구원명부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미취학자녀의 존재유무에 관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원명부에 의존한 이유는 가구원명부의 일관성이 있는 사용을 위한 것이다. 가구내 노인의 존재유무에 관한 조사문항이 없는 상황에서 미취학자녀와 노인존재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를 가구원명부에서 찾은 셈이다. 한편, 가구원의 연령구성 등과 변수들도 가구원명부를 통해 만들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구원명부는 미취학자녀, 노인 등과 같은 돌보기행위의 대상자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또한 돌봄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구성상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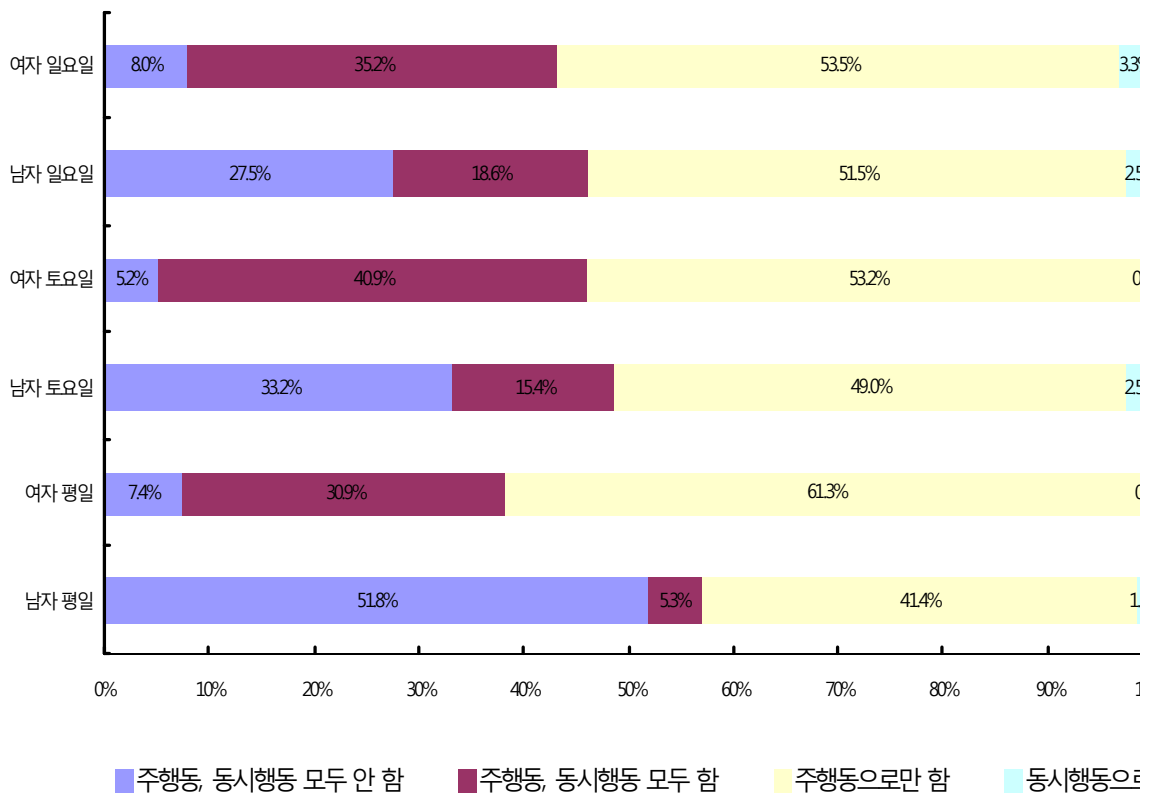
<표 3-2> 미취학아동돌보기 분석표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전체(n=2151)	남자(n=1044)	여자(n=1107)
여자(%)	51.5%		
평일(%)	56.9%	57.4%	56.5%
토요일(%)	23.7%	23.1%	24.3%
일요일(%)	19.4%	19.5%	19.2%
20대 후반(%)	12.8%	7.8%	17.5%
30대 초반(%)	33.3%	28.2%	38.1%
30대 후반(%)	40.6%	45.5%	36.0%
40대 초반(%)	13.3%	18.6%	8.3%
대도시(%)	45.2%	45.8%	44.7%
중소도시(%)	47.0%	46.2%	47.7%
농어촌지역(%)	7.8%	8.0%	7.6%
자가(%)	55.5%	55.8%	55.1%
전세(%)	29.2%	28.8%	29.5%
월세 등(%)	15.3%	15.3%	15.4%
초대졸 이상(%)	53.7%	57.2%	50.5%
취업(%)	67.0%	96.5%	39.3%
비농가(%)	97.7%	97.6%	97.7%
맞벌이가구(%)	34.5%	34.8%	34.3%
6세이하 가구원 2명이상(%)	33.5%	33.8%	33.2%
7-12세 가구원있음(%)	33.5%	33.2%	33.8%
13-18세 가구원있음(%)	5.1%	4.5%	5.6%
55-59세 가구원있음(%)	1.7%	1.7%	1.7%
60-64세 가구원있음(%)	2.8%	3.0%	2.7%
65-69세 가구원있음(%)	3.0%	2.9%	3.1%
70-74세 가구원있음(%)	2.1%	2.3%	1.9%
75-79세 가구원있음(%)	1.1%	1.1%	1.1%
80세이상 가구원있음(%)	0.8%	0.7%	0.9%
3세대 가구(%)	8.3%	8.2%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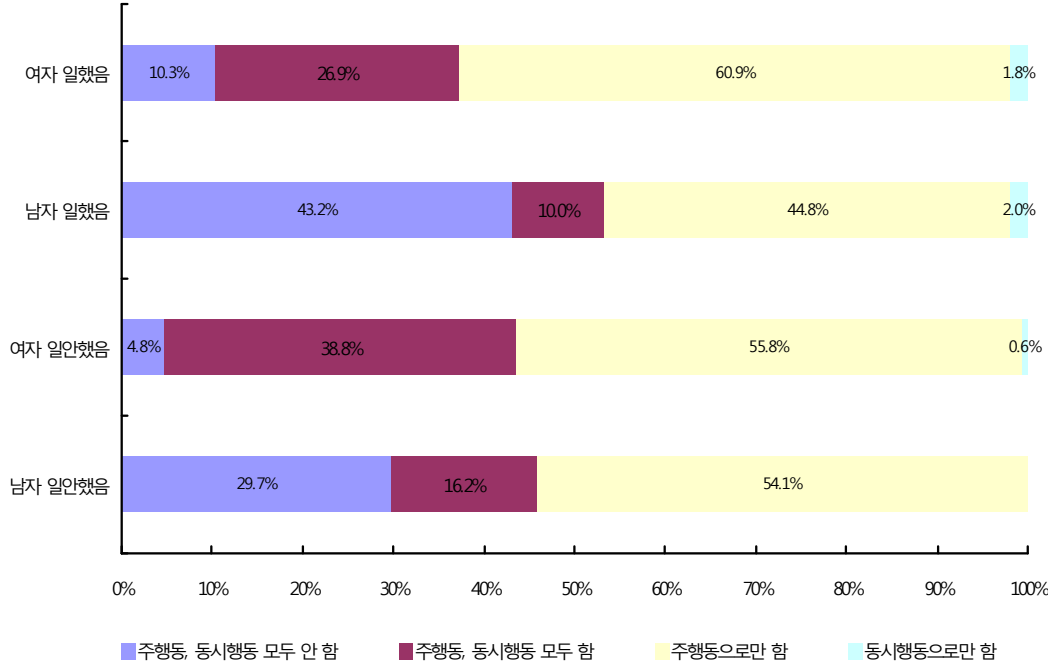
경제활동상태를 볼 수 있는 '지난 2주간 유급노동참가' 비율은 남녀간 큰 차이를 보인다. 남성들의 96.5%가 취업활동에 참가한 반면, 여성들의 상응비율은 39.3%에 그치고 있다. 미취학자녀를 둔 젊은 기혼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낮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가구구성에서 6세 이하 가구원이 2인 이상인 비율이 33.5%이다. 다시 말해 6세이하 가구원이 1인이상인 사례에서 해당가구원이 2인 이상인 사례는 1/3 수준이다.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7-12세 가구원이 있는 비율도 33.5%에 이른다. 55세 이상 가구원의 존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그 비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3세대 가구의 비율 또한 매우 낮다.

미취학아동돌보기를 주행동으로 하였는지, 혹은 다른 행동을 하면서 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 3-1>, <그림 3-2>와 같다. 성 및 요일에 따라 미취학아동돌보기의 주행동과 동시행동의 결합 분포를 <그림 3-1>을 통해 보면, 성이나 요일에 관계없이 동시행동으로만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는 비율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지 않든지, 주행동으로만 하든지, 주행동과 동시행동으로 함께 하든지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림 3-1> 미취학아동돌보기행위의 주행동, 동시행동 구성비율: 성과 요일



<그림 3-2> 미취학아동돌보기행위의 주행동, 동시행동 구성비율: 성과 경제활동상태



주행동이든 동시행동이든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지 않는 비율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훨씬 높다. 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보다는 평일에 해당 비율이 높다. 한편, 취업자들이 비취업자들보다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미취학아동돌보기를 주행동으로도 하고, 동시행동으로도 하는 비율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당연히 높다. 특히 주행동, 동시행동 모두를 통해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는 남녀간의 비율차이는 주말보다는 평일에 크게 나타난다. 한편, 취업여성보다는 비취업여성들에게서 해당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주행동으로 미취학아동돌보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자비율과 행위자시간량

동시행동여부에 관계없이 주행동으로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는 사례에 집중해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부분의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가 동시행동만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매우 적다. 또한 주행동과 동시행동 모두로 미취학아동돌보기가 이루어진 사례들도 주행동(동시행동에 관계없이)으로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한 사례에 포함된다. 따라서 행위자비율의 측면에서는 미취학아동돌보기를 주행동으로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시간량의 측면에서 동시행동이 고려되지 않고 주행동의 시간량만 접근되기 때 때문에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행동으로서의 미취학아동돌보기에 집중하기로 한다.

다음의 <표 3-3>은 주행동으로서의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을 남녀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간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여자들은 90%이상이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고 있으며, 그 시간은 평균 167.7분이다. 이에 비해 남자들은 55.4%만이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고 있으며, 그 평균시간 또한 75.6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미취학아동돌보기는 대부분이 여자들이 하고 있으며, 그에 사용되는 시간량 또한 여자들에게서 2배 이상으로 많다.

<표 3-3> 남녀별 미취학아동돌보기(주행동) 행위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

	전 체				남 자				여 자			
	사례수	주행동 비율	행위자 사례수	행위자 평균시간 (분)	사례수	주행동 비율	행위자 사례수	행위자 평균시간 (분)	사례수	주행동 비율	행위자 사례수	행위자 평균시간 (분)
전체	2151	74.2%	1596	134.3								
남자	1044	55.4%	578	75.6								
여자	1107	92.0%	1018	167.6								
평일	1224	69.9%	856	136.2	599	46.7%	280	61.1	625	92.2%	576	172.7
토요일	510	80.0%	408	135.4	241	64.3%	155	88.4	269	94.1%	253	164.2
일요일	417	79.6%	332	128.1	204	70.1%	143	90.3	213	88.7%	189	156.7
20대 후반	275	88.0%	242	181.7	81	67.9%	55	78.9	194	96.4%	187	211.9
30대 초반	716	81.3%	582	143.9	294	60.2%	177	76.4	422	96.0%	405	173.3
30대 후반	874	70.6%	617	116.2	475	55.2%	262	74.0	399	89.0%	355	147.3
40대 초반	286	54.2%	155	96.6	194	43.3%	84	76.8	92	77.2%	71	120.1
대도시	973	74.1%	721	134.1	478	54.8%	262	78.1	495	92.7%	459	166.1
중소도시	1010	73.9%	746	137.9	482	54.8%	264	75.7	528	91.3%	482	172.0
농어촌	168	76.8%	129	114.5	84	61.9%	52	63.1	84	91.7%	77	149.2
자가	1193	73.8%	881	131.7	583	54.5%	318	76.5	610	92.3%	563	162.9
전세	628	73.6%	462	143.0	301	53.8%	162	80.9	327	91.7%	300	176.5
월세 및 기타	330	76.7%	253	127.5	160	61.3%	98	63.9	170	91.2%	155	167.7
고졸이하	995	72.5%	721	132.3	447	50.6%	226	71.1	548	90.3%	495	160.2
초대졸이상	1156	75.7%	875	136.0	597	59.0%	352	78.6	559	93.6%	523	174.6
비취업	709	93.4%	662	197.3	37	70.3%	26	102.7	672	94.6%	636	201.1
취업	1442	64.8%	934	89.7	1007	54.8%	552	74.3	435	87.8%	382	111.8
농가	50	66.0%	33	132.4	25	48.0%	12	67.5	25	84.0%	21	169.5
비농가	2101	74.4%	1563	134.3	1019	55.5%	566	75.8	1082	92.1%	997	167.6
맞벌이아님	1408	75.8%	1067	152.6	681	56.5%	385	76.4	727	93.8%	682	195.7
맞벌이	743	71.2%	529	97.4	363	53.2%	193	74.1	380	88.4%	336	110.7
6세이하가무원 2명이상	720	80.8%	582	154.9	353	62.6%	221	78.9	367	98.4%	361	201.5
7-12세 가무원있음	721	65.0%	469	90.0	347	43.2%	150	58.3	374	85.3%	319	105.0
13-18세 가무원있음	109	55.0%	60	81.2	47	27.7%	13	60.0	62	75.8%	47	87.0
55-59세 가무원있음	37	81.1%	30	157.3	18	66.7%	12	78.3	19	94.7%	18	210.0
60-64세 가무원있음	61	77.0%	47	147.4	31	61.3%	19	83.2	30	93.3%	28	191.1
65-69세 가무원있음	64	76.6%	49	132.9	30	53.3%	16	64.4	34	97.1%	33	166.1
70-74세 가무원있음	45	80.0%	36	132.2	24	70.8%	17	87.1	21	90.5%	19	172.6
75-79세 가무원있음	23	82.6%	19	117.9	11	72.7%	8	77.5	12	91.7%	11	147.3
80세이상 가무원있음	17	82.4%	14	121.4	7	57.1%	4	127.5	10	100.0%	10	119.0
3세대가구	179	79.9%	143	137.8	86	66.3%	57	75.4	93	92.5%	86	179.2

요일별로 보면, 남자들의 경우 주말에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한 비율이 높다. 여자들은 요일에 관계없이 해당 비율이 높지만 일요일에는 다소 낮게 나타난다. 미취학아동돌보기 시간량 또한 이와 유사하다. 주말에 남자들의 미취학아동돌보기 시간량이 많아지며, 여자들은 주말에 다소 그 시간량이 적어진다. 이 같은 현상은 평일에 직장일로 인해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아버지가 주말을 맞아 자녀를 돌보고 시간을 함께 보낼 가능성을 보여준다.

남녀의 연령에 따라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을 살펴보면 비율과 시간량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행위자비율에서는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는 비율은 낮아진다. 이는 남녀의 연령과 연관되어 있는 미취학아동들의 연령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남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들의 자녀 또한 연령이 낮을 것이고 그만큼 많은 돌봄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시간량을 보게 되면, 남자들의 시간량은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마도 직장 등에서 일정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버지들로서는 미취학아동돌보기에 쓰는 시간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여자들의 평균시간량은 연령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여자의 연령이 높다는 것은 미취학아동의 연령 또한 높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미취학아동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나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상태별 차이는 남자들의 경우에 명확하다. 비취업남자들에 비해 취업남자들이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할 비율은 훨씬 낮다. 한편, 여자들의 경우는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에 행위자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간에 행위자시간량의 차이는 제법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미취학아동돌보기는 대체로 여자들이 하지만, 이들이 미취학아동돌보기를 위해 쓰는 시간은 취업상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다른 연령층의 아동존재유무에 따른 차이도 어느 정도 발견된다. 남녀모두에게서 미취학아동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때 해당 행위자비율이 높고, 그 시간량이 많다. 한 가구내 동거하는 아동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량은 낮아진다. 이는 남녀의 연령(부모의 연령)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제자매들의 연령과 미취학아동의 연령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형제자매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학아동의 연령 또한 높고, 이는 다시 미취학아동에게 요구되는 돌봄의 강도와 시간이 낮아짐을 뜻한다.

흥미롭게도 중고령 가구원의 존재가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치 않다. 대체로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층 가구원의 존재는 부모의 대리자로 돌봄노동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모들의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량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80세 이상의 가구원은 미취학아동과 마찬가지로 돌봄의 대상을 의미하고, 성인가구원들의 돌봄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들과 달리, 다양한 연령대의 중고령자 존재유무가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나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기술적 통계를 다변량통계분석으로 접근해 보면 <표 3-4><표 3-5>와 같다. 다음의 <표 3-4>는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에의 참여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변수들의 효과를 남녀별로 살펴본 로짓회귀분석결과이다. 이 표 또한 기술적 통계에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나 남자와 여자를 통합한 분석에 의하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할 확률이 높다($b=50.678$). 또한 대체로 20대후반보다 높은 연령층에서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할 확률이 낮다. 그 외에도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내 다른 연령층의 아동 존재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 미취학아동돌보기(주행동) 행위참여에 대한 성별 로짓회귀분석

	전 체(n=2151)		남 자(n=1044)		여 자(n=1109)	
	b	s.e.	b	s.e.	b	s.e.
상수항	0.403	0.497	0.226	0.683	2.839 ***	0.851
여자 (vs. 남자)	1.963 ***	0.172				
토요일 (vs. 평일)	0.614 ***	0.145	0.732 ***	0.164	0.269	0.315
일요일 (vs. 평일)	0.612 ***	0.156	1.004 ***	0.181	-0.512 *	0.290
30대 초반 (vs. 20대 후반)	-0.255	0.235	-0.275	0.281	0.027	0.480
30대 후반 (vs. 20대 후반)	-0.493 **	0.234	-0.291	0.279	-0.813 *	0.459
40대 초반 (vs. 20대 후반)	-0.834 ***	0.264	-0.633 **	0.312	-1.422 *	0.516
중소도시 (vs. 대도시)	-0.067	0.120	0.006	0.139	-0.212	0.251
농어촌지역 (vs. 대도시)	0.355	0.239	0.495 *	0.273	-0.138	0.503
전세 (vs. 자가)	-0.189	0.132	-0.156	0.153	-0.301	0.275
월세 및 기타 (vs. 자가)	0.163	0.173	0.304	0.201	-0.207	0.347
초대졸이상 (vs. 고졸이하)	0.354 ***	0.121	0.412 ***	0.140	0.187	0.250
취업 (vs. 비취업)	-0.819 ***	0.222	-0.750 *	0.396	-1.199 ***	0.463
비농가 (vs. 농가)	0.656 *	0.388	0.523	0.465	0.787	0.716
맞벌이가구 (vs. 맞벌리아님)	0.087	0.134	0.017	0.142	0.597	0.464
6세이하 가구원 2명 이상 (vs. 1명)	0.448 ***	0.134	0.246 *	0.150	1.543 ***	0.446
7-12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549 ***	0.132	-0.525 ***	0.157	-0.737 ***	0.268
13-18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814 ***	0.255	-0.956 ***	0.365	-0.451	0.386
55-59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119	0.485	0.268	0.552	-0.207	1.123
60-64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099	0.378	0.192	0.439	0.080	0.851
65-69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318	0.357	0.015	0.410	1.823	1.111
70-74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544	0.439	0.751	0.499	-0.201	0.919
75-80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671	0.628	0.929	0.729	-0.285	1.132
80세이상 가구원 있음 (vs. 없음)	0.204	0.692	-0.477	0.806	19.448	11937.025

* p<0.1 ** p<0.05 *** p<0.01

성별 분석에 따르면, 남녀통합 분석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요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남자들의 경우,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할 확률은 주말에 훨씬 높게 나타난다. 반면, 여자들에게서는 주말에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할 확률은 낮다. 이는 주말에 남자들이 미취학아동돌보기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연령의 효과 또한 남녀별로 구분된다. 남녀통합모형에서 보았던 부정적인 효과는 남자와는 상관없고 여자에게서만 발견된다. 미취학아동돌보기가 대부분 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그 강도와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상태의 효과는 남녀모두에게서 발견되지만 특히 여성에게서 그 효과가 크다. 가구내에 6세이하 자녀가 하나 더 있을 경우 나타나는 효과는 여성에게만 발견된다. 남자들에게 미취학아동의 추가가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참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자들에게서는 어린 자녀가 많을수록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할 가능성은 그 만큼 높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3-5>는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를 한 남자(n=578), 여자(n=1,018)들이 이 행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행위자시간량에서 나타나는 남녀간의 패턴도 행위자

비율에서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하다. 우선, 남녀통합모형에서 미취학아동돌보기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 연령, 학력, 취업상태, 연령대별 아동가구원의 존재유무 등이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시간량이 많고, 비취업자들에 비해 취업자들의 시간량이 적다. 또한 미취학아동 이외 다른 연령층의 아동이 있으면 미취학아동돌보기에 쓰는 시간량이 적어진다.

<표 3-5> 미취학아동돌보기(주행동) 행위시간량에 대한 회귀분석

	전 체(n=1596)		남 자(n=578)		여 자(n=1898)	
	b	s.e.	b	s.e.	b	s.e.
상수	171.774 ***	20.737	96.076 ***	26.950	226.886 ***	26.630
여자 (vs. 남자)	50.678 ***	7.033				
토요일 (vs. 평일)	-0.071	5.696	27.110 ***	6.432	-14.583 *	7.975
일요일 (vs. 평일)	-4.413	6.186	27.765 ***	6.717	-24.823 ***	8.905
30대 초반 (vs. 20대 후반)	-20.167 ***	7.415	-.036	10.020	-23.315 **	9.683
30대 후반 (vs. 20대 후반)	-21.300 ***	7.786	4.330	9.992	-24.936 **	10.389
40대 초반 (vs. 20대 후반)	-18.147 *	10.560	7.379	11.932	-25.751	15.915
중소도시 (vs. 대도시)	0.856	4.980	0.152	5.684	2.680	6.956
농어촌지역 (vs. 대도시)	-9.058	9.504	-9.624	10.489	-8.347	13.529
전세 (vs. 자가)	3.417	5.482	0.787	6.291	5.414	7.615
월세 및 기타 (vs. 자가)	-2.322	6.955	-13.612 *	7.708	4.579	9.897
초대졸이상 (vs. 고졸이하)	9.817 **	4.984	2.965	5.806	11.292	6.895
취업 (vs. 비취업)	-76.597 ***	8.368	-40.928 ***	13.146	-67.886 ***	16.945
비농가 (vs. 농가)	-2.399	17.926	6.614	20.672	2.371	24.946
맞벌이가구 (vs. 맞벌이아님)	-2.176	7.271	4.305	5.754	-14.999	17.439
6세이하 가구원 2명 이상 (vs. 1명)	18.719 ***	5.207	1.446	5.842	28.905 ***	7.365
7-12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52.928 ***	5.846	-22.875 ***	6.839	-68.459 ***	8.067
13-18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34.539 ***	13.020	-2.911	18.481	-37.558 **	16.953
55-59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15.032	18.460	-8.810	20.567	29.279	26.323
60-64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10.898	15.094	9.967	16.412	12.248	21.891
65-69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1.197	14.208	-18.950	16.577	9.135	19.936
70-74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10.088	16.753	6.772	16.792	14.929	25.792
75-80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2.402	22.042	-2.450	23.355	-5.075	32.155
80세이상 가구원 있음 (vs. 없음)	-10.860	25.645	43.019	32.501	-33.727	34.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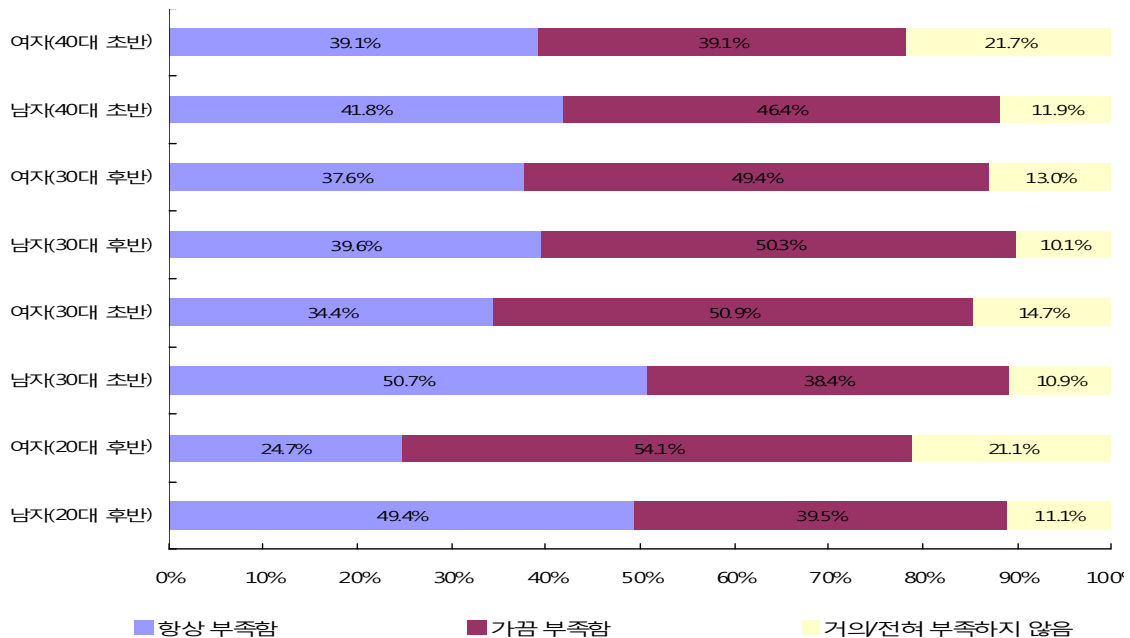
* p<0.1 ** p<0.05 *** p<0.01

남녀별로 접근해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서 앞서 언급한 변수들의 효과가 더욱 분명하다. 남자들의 경우,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미취학아동돌보기 시간량이 훨씬 많은 반면, 여자들에게서는 오히려 주말의 시간량이 적다. 연령효과는 남자에게서 발견되지 않고 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학아동돌보기 시간량이 적어진다. 취업의 효과 또한 여자들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가구내 아동연령의 구성효과는 여성에게서만 발견된다. 즉, 다른 연령층의 아동들이 있으면 여자들이 미취학아동돌보기를 위해 쓰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효과가 남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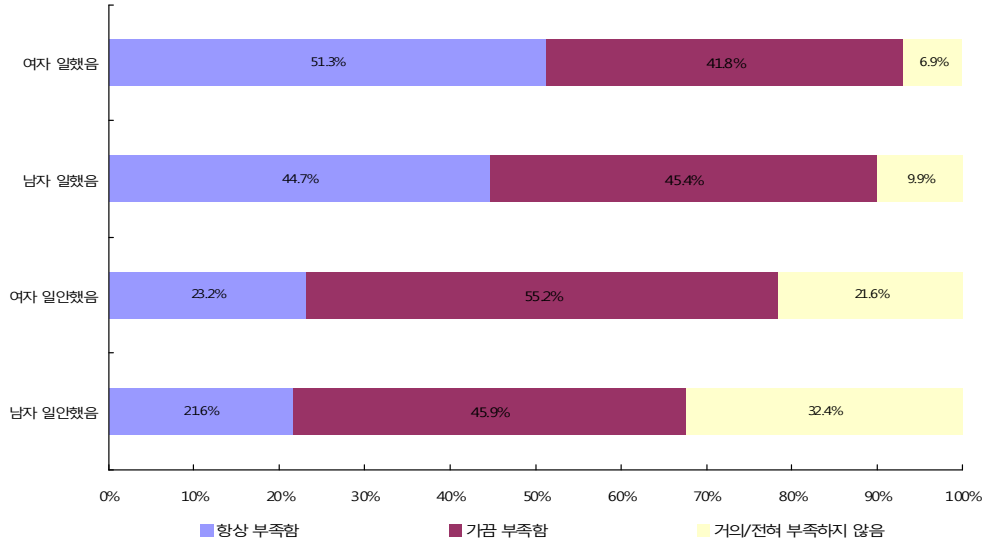
3) 미취학아동들보기와 시간부족인식

미취학아동과 함께 살고있는 성인남녀들이 시간부족을 느끼는지를 연령, 성,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 3-3>, <그림 3-4>와 같다. 대체로 연령대별로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율은 남자와 여자간에 큰 차이가 있다. 남자들의 경우, 젊은 연령층에서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반면 여자들에게서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많다. 따라서 시간부족을 항상 느끼는 비율은 20대후반 남자들에게서 가장 높고, 20대후반 여자들에게서 가장 낮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이는 <그림 3-4>를 통해 확인된다. 남녀에 관계없이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비율은 당연히 취업자들에게서 높다. 그리고 같은 취업자내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3-3> 성 및 연령대별 시간부족인식분포(미취학아동들보기사례)



<그림 3-4> 성 및 경제활동상태별 시간부족인식분포(미취학아동들보기사례)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을 ‘항상 부족하다’, ‘가끔 부족하다’, ‘거의/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세 가지 응답으로 나누고 서열형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3-6>과 같다. 이 표에서 계수들은 부족하지 않다는 비율 대비 가끔 부족하다는 비율, 가끔 부족하다는 비율 대비 항상 부족하다는 비율에 대한 개별 변수들의 효과를 제시한다. 또한 이 모형에서 제시된 회귀계수의 방향성(긍정, 부정효과)은 통상적인 로짓모형계수와 반대라는 점을 밝혀둔다. 남녀통합모형에 의하면, 시간부족인식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높다. 또한 비취업자에 비해 취업자들이 시간부족을 더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가구 내 7-12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은 강해진다.

<표 3-6>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서열형로짓회귀분석(미취학아동돌보기사례)

	전 체(n=2151)		남 자(n=1044)		여 자(n=1107)	
	b	s.e.	b	s.e.	b	s.e.
제1분리점	-1.665	0.351	-1.146	0.608	-2.274	0.487
제2분리점	0.823	0.349	1.297	0.608	0.298	0.482
여자 (vs. 남자)	-0.243 *	0.126				
미취학아동돌보기했음	-0.010	0.109	0.149	0.127	-0.480 **	0.226
토요일 (vs. 평일)	-0.063	0.103	-0.119	0.150	-0.012	0.144
일요일 (vs. 평일)	0.117	0.111	0.110	0.161	0.085	0.157
30대 초반 (vs. 20대 후반)	-0.183	0.141	0.039	0.254	-0.241	0.175
30대 후반 (vs. 20대 후반)	-0.024	0.146	0.445 *	0.251	-0.368 **	0.187
40대 초반 (vs. 20대 후반)	0.036	0.184	0.379	0.281	-0.118	0.277
중소도시 (vs. 대도시)	0.128	0.088	0.127	0.127	0.139	0.124
농어촌지역 (vs. 대도시)	0.268	0.168	0.288	0.243	0.258	0.234
전세 (vs. 자가)	-0.229 **	0.097	-0.144	0.139	-0.310 **	0.136
월세 및 기타 (vs. 자가)	-0.156	0.127	-0.277	0.185	-0.058	0.178
초대줄이상 (vs. 고졸이하)	-0.298 ***	0.088	-0.277 **	0.129	-0.344 ***	0.124
취업 (vs. 비취업)	-1.189 ***	0.148	-1.336 ***	0.343	-1.045 ***	0.283
비농가 (vs. 농가)	0.122	0.286	0.299	0.414	-0.033	0.402
맞벌이가구 (vs. 맞벌이아님)	-0.079	0.115	-0.085	0.129	-0.256	0.290
6세이하 가구원 2명 이상 (vs. 1명)	-0.084	0.096	0.044	0.137	-0.217	0.136
7-12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174 *	0.101	-0.193	0.145	-0.170	0.143
13-18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092	0.200	0.198	0.298	-0.332	0.277
55-59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413	0.335	-0.353	0.493	-0.550	0.469
60-64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334	0.280	-0.023	0.390	-0.732 *	0.408
65-69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313	0.259	0.345	0.374	0.251	0.361
70-74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058	0.311	-0.496	0.437	0.358	0.458
75-80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138	0.408	-0.164	0.628	0.376	0.540
80세이상 가구원 있음 (vs. 없음)	-0.996 *	0.536	-1.904 *	1.102	-0.591	0.674

* p<0.1 ** p<0.05 *** p<0.01

남녀별로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을 접근해보면 남자들에게서 유의미한 변수가 적지만 여자들에게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자들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자들에게도 발견된다. 한편, 여자들에게서는 미취학아동돌보기여부의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견

된다.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한 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여자들에 비해 시간부족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미취학아동돌보기의 효과가 남자에게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여자들에게 미취학아동돌보기는 자신들의 상당 시간이 쓰이는 행위이지만, 남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2. 노부모 돌보기

1) 노부모돌보기 분석사례와 행동구분

노부모돌보기는 시간행동분류표에서 '부모 및 조부모돌보기'를 한 비율과 시간량을 통해 접근한다. 분석사례들을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성인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이들이 행하는 '부모 및 조부모돌보기'는 노부모돌보기에 근접하리라 생각된다. 노부모돌보기에 이용된 분석사례는 65세 이상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 662명, 여자 503명으로 총 1165사례이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5-54세 까지 현재 유배우자로 구성된다. 유배우자로 한정된 이유는 미취학자녀돌보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배우자와 무배우자간에 노부모를 돌보는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연령제한은 이들 연령층의 부모 및 조부모가 노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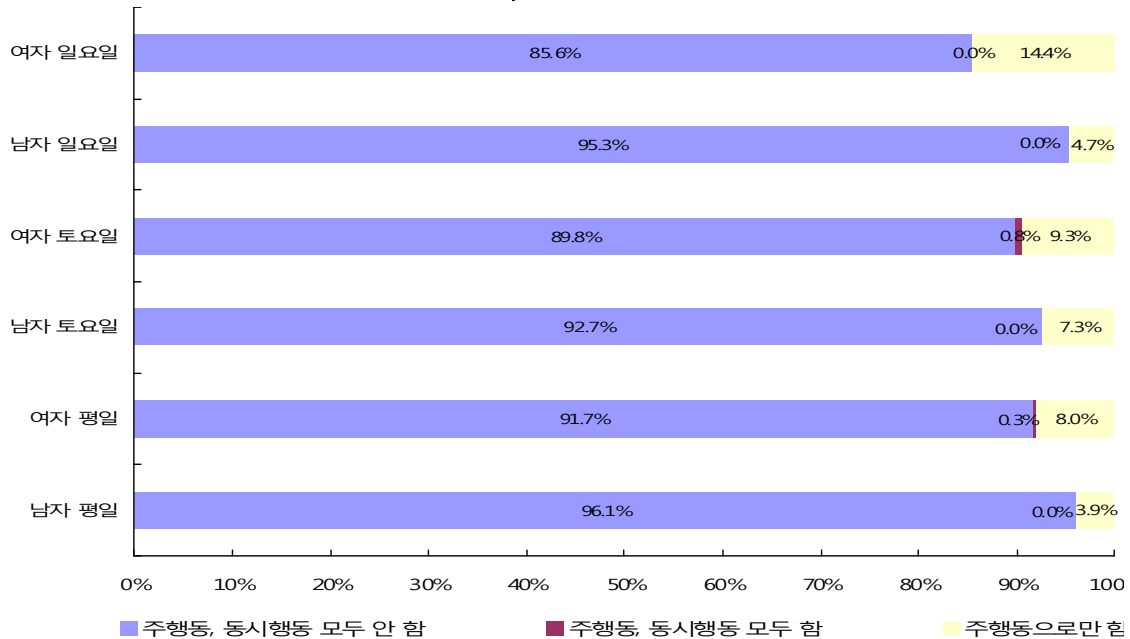
다음의 <표 3-7>은 노부모돌보기 분석에 사용된 표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요일에서 평일은 월, 수, 금요일 3일을 뜻하며, 총합 60%정도 수준에 이른다. 65세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는 사례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연령층이 이들의 자녀세대에 해당하는 30대후반과 40대초반에 좀 더 몰려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비율이 18.5%로, 전체조사대상자나 앞서 살펴본 미취학아동돌보기 분석사례의 해당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65세 이상 가구원의 존재라는 전제조건으로 인해, 노인들이 많은 농어촌지역의 사례가 많이 선택된 탓이다. 분석사례에 있어 가구내 아동이 함께 있는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난다. 65세 이상 가구원과 함께 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사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3-7> 부모 및 조부모돌보기 분석 표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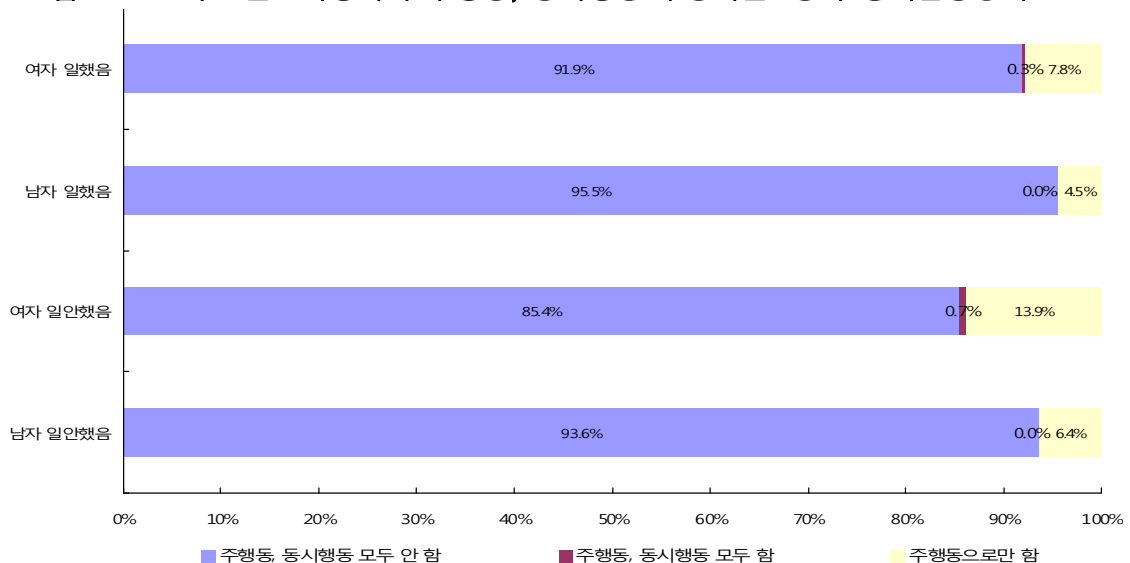
	전체(n=1165)	남자(n=662)	여자(n=503)
여자(%)	43.2%		
평일(%)	57.6%	57.9%	57.3%
토요일(%)	23.0%	22.7%	23.5%
일요일(%)	19.4%	19.5%	19.3%
20대 후반(%)	7.6%	8.9%	5.8%
30대 초반(%)	12.9%	11.5%	14.7%
30대 후반(%)	19.5%	20.7%	17.9%
40대 초반(%)	21.4%	21.9%	20.7%
40대 후반(%)	17.5%	17.8%	17.1%
50대 초반(%)	14.0%	14.5%	13.3%
대도시(%)	45.1%	47.6%	41.7%
중소도시(%)	36.5%	35.0%	38.4%
농어촌지역(%)	18.5%	17.4%	19.9%
자가(%)	79.4%	78.2%	80.9%
전세(%)	11.6%	11.3%	11.9%
월세 등(%)	9.0%	10.4%	7.2%
초대출 이상(%)	35.6%	37.9%	32.6%
지난 2주간 일함(%)	78.3%	83.5%	71.4%
비농가(%)	84.1%	85.3%	82.5%
맞벌이가구(%)	27.2%	23.1%	32.6%
6세이하 가구원 있음(%)	14.2%	12.2%	16.7%
7-12세 가구원있음(%)	21.5%	19.2%	24.5%
13-18세 가구원있음(%)	21.6%	20.1%	23.7%
70-74세 가구원있음(%)	35.6%	37.2%	33.6%
75-79세 가구원있음(%)	20.4%	19.9%	21.1%
80세이상 가구원있음(%)	24.9%	22.4%	28.2%

노부모돌보기를 주행동으로 하였는지, 혹은 다른 행동을 하면서 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 3-5>, <그림 3-6>과 같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사례에서 노부모돌보기를 한 비율은 매우 낮다. 또한 주행동으로도, 동시행동으로도 노부모돌보기를 한 사례는 거의 없다. 노부모돌보기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대체로 주행동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부모돌보기행위비율은 매우 낮은 가운데, 이러한 행위는 대체로 주행동으로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성과 요일에 따른 노부모돌보기의 행위비율을 <그림 3-5>를 통해 살펴보면, 요일에 관계없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서 노부모돌보기 행위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부모돌보기의 비율은 평일보다는 대체로 주말에 높음 또한 알 수 있다. 경제활동상태별 행위를 <그림 3-6>을 통해 살펴보면, 남녀에 관계없이 취업자들에 비해 비취업자들에게서 노부모돌보기 행위를 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림 3-5> 노부모돌보기행위의 주행동, 동시행동 구성비율: 성과 요일



<그림 3-6> 노부모돌보기행위의 주행동, 동시행동 구성비율: 성과 경제활동상태



2) 노부모돌보기 행위자비율과 행위자시간량

다음의 <표 3-8>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노부모돌보기를 하는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남녀별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동원된 사례가 적은데다, 노부모돌보기를 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이는 행위자시간량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사례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노부모돌보기 행위평균시간량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노부모돌보기를 주행동으로 접근해보면, 노부모돌보기 행위자비율은 남자에게서 4.8%, 여자에게서 9.9%로 나타난다.

<표 3-8> 남녀별 노부모돌보기(주행동) 행위비율

	사례수	행위자비율	사례수	행위자비율	사례수	행위자비율
전체	1165	7.0%				
남자	662	4.8%				
여자	503	9.9%				
평일	671	5.8%	383	3.9%	288	8.3%
토요일	268	8.6%	150	7.3%	118	10.2%
일요일	226	8.9%	129	4.7%	97	14.4%
20대 후반	88	4.6%	59	5.1%	29	3.5%
30대 초반	150	6.7%	76	5.3%	74	8.1%
30대 후반	227	6.6%	137	5.8%	90	7.8%
40대 초반	249	8.8%	145	6.2%	104	12.5%
40대 후반	204	5.9%	118	3.4%	86	9.3%
50대 초반	163	8.6%	96	3.1%	67	16.4%
대도시	525	6.9%	315	5.1%	210	9.5%
중소도시	425	7.8%	232	4.7%	193	11.4%
농어촌	215	6.1%	115	4.3%	100	8.0%
자가	925	6.9%	518	4.6%	407	9.8%
전세	135	6.7%	75	4.0%	60	10.0%
월세 및 기타	105	8.6%	69	7.2%	36	11.1%
고졸이하	750	8.3%	411	5.6%	339	11.5%
초대졸이상	415	4.8%	251	3.6%	164	6.7%
비취업	253	11.1%	109	6.4%	144	14.6%
취업	912	5.9%	553	4.5%	359	8.1%
농가	185	7.6%	97	6.2%	88	9.1%
비농가	980	6.9%	565	4.6%	415	10.1%
맞벌이가구아님	848	6.5%	509	4.5%	339	9.4%
맞벌이가구	317	8.5%	153	5.9%	164	11.0%
0-6세가구원 있음	165	9.1%	81	8.6%	84	9.5%
7-12세가구원 있음	250	6.8%	127	3.9%	123	9.8%
13-18세가구원 있음	252	6.8%	133	2.3%	119	11.8%
70-74세가구원 있음	415	5.1%	246	2.8%	169	8.3%
75-79세 가구원 있음	238	8.0%	132	4.5%	106	12.3%
80세 이상 가구원 있음	290	9.0%	148	4.7%	142	13.4%
3세대가구	597	7.0%	302	4.0%	295	10.2%

비록 전반적인 비율은 낮지만, 그 속에서도 남녀간의 차이는 분명하다. 미취학아동돌보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부모돌보기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행위자비율이 높다. 요일별로 보면 남자들은 토요

일에 여자들은 일요일에 노부모돌보기를 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 대부분의 변수들에서 노부모돌보기의 차이를 볼 수 있는 특정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활동상태와 가구내 초고령자의 존재에 따른 차이는 어느 정도 발견된다. 남자들의 경우 취업자에 비해 비취업자들이 노부모돌보기를 하는 비율이 조금 높지만, 여자들의 경우 취업자와 비취업자간 차이가 제법 크게 나타난다. 또한 전반적으로 가구내에 존재하는 노인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부모돌보기 행위자 비율이 높아진다.

다음의 <표 3-9>는 노부모돌보기 행위에의 참여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회귀분석결과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부모돌보기 행위에 대해 효과를 가진 변수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남녀통합모형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노부모돌보기 행위를 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 외에 요일별 효과와 경제활동상태 효과가 발견된다. 요일별로는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해당 확률이 좀 더 높다. 한편, 비취업자에 비해 취업자들에게서 해당행위를 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표 3-9> 노부모돌보기(주행동) 행위참여에 대한 성별 로짓회귀분석

	전 체(n=1165)		남 자(n=662)		여 자(n=503)	
	b	s.e.	b	s.e.	b	s.e.
상수항	-2.436 ***	0.606	-1.967 **	0.910	-2.442 ***	0.808
여자 (vs. 남자)	0.638 **	0.248				
토요일 (vs. 평일)	0.440	0.283	0.716 *	0.426	0.278	0.388
일요일 (vs. 평일)	0.509 *	0.297	0.213	0.507	0.708 *	0.385
30대초반 (vs. 20대후반)	0.193	0.499	-0.126	0.786	0.222	0.667
30대후반 (vs. 20대후반)	0.397	0.465	0.191	0.695	0.195	0.667
40대초반 (vs. 20대후반)	0.719	0.450	0.575	0.694	0.533	0.636
40대후반 (vs. 20대후반)	0.143	0.490	-0.074	0.781	0.207	0.666
50대초반 (vs. 20대후반)	0.363	0.475	-0.520	0.851	0.739	0.630
중소도시 (vs. 대도시)	0.022	0.262	-0.184	0.429	0.241	0.342
농어촌지역 (vs. 대도시)	-0.407	0.381	-0.304	0.606	-0.337	0.502
전세 (vs. 자가)	-0.108	0.390	-0.085	0.650	-0.074	0.501
월세 및 기타 (vs. 자가)	0.380	0.396	0.503	0.550	0.307	0.611
초대졸이상 (vs. 고졸이하)	-0.383	0.288	-0.458	0.430	-0.164	0.410
취업 (vs. 비취업)	-0.810 ***	0.297	-0.426	0.493	-1.027 ***	0.425
비농가 (vs. 농가)	-0.379	0.356	-0.561	0.547	-0.211	0.476
맞벌이가구 (vs. 맞벌리아님)	0.441	0.312	0.639	0.500	0.492	0.441
6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178	0.334	0.567	0.503	-0.040	0.476
7-12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186	0.306	-0.447	0.549	-0.010	0.390
13-18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232	0.315	-0.870	0.663	0.097	0.392
70-74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451	0.306	-0.948 *	0.494	0.024	0.411
75-80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095	0.327	-0.342	0.544	0.465	0.431
80세이상 가구원 있음 (vs. 없음)	0.206	0.326	-0.156	0.558	0.621	0.437

* p<0.1 ** p<0.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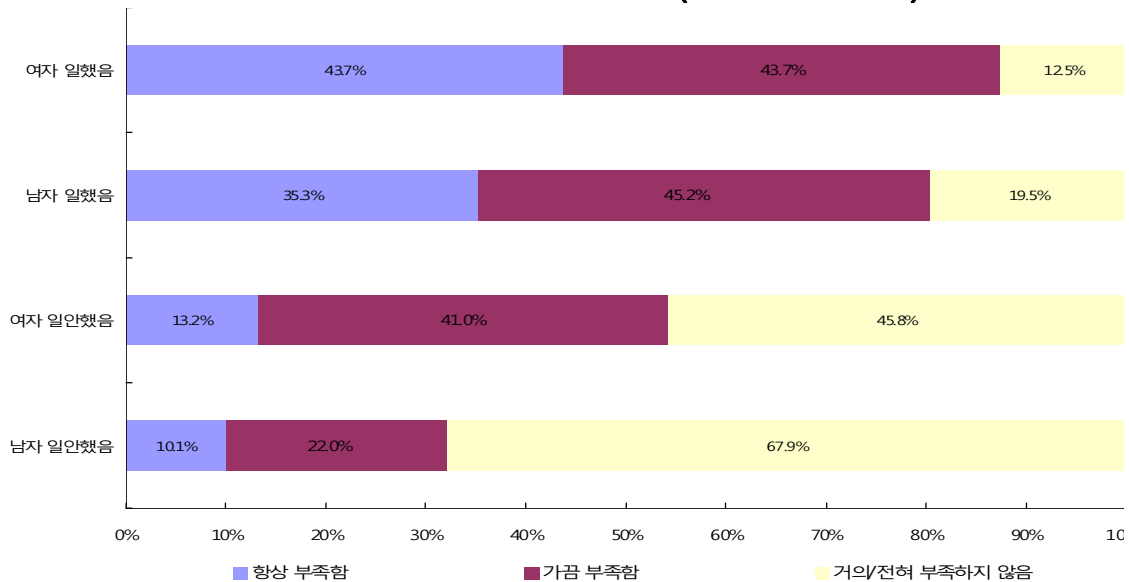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에게서 유의미한 변수로는 토요일과 70대초반 가구원의 존재 정도만 발견되고, 그 통계적 유의성도 약하다. 여자들에게서도 유의미한 변수가 일요일과 경제활동상태에 제한되어

있다. 경제활동상태의 효과가 미취학아동돌보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점은 흥미롭다. 가족돌보기의 주요 주체가 여성인 상황에서 이들의 취업은 곧 가족돌보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를 담당하는 여성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3) 노부모돌보기와 시간부족인식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남녀들이 시간부족을 느끼는지를 성과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 3-7>과 같다. 남녀에 관계없이, 취업자들이 비취업자들에 비해 항상 시간부족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다. 또한 취업상태에 관계없이, 남성들에 비해 여자들이 항상 시간부족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취업여성들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7> 성 및 경제활동상태별 시간부족인식분포(노부모돌보기사례)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가끔 부족하다’, ‘거의/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세 가지 범주로 놓고 실시해 본 서열형로짓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10>과 같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계수들은 부족하지 않다는 비율 대비 가끔 부족하다는 비율, 가끔 부족하다는 비율 대비 항상 부족하다는 비율에 대한 개별 변수들의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일반적인 로짓회귀계수와는 달리, 회귀계수의 방향성(긍정, 부정효과)을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밝혀둔다. 남녀통합모형에 의하면, 시간부족인식은 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농가여부, 맞벌이가구여부, 6세이하 가구원의 존재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그리고 20대 후반보다는 50대 초반이 시간부족을 더 강하게 인식한다. 교육수준에서는 초대졸 이상 학력자가 고등학교이하 학력자에 비해 시간부족을 더 인식하는 한편, 취업자가 비취업에 비해 시간부족을 더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농가에 비해 비농가에서, 홑벌이부부보다는 맞벌이부부에게서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아울러, 가구내에 미취학자녀가 있으면 시간부족을 더 강하게 인식하기도 한다.

<표 3-10>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서열형로짓회귀분석(노부모돌보기사례)

	전 체 (n=1165)		남 자 (n=662)		여 자 (n=503)	
	b	s.e.	b	s.e.	b	s.e.
제1분기점	-3.549	0.318	-3.254	0.429	-3.547	0.468
제2분기점	-1.444	0.303	-1.219	0.413	-1.288	0.440
여자 (vs. 남자)	-0.460 ***	0.120				
부모 및 조부모돌보기 했음	0.342	0.224	0.382	0.353	0.318	0.296
토요일 (vs. 평일)	-0.028	0.140	0.149	0.186	-0.282	0.217
일요일 (vs. 평일)	-0.178	0.150	-0.249	0.199	-0.053	0.236
30대 초반 (vs. 20대 후반)	-0.352	0.224	-0.122	0.319	-0.565 *	0.324
30대 후반 (vs. 20대 후반)	-0.206	0.207	0.031	0.282	-0.405	0.326
40대 초반 (vs. 20대 후반)	-0.195	0.211	0.208	0.287	-0.726 **	0.332
40대 후반 (vs. 20대 후반)	-0.070	0.216	0.379	0.295	-0.588 *	0.333
50대 초반 (vs. 20대 후반)	-0.519 **	0.226	-0.159	0.308	-0.913 ***	0.348
중소도시 (vs. 대도시)	-0.111	0.128	-0.089	0.171	-0.140	0.198
농어촌지역 (vs. 대도시)	-0.035	0.175	-0.118	0.236	0.079	0.265
전세 (vs. 자가)	0.079	0.181	0.053	0.242	0.086	0.277
월세 및 기타 (vs. 자가)	-0.007	0.206	0.089	0.258	-0.348	0.367
초대졸이상 (vs. 고졸이하)	-0.284 **	0.127	-0.339 **	0.161	-0.278	0.216
취업 (vs. 비취업)	-1.810 ***	0.160	-1.964 ***	0.240	-1.879 ***	0.247
비농가 (vs. 농가)	-0.484 ***	0.175	-0.331	0.238	-0.574 **	0.265
맞벌이가구 (vs. 맞벌리아님)	-0.329 ***	0.148	-0.521 ***	0.202	-0.105	0.232
6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522 ***	0.173	-0.450 *	0.241	-0.621 **	0.265
7-12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212	0.144	-0.133	0.201	-0.340	0.217
13-18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003	0.150	-0.048	0.208	0.116	0.232
70-74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047	0.138	-0.098	0.181	0.061	0.219
75-80세이하 가구원 있음 (vs. 없음)	-0.055	0.163	-0.038	0.220	-0.107	0.247
80세이상 가구원 있음 (vs. 없음)	-0.178	0.165	-0.160	0.228	-0.144	0.249

* p<0.1 ** p<0.05 *** p<0.01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을 남녀별로 접근해보면 남녀간 패턴의 차이가 어느 정도 두드러진다. 남녀 모두에게서 경제활동상태와 6세이하 가구원 존재의 효과가 발견된다. 하지만 교육수준과 맞벌이가구의 효과는 남자들에게서만 나타난다. 한편, 여자들에게서는 연령대와 비농가가구의 효과만 발견된다. 여자들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다. 이러한 연령대 효과는 남자들에게서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3. 소 결

이 장에서 얻은 여러 가지 주요한 발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지 않는 비율은 주행동과 동시행동 모두 일반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훨씬 높았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주행동으로 미취학아동돌보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

을 하는 가운데서도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의 결과, 남녀간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취학아동돌보기는 대부분 여자들이 하고 있으며, 그에 사용되는 시간량 또한 여자들에게서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요일별로는 남자들이 주말에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한 비율이 높으며, 여자들은 요일에 관계없이 해당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일요일에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미취학아동돌보기의 시간량 또한 이와 유사하다. 주말의 경우 남자들의 미취학아동돌보기 시간량은 많았으며, 여자들은 다소 적어진다. 이 같은 현상은 평일에 직장일로 인해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아버지가 주말을 맞아 자녀를 돌보고 시간을 함께 보낼 가능성을 보여준다. 행위자비율에서는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비취업 남자들에 비해 취업 남자들이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할 비율은 훨씬 낮다. 한편, 여자들의 경우는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에 행위자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들은 대체로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미취학아동돌보기를 위해 쓰는 시간은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다른 연령층의 아동존재유무에 따른 차이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학아동의 연령 또한 높고, 이는 다시 미취학아동에게 요구되는 돌봄의 강도와 시간이 낮아짐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내 아동연령의 구성효과는 여성에게서만 발견된다. 즉, 다른 연령층의 아동들이 있으면 여자들이 미취학아동돌보기를 위해 쓰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효과가 남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째, 중고령 가구원의 존재가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치 않았다. 대체로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층 가구원의 존재는 부모의 대리자로서 돌봄노동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모들의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비율과 행위평균시간량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연령대별로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율은 남자와 여자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의 경우, 젊은 연령층에서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자들에게서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많았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취업자내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가구내 7-12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은 강하게 나타났다.

일곱째, 성과 요일에 따른 노부모돌보기의 행위비율은 요일에 관계없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남자들의 경우 취업자에 비해 비취업자들이 노부모돌보기를 하는 비율이 조금 높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취업자와 비취업자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내 존재하는 노인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부모돌보기 행위자 비율은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노인돌보기사례에 있어 시간부족의 인식은 농가에 비해 비농가에서, 홀벌이부부보다는 맞벌이부부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가구내에 미취학자녀가 있으면 시간부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돌봄의 대표적인 내용인 어린 자녀 돌보기와 노부모 돌보기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취업여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취업과 가족돌보기는 결국 여성의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어려운 사회적 과제로 연결된다. 직장과 가족돌보기를 함께 해나가야 하는 여성으로서의 당연히 시간부족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가족과 일에 대한 과도한 부담, 그로 인한 시간부족경험 등은 여성의 삶의 질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염려는 온당하다. 개별가족성원의 고단한 삶은

그 가족 전체의 삶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여성 개인 뿐 아니라 여성이 속해있는 가족과 사회 모두가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여성의 이중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립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와 사회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제5장. 한국인의 시간압박과 여가

1. 들어가며

주5일제, 격주 휴무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가까워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휴”를 기다리는 인구규모도 증가하였고, 연휴의 시간을 채우는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역시 지대하다. 특히 토요일을 쉬는 직장이나 사업체가 늘면서, 술자리 문화도 통상적인 금요일, 토요일에서 수요일, 목요일로 옮겨지는 추세라고 한다. 세계에서 유래 없이 등산복 시장이 발달하고, 낚시용품과 자전거 산업이 지난 10년간 급성장한 배경에는 이러한 여가를 즐기고 소비하는 추세가 반영되어 있다.

Schor(1991)에 따르면, 후기산업화사회에서 여가는 중요한 현대인들의 생활양식이며, 이 여가를 즐기고 소비하기 위해 노동을 통한 경제적 자원의 확보는 필연적인 행위가 되고 있다. 즉, 여가가 가능하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노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노동시간이 긴 사회이다. 노동시간은 대체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사람들을 위치 지운다는 점에서 시간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Kraaykamp, van Gils, & Van der Lippe, 2009). 사실 시간표를 채우는 행위는 유급노동에 국한하지 않는다. 여가나, 가사노동도 있고, 수면시간도 긴 시간의 구간을 요하는 행위들이다. 다만, 이들 활동은 시간활용도 면에서 노동시간에 비하면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노동과 여가와 같은 활동들은 하루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상호배타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런데, 여가활동은 제도적으로 묶여있는 노동에 비해 위계적으로 낮은 부가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 혹은 쉬는 시간에 행하고 있는 “여가활동”이라는 것은 어쩌면 노동시간의 장단에 맞추어서 전략적으로 잘 짜여진 혹은 선택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본다면, 누가 어떤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가는 그들의 노동시간,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개인의 시간은 온전하게 개인의 몫이며, 개인의 운용방식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남는“여분의 시간”을 무엇을 하고, 얼마나 소비하는가의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이자,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에 대한 탐색이다. 한국인들에게 일하고,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남는 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그 여분의 시간은 어떠한 활동들로 채워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남는 시간의 구성이 시간상의 압박과 연동한다는 서구 연구들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경우는 노동시간이라는 시간표 상의 구조적인 압박 이외에도 “빨리빨리” 문화, “성공지향적” 문화 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주관적인 시간압박인식도 중요한 시간압박의 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객관적, 주관적인 시간압박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여가활동의 내용과 여가시간의 양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 양상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관련연구고찰

1)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여가, 그리고 여가시간이란 일반적으로 노동의 반대되는 “쉬는 시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근의 추세는 여가활동 및 관련시간이 소비와 연계되면서 여가시간은 생활시간을 구성하는 활동 중에서도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창의적인 시간”으로 인식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여가활동을 탐색한 연구들은 단순하게 쉬는 시간에서부터 취미와 사회참여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여가의 범주에 넣고 있다.

국제기준의 생활시간자료를 수집하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에도 여가활동으로 분류된 활동(행위)의 종류만 해도 개이며, 1999년에 수집된 자료와 비교해 보면, 매체의 발달로 인해 TV나 비디오 DVD 시청에 PMP, DMB 시청이 포함되었고, 전화교제부분에서도 문자메시지 항목이 포함되었다. 자원봉사 항목에서도 자원봉사관련항목이 1999년 생활시간자료에서는 2개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의무적, 자발적 활동 그리고 자원봉사로 구분되어 있고, 자원봉사역시, 국가행사, 자녀교육, 장애인 및 노약자 돕기, 재해지역 봉사 등으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여가의 종류, 분류기준 등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유·무급노동이나 개인유지, 혹은 학습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활동임을 뜻한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여가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시간표상 비어있는 시간구간이 존재해야 하며, 두 번째로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내용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Southerton, 2003).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사회에서 누구나가 이러한 비어있는 시간 구간(empty time slot)을 가질 수 있고, 그 시간구역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성하는 하루에서 잠자는 시간, 식사시간, 씻는 시간과 같은 개인유지 시간과, 노동시간(유급과 무급)이 하루 24시간에 가장 큰 시간을 차지하게 된다. 개인유지시간은 인간의 생명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 간의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가령 수면시간의 경우 하루 24시간의 생활시간에서 수면활동은 행위자비율이 100%인 유일한 활동이다. 또한 수면시간이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 시간량에서의 차이가 관찰되기는 하나 (은기수 · 차승은, 2010), 시간표상의 다른 활동들과 비교해 보면, 평균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생명유지를 위한 시간을 제외하고 비교적 개인차가 드러나는 시간이 노동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노동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24시간이라는 제한된 하루 시간표는 구조적인 차이를 지니게 된다 (Kraaykam, Gils & Lippe, 2009). 그리고 대개의 경우 긴 단위구간을 이루는 유급노동시간이 길다면, 그만큼 시간표상에서 비어있는 시간 구간을 찾기 어렵게 된다. 때문에 여가시간양은 노동시간에 조건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상호관련성

노동시간의 구성과 여가활동이 선택되는 원리에 관해 두 가지 상이한 관점이 있다. 먼저 한시적 조직화 가설(temporal organization theory)은 노동시간이 차지하고 남은 가용시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노동시간의 길이, 상대적인 여가의 길이에 따른 여가활동 내용의 차이를 가정한다. 조직화 가설의 입장의 연구들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이 구성되는 원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활동들을 (duration), 어떠한 간격과(tempo)순서(sequence)에 의해 조율(synchronization)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율은 얼마만큼의 주기(periodicity)와 같은 구조적 특성들이 시간활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한다. Fine(1996)에 따르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구성하는 일상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활동이 대체되는 원칙도 매우 보수적일 것으로 가정한다. 가령, 노동시간이 길어 여가시간 양이 짧다면, 그러한 짧은 시간에 해 낼 수 있는 여가활동 위주의 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관점인 사회적 동기화 가설(social motivation theory)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개인의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남은 시간의 구역이 발생한다면,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여가가 우선적으로 선택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가설은 활동의 중요도(saliency)가 가설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절대적인 시간량과 함께, 주관적인 시간량이 결과적으로 특정 활동을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을 한다고 본다. 즉, 여가시간 양보다도 지각하는 시간적 압박감이 클수록 스스로에게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가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우선성이 결정되는 원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점은 그것이 개인적인 취향이었는지 혹은 집단(가족)의 dynamic이 개입된 선택이었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가령, 취업여성들은 여가시간이 짧게 쪼개어져 있어도 그 시간에 쉬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하게 되는 점을 그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이 두 관점을 요약하자면, 둘 다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제로섬의 관계임을 전제한다. 또한 시간표상 압박이 있을 때 개인이 비어있는 시간구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우는 방향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데 일치점이 있다. 한시적 조직화나 사회동기화 가설에 따르면, 선택되는 여가의 속성은 구분이 가능하다. 한시적 조직화 가설에서는 시간표가 조직되는 방식에 따라 여가활동의 성격과 내용이 고려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사회동기화 가설은 시간의 주관적인 측면에 더 무게를 두면서, 여가의 속성보다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우선적으로 비어있는 시간구간을 채우게 된다고 본다.

3) 시간압박에 관한 인식과 여가활동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양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시간은 평등한 소비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활동이 긴 시간구역을 차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활동시간은 줄거나 혹은 선택되지 못하게 된다. 즉, 남은 시간은 어떤 형태로든 소비될 뿐이며 저축이나 저장이, 소모된 24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 특징이 있다(Szalai, 1973).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간표에서 시간부족은 주관적이며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유발한다.

이 인지되는 주관적 시간압박은 많은 경우 노동시간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노동시간이 길면 시간압박도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시간압박은 노동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령, 노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평일보다 쉬는 날인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은 시간압박을 더 많이 받는다. 활동량, 활동의 중요성과 선호도에 따라 인지하는 시간흐름과 그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차승은, 2010). 따라서 주관적인 시간압박은 시간표상의 구조적 압박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압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이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인 시간압박과 여가의 관련성을 본다는 것은 노동시간 이외의 특성에 의해 여가가 조직화되는 방식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대다수가 노동시간과 여가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주로 구조적 시간압박에 따른 여가의 선택방식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에 비해 시간압박에 관한 인식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노동시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한 측면의 여가활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한편, 이러한 시간압박의 다차원성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서 여가에 대한 최근의 논의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코넬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언급하고 다룬 시간압박은 주로 시간표상에서 드러나는 구조적인 압박을 의미한다. 하나의 긴 활동이 시간표를 차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여분의 시간

표를 채우는 활동들은 절대량이 감소하거나 혹은 단절적인 성격을 갖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과 특히 여가가 상호 배타적인, 노동시간이 늘면, 여가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관계성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런데, 미국의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 노동과 여가가 반드시 제로섬의 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노동시간이 길더라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가를 즐기고 여가를 위해 시간을 내는 인구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Moen 등은 여가야 말로, 가족관계에서의 역동성, 특히 부부의 상호 시간활용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노동시간과 여가가 아닌 관계적 맥락에서 여가(가족여가)가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 것이 일요일 날 오전에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사례에 관한 연구였다. 이 “Sunday Rush” 연구에 따르면, 일요일에 주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참여는 여유로운 시간에 선택되는 한가로운 활동은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다. 즉, 바쁜 시간을 쪼개어 “끼워 넣는” 중요한 활동이며, 여기에는 부부관계, 가족상호성이 관여하는 사회적인 활동이다. 최근 들어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다른 여가활동과 시간조율에서 경쟁적인 관계이기는 하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이 일요일 행사의 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여가와 요일특성

이러한 구조적, 주관적 시간압박과 여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요일 특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시간이나 시간부족인식은 평일과 휴일에 다르게 조직화되고 인지되는 경향이 있다. 노동시간이 대부분의 일과표를 채우는 평일과는 달리 휴일은 여가시간으로 일과가 채워지는 정반대의 원리가 작용하게 된다.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많은 사업체나 기업, 공공기관들이 주5일제, 격주 휴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이제는 평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의 시간구분도 비교적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분포가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주관적인 시간압박도 마찬가지로 요일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시간압박은 평일보다는 휴일에 더 높은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한다.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발견되었고, 국내연구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평일보다는 일요일에 사람들은 시간압박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시간과 같이 단일한 활동으로 하루가 짜여지는 평일보다도 다양한 활동이 서로 조율되고 분절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질적인 시간압박은 더 높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가하면, 인지하는 시간의 속도가 창조적으로 구성된 시간에 더 빠르다는 견해 역시 이 휴일에 느끼는 시간압박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준다. 때문에 여가활동의 내용과 여가시간에 대한 분석에서 요일 특성은 여가소비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 요일은 분석단위를 이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그리고 시간압박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고려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1) 한국인들의 여가활동은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2) 여가활동별 시간소비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시간압박(유급노동시간, 시간부족인식)에 따라 선택되는 여가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사회적 맥락 변수들을 통제된 이후에도 시간압박과 여가활동시간의 관련성은 변화가 없는가?

3. 분석방법

1) 자료

이 연구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자료(통계청, 2010)의 원자료(n=40,526)는 이틀에 걸쳐 사람들의 시간 일지를 10분 단위로 기록한 것이다. 이 자료 가운데 둘째날 자료를 추출하고, 여기에서 다시 20-69세 도시거주자(중소도시 이상)이면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 9891명의 응답자의 시간일지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유배우자 응답자 가운데,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시간활용방식이 다른 응답자들과 매우 다를 것으로 보고, 해당되는 사례 가운데, 학생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협조로 제공된 가구자료와 기존의 시간일지를 병합하여 새로운 가구용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셋 구축으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하루 시간의 활용에 관한 정보와 함께 가구정보인 가구 내의 미취학자녀의 유무, 가계소득을 변수화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구변수의 중요성은 기혼남녀의 여가가 결과적으로 가족구조, 가족 내 자녀의 연령구성, 그리고 가계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지적에 바탕을 두고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 활용한 사례수는 9891개이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1>에서 제시하였다.

<표 4-1> 표본의 특성별 분포

전체	%	n		%	n
요일			<가구특성>		
평일	59.0	5842	거주지역		
토요일	20.3	2005	대도시	54.7	5415.0
일요일	20.7	2044	중소도시	45.3	4476.0
<개인특성>			가구 내 미취학아동여부	21.6	2140.0
성			가구 내 초등학생아동 여부	26.9	2661.0
남성	48.2	4767	가구 내 중고등학생 아동 여부	26.7	2642.0
여성	51.8	5124	맞벌이여부	40.4	3992.0
연령			가구소득 (mean, St.D)	318.5	174.9
20대	4.8	477	<주당노동시간>		
30대	26.8	2648	비취업	29.9	2953.0
40대	34.0	3360	1-36이내	11.2	1104.0
50대	21.5	2130	36-56시간 이내	38.5	3811.0
60대 이상	12.9	1276	56시간 이상	20.5	2023.0
학력			<주관적 시간>		
중졸이하	21.5	2126	시간부족		
고졸	43.6	4315	항상부족		582.0
전문대 및 대졸	31.8	3144	가끔부족		2035.0
대학원 이상	3.1	306	별로		4375.0
			전혀		2899.0

2) 측정도구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변수와 그 측정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 연구에서 자유시간(freetime)이란 하루 일과 중에서 개인유지와 유·무급노동, 그리고 학습과 교육을 위해 투여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자유시간 중에서도 사교활동은 이 연구에서 여가활동에 포함하지 않았다. 생활시간행동표상에서 돌봄과 구분되는 돕기 활동 (소득 있는 활동 돕기, 가사활동 돕기, 기타일 돕기)도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 여가활동은 위의 총론에서 다른 여가활동을 다시 활동종류별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활동에 대한 구분은 활동의 내용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가령, 신문, 잡지, 독서는 모두 읽는 활동에 포함되지만, 실제 통계청의 활동구분에서는 신문과 잡지는 미디어 이용에, 그리고 독서는 취미생활영역으로 나누어서 측정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기존의 통계청의 행동분류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기준이기는 하나, 여가의 측면에서는 범주가 조금은 모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령, 독서는 행동분류표상 취미활동에 포함되어 있지만, 신문과 잡지를 읽는 행위는 미디어 이용으로 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의 내용을 위주로 여가활동을 구분하기 위해, 예를 들어 독서와 신문 및 잡지보는 모두 같은 문서나 문자화된 정보를 읽는 행위라고 간주하여 “읽기”행동으로 재정의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연구에서는 읽기, 듣기, 시청하기, 문화활동 및 관람, 걷기와 가벼운 산책, 체력단련을 포함한 단체 스포츠 활동 및 경기참여, 등산/레저 활동 및 야외소풍, 음주/흡연 및 각종 놀이,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인터넷 검색, 문서작성, 블로그 활동,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그리고 이러한 여가를 가능하게 하는 이동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한 활동의 종류는 총 11가지로서 아래 <표 4-2>에서 자세한 구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다만, 듣기 행위의 경우 행위자비율이 지극히 적었고, 행위시간도 미비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최종적으로는 듣기행위를 제외한 10가지 여가행동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4-2> 행동 분류표

read	읽기 (독서, 신문, 잡지)
listen	음악감상 및 라디오 청취
watch TV	텔레비전, 비디오, DVD, PMP, DMV 등의 동영상
culture	영화관, 박물관 등 방문, 공연,연극 및 경기 관람,
outdoor	야외활동, 등산, 레저
walking	걷거나 가벼운 산책
sport	체력단련 및 헬스, 단체 스포츠 경기
entertain	유흥, 담배, 놀이, 취미활동
rest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
computer	인터넷 검색, 블로그 관리, 게임
commute	여가활동을 위한 이동시간

이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수는 크게 3개의 범주, 노동시간, 시간압박,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시간압박을 알아보는 요인으로는 노동시간을 활용하였다. 생활시간자료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주당 근무시간을 통하여 개인의 노동시간 압박수준을 추정하였다. 주관적인 시간압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평소에 바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 4점짜리 단일문항을 활용하였다. 그 밖에 통계변수로 활용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크게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변수의 분포는 <표1>에 제시하였다.

4.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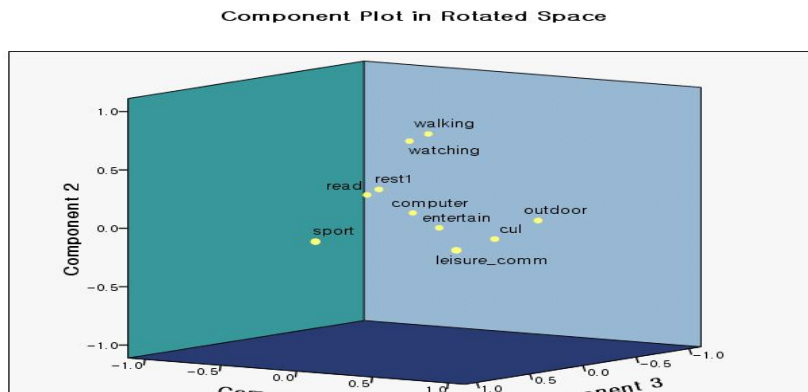
1) 하루 일상에서 나타나는 여가시간의 양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총 28가지 활동으로 소요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16분(중앙값은 180분)으로 나타났다. 하루 24시간이 1440분이라고 볼 때, 약 7분의 1정도의 비중으로 걷고 운동을 하거나 텔레비전시청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대상자들 가운데 현재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대상자들의 주당평균근무시간은 49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루평균 7시간(420분)의 노동시간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노동시간의 분포로 볼 때, 실제로 분석대상자들이 하루평균 여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노동시간의 절반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 7분의 1의 비중시간에 개인의 삶의 즐거운과 보람이 모두 담긴다고 본다면, 이 짧은 시간을 어떠한 활동으로 채워 넣는가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이 보다 다채로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에 따라 여가활동의 조합이나 즐기는 여가의 종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요인분석을 활용한 여가활동의 구분

앞서 연구방법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가활동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여가활동의 분류체계도 현재는 연구자마다 다르다. 여가의 종류를 소극적, 능동적 여가로 구분하는 연구들을 보게 되면, 어떤 연구는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집안 혹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이라고 정의하고, 맨손체조나 운동도 소극적 여가로 구분하는 연구가 있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연구에서 운동은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여행과 같은 능동적인 여가로 구분되고 있다. 동일한 행위가 소극적·수동적 활동이 되기도 하고 적극적인 여가범주에도 사용된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여가활동의 구분이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런가 하면, 혼자활동과 대인관계활동으로 나누는 경우 텔레비전시청과 같은 활동은 혼자활동에 넣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포함시키기도 애매하다는 점에서 분류가 쉽지 않다. (eg. 연구자에 의한 자의적 구분(소극적 활동(TV나 매체이용, 쉬기와 독서), 적극적 활동(운동, 각종 취미활동)).

<그림 4-1> 각 활동시간으로 살펴본 요인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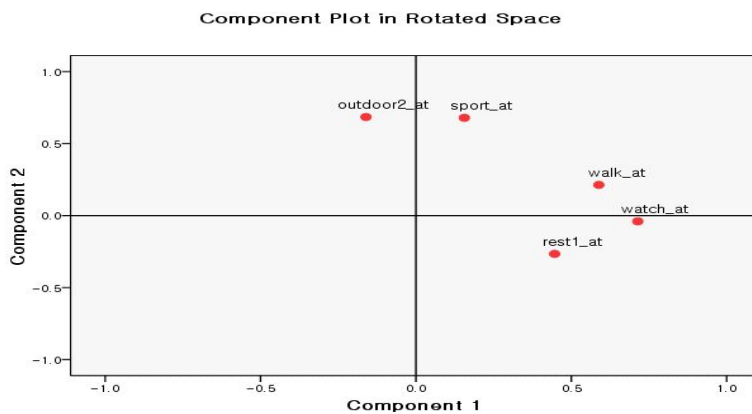


주) 2009 생활시간자료 분석결과로서 요인분석 중에서도 (principle component, varimax) 방법을 활용함.

때문에, 여가활동을 연구자 임의로 구분하기 이전에 과연 각 활동들은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갖는지 통

계적으로 확인을 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 연구에서 재구성한 활동의 내용들 간에 상호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은 각 활동의 분포상의 거리를 통해 활동들 간의 친화력이 높은 활동이 서로 근접하여 하나의 잠재된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이 요인분석 결과 드러나는 활동들 간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 4-1>에 제시하였다.

<그림 4-2> 20-69세 기혼의 도시거주 남녀의 여가활동구분



주) 2009 생활시간자료 분석결과임. 행위자 시간으로 요인분석을 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사례수가 9891명에서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 요인분석에서는 결측치를 평균으로 보정하고 살펴봄

요인분석결과, 5개 하위 요인이 발견되었다. 걷기와 텔레비전 시청이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읽기, 휴식, 컴퓨터 이용의 위치도 서로 근접해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움직임 없이 혼자서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임이 많은 활동인 스포츠는 휴식이나 읽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 진다. 한편, 야외활동, 문화활동 그리고 이동시간 역시 서로 근접해 있어서, 야외활동이나 문화활동 및 관람을 위해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놀이의 경우, 음주/흡연부터 놀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다양하고 복합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위치상으로도 휴식과 야외활동 중간의 위치를 점유하였다.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나, 아이젠계수값을 고려하여, 문화생활, 야외활동과 더 가깝다는 점에서 야외활동, 문화활동 및 관람의 요인에 포함시켰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걷기와 텔레비전시청은 동일요인으로 서로 간의 상관도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우선은 행동특성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이렇게 구성된 5가지의 요인, 즉 문화생활, 놀이, 이동, 및 레저 활동을 포함하는 야외활동(outdoor), 스포츠(sports), 걷기(walking),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물 시청(watching), 독서와 컴퓨터 그리고 휴식을 포함하는 (휴식)의 5 요인에 대해 다시금 요인 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포츠(sport)와 걷기(walk) 활동은 동일한 요인단면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활동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둘은 활동의 성격상 거리가 멀다. 걷기 활동은 시청(watch)활동이나 휴식(rest)과 더 가깝게 위치해 있다. 그런가 하면, 스포츠는 야외활동(outdoor)과의 가까이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간의 관련성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크게 벗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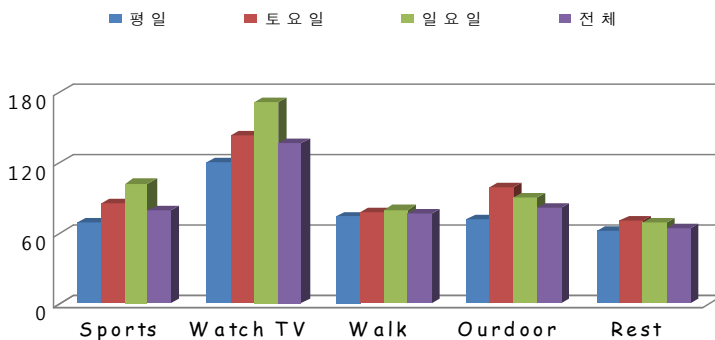
지 않으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인구성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다섯 가지 활동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3) 여가종류별 여가시간의 요일분포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차이

<표 4-3>에는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활동에 대해 각 활동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시간이 요일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살펴본 것이다. 행위자 비율과 시간에서 살펴보면, 여가활동이 휴일에 주로 이루어진다는 상식과는 달리, 각 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 자체는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지는 않았다. 행위자 비율에서 요일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문화활동 및 야외활동영역이며, 그 다음 순이 텔레비전시청, 그리고 걷기 및 산책이다. 반면에 휴식은 행위자 비율에서만 본다면, 평일이 휴일보다 행위자 비율에서는 약간 더 높다. 스포츠, 체력단련과 같은 부분은 행위자 비율이 평일과 양 휴일에 큰 차이가 없다.

행위자 비율에서 요일차이는 예상만큼 크지 않았지만, 각 활동의 행위자 평균시간은 요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령, 스포츠 활동이나 텔레비전 시청시간, 야외활동시간은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더 길었다. 그러나 휴식이나 독서와 같이 수동적인 활동이나 가볍게 걷는 활동은 행위자 시간에서도 평일과 휴일의 구분이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림 4-3> 여가활동 및 요일별 행위자 시간



주) 2009 생활시간자료 분석결과임.

이러한 패턴은 <그림 3>에 제시한 행위자 평균시간의 요일별 차이를 살펴본 막대그래프에서도 확연히 들어난다. 막대그래프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는 사실은, 첫째, 행위자들의 총 여가시간이 대략 1시간가량 된다는 점이다. 즉, 활동의 종류 불문하고, 대체로 1시간여의 시간이 할애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 시청의 경우는 다른 활동들과는 다르게 평일 평균이 2시간이며, 휴일에는 3시간 가까이 육박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위의 표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활동의 종류마다 평일과 휴일의 이분법이 적용되는 활동이 있는가 하면, 시간 할애 상, 요일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활동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텔레비전시청의 경우 평일과 휴일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이다. 문화 및 야외활동이나 놀이는 오히려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에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걷

기 활동이나 휴식시간의 경우, 행위자 시간으로만 본다면 사실 휴일과 평일의 차이가 크지 않다.

<표 4-3> 다섯 가지 여가 활동 나타나는 행위자 비율 및 행위시간 (n=9891)

	Sport		Watch TV		Walk		Outdoor		Rest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평 일	15.78%	69.26	84.70%	121.2	17.97%	74.36	33.02%	71.64	63.49%	61.34
토요일	14.01%	85.73	87.78%	143.9	19.35%	78.53	36.46%	98.84	63.74%	70.02
일요일	14.14%	102.56	91.59%	171.7	21.72%	79.98	44.72%	90.23	61.59%	69.57
전 체	15.08%	78.81	86.75%	136.9	19.03%	76.55	36.13%	81.96	63.15%	64.78

이러한 각 활동들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는 어떻게 차별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활동시간을 종속으로 하고,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독립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4>에 제시하였다. 운동과 휴식, 야외활동, 걷기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의 각 시간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실제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특별히 선호하는(주로 선택하는) 여가활동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즉, 어떤 활동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활동은 경제적 자원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 4-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5개 여가활동의 관련성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Sports		Rest		Outdoor		Walk		Watch TV	
	B	S.E.	B	S.E.	B	S.E.	B	S.E.	B	S.E.
여성	-2.59	(0.80) ***	-15.76	(1.13) ***	-15.35	(1.38) ***	-0.95	(0.72)	-6.40	(2.02) **
연령	0.35	(0.05) ***	-0.02	(0.07)	0.12	(0.09)	0.63	(0.05) ***	1.28	(0.13) ***
교육수준	2.99	(0.60) ***	11.08	(0.84) ***	2.74	(1.02) **	0.15	(0.53)	-7.78	(1.50) ***
가구소득	0.39	(0.12) ***	-0.14	(0.17)	0.60	(0.21) ***	-0.04	(0.11)	-1.81	(0.31) ***
자녀연령구성										
6세 미만자녀 있음	-5.13	(1.23) ***	-9.30	(1.73) ***	-9.00	(2.11) ***	-1.14	(1.10)	-13.70	(3.10) ***
초등학생자녀 있음	-2.35	(0.93) **	-0.32	(1.30)	1.18	(1.59)	-1.98	(0.83) *	-1.84	(2.34)
중고등학생 자녀 있음	2.44	(0.95) **	0.01	(1.34)	-3.05	(1.64) *	-1.89	(0.85) *	-1.38	(2.41)
맞벌이	-4.94	(0.90) **	-10.84	(1.26) ***	-9.41	(1.54) ***	-6.68	(0.80) ***	-28.86	(2.26) ***
(Constant)	-9.42	(3.91) *	45.35	(5.49)	28.77	(6.71) ***	-12.26	(3.50) ***	70.63	(9.85) ***
Rsquare		0.03		0.05		0.03		0.06		0.12
F		28.85 ***		63.86 ***		38.36 ***		71.34 ***		158.77 ***

* p<0.5 ** p<0.1 *** p<0.001

주) 각 ^ 표시항목에서 준거집단은 성의 경우 남성, 자녀연령구성에서는 18세이하 자녀 없음집단, 맞벌이 여부에서는 홀벌이(와 맞벌이)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각 여가행동의 관련성은 차별적이었다. 가장 눈에 쉽게 발견되는 차이점을 언급하자면, 스포츠 활동의 경우 살펴보는 거의 모든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운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띄었다. 반면에 동일한 운동의 영역이나 가볍게 걷거나 산책하는 행동이나 독서를 하고 컴퓨터 혹은 그냥 가만히 있는 행위가 포함된 휴식의 경우 보다 적은 수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관찰된다.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평균시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제

약이 많은 활동임을 시사한다. 즉, 사회구조적으로 접근성이 제한된 활동임을 말해준다. 역으로 이러한 사회구조적 특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쉬운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이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은 많을수록,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이 모두 높고,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그리고 맞벌이가 아닌 홀벌이인 경우와 같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때 스포츠 시간에 쏟아 붓는 시간이 길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걷기 활동은 맞벌이가 아니고, 연령이 높으며, 학동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제외하면, 비교적 활동시간에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의 차이점 이외에도 다양한 상이성이 발견되었다. 우선, 휴식과 문화 및 야외활동은 텔레비전 시청과는 사회계층적 특성과의 관련성에서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 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 가령, 가계소득으로 볼때, 텔레비전시청시간은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방향이나, 휴식이나 문화 및 야외활동은 오히려 가계소득과 선형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개인 수준으로 환원해서 보게 되면, 가계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텔레비전시청시간은 적지만, 오히려 휴식이나 문화 및 야외활동을 하는 시간은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구성에서 유사한 활동으로 분류되었던 걷기와 텔레비전 시청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관련성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질적인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텔레비전 시청에서 교육이나 소득과 같은 계층적 특성이 유의미했던 데 비해, 걷기활동에서 계층적 변인들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자녀구성에서 6세미만의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는 18세 미만 자녀가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걷기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오히려 적었다. 즉,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보다는 밖에서 가볍게 걷거나 산책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각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드러난 특징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거의 모든 여가시간에서 시간량이 감소하는 방향이다. 둘째, 성, 연령, 자녀연령의 경우는 방향성 자체는 일관적이나, 모든 활동에서 그 관련성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남녀차이는 걷기를 제외한 네 가지 여가활동 모두에서 유의미 하였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부 역시 걷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여부는 스포츠와 걷기활동의 감소와는 관련이 있었지만, 다른 여타 활동의 경우 여가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 노동시간과 여가활동의 관련성

여가활동시간이 사회적 문법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초점, 즉, 노동시간이라는 시간표내의 구조적 압박에 따라 여가활동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사회적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을 활용하였다. 생활시간자료는 일년 중 어느 이틀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날짜에 특별히 노동시간이 길었을 (혹은 짧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휴가나 반차를 한 날이었을 개연성 또한 높다. 따라서 해당날짜의 노동시간을 살펴보기 보다는 그 개인 평소에 느끼는 시간표상의 압박감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을 활용하였다. 주당노동시간은 다시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4-5> 참조).

아래의 <표 4-5>에 제시된 결과는 노동시간별 다섯 가지 여가활동의 행위자비율에 관한 로짓분석에 관한 것이다. 노동시간에 인한 시간표상의 압박이 있으면, 모든 여가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이 다섯 가지 여가행동 중에서도 행위자비용의 감소가 특히 급격하게 나타난 활동은 텔레비전시청, 걷기 및 산책, 그리고 스포츠 활동이었다. 이는 관련 활동의 행위비율이 노동시간에 특히 더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반면에, 휴식이나 야외활동은 마찬가지로 행위비율이 줄어드는 방향이지만, 상대적인 비율감소가 다른 활동에 비해 급격하지는 않았다.

<표 4-5> 노동시간과 다섯 가지 여가활동 여부에 관한 Logit 분석 결과 요약 (n=9891)

	Sports		Rest		Outdoor		Walk		Watch TV	
	Odd.R	Sig.	Odd.R	Sig.	Odd.R	Sig.	Odd.R	Sig.	Odd.R	Sig.
주당근무시간										
0-36시간 미만	0.66 ***		0.76 **		0.71 ***		0.51 ***		0.44 ***	
36-56시간 미만	0.50 ***		0.65 ***		0.53 ***		0.39 ***		0.32 ***	
56시간 이상	0.40 ***		0.59 ***		0.47 ***		0.24 ***		0.19 ***	
Log Likelihood	-3996.89 ***		-6303.54		-6179.55 ***		-4439.49 ***		-3661.3 ***	

* p<0.5 ** p<0.1 *** p<0.001

주) 모델에서는 요일, 성, 교육수준, 가계소득, 자녀연령구성, 맞벌이여부가 통제되었음.

<표 4-6> 노동시간과 다섯 가지 여가 행위시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요약

	Sports		Rest		Outdoor		Walk		Watch TV	
	B	Sig.	B	Sig.	B	Sig.	B	Sig.	B	Sig.
주당근무시간										
0-36시간 미만	-0.12		-9.88 ***		-0.01		-14.73 ***		-21.22 ***	
36-56시간 미만	-8.59		-12.95 ***		0.85		-14.45 ***		-40.36 ***	
56시간 이상	-7.48		-18.05 ***		-2.66		-17.73 ***		-52.17 ***	
n	1492		6246		3754		1882		8580	
F	197.87 ***		751.97 ***		263.11 ***		559.77 ***		1655.01 ***	

* p<0.5 ** p<0.1 *** p<0.001

주) 모델에서는 요일, 성, 교육수준, 가계소득, 자녀연령구성, 맞벌이여부가 통제되었음.

<표 4-6> 는 해당 여가활동별로 해당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소비한 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인한 압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분석결과, 운동과 야외활동의 경우 주당노동시간에 따른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여가활동을 한 경우는 노동시간의 장단에 불문하고 적어도 유사한 시간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평균 1시간-1시간30분)을 소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이나 야외활동은 행위로의 이행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포츠든, 야외활동은 행동 자체가 일정한 시간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텔레비전 시청이나 걷기 그리고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에 따라 행위이행여부와 함께, 실제 행위자 내에서도 시간량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예측한 바와 같이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행위자평균시간이 감소하는 방향이었다. 노동시간이 길어 시간표상에 압박이 많아지면, 텔레비전을 보고, 걷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단시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오랜시간 이러한 활동을 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5) 주관적인 시간부족과 여가활동의 관련성

위에서 주당노동시간이라는 시간표상의 압박에 따라 여가가 어떻게 유동적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지각하는 시간적인 압박감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여가활동이 이루어지

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표 4-7>의 시간압박수준별 행위자비용 차이를 보게 되면, 앞서 노동시간과 동일한 패턴으로 주관적인 압박감이 높아질수록 행위비용도 감소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행위비용 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난 것 활동 역시, 앞서 살펴본 노동시간과 동일하게 텔레비전, 걷기 그리고 운동이었다. 반면에, 야외활동이나 쉬는 행위는 그 감소폭이 다른 행동에 비해 적어, 희생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표 4-7> 주관적 시간압박 수준과 다섯 가지 여가활동 여부에 관한 Logit 분석결과 요약 (n=9891)

	Sports		Rest		Outdoor		Walk		Watch TV	
	Odd.R	Sig.	Odd.R	Sig.	Odd.R	Sig.	Odd.R	Sig.	Odd.R	Sig.
시간압박(준거: 전혀없음)										
없는 편임	0.68 ***		0.81 *		0.96		0.66 ***		0.61 *	
종종 바쁨	0.64 ***		0.76 ***		0.85		0.55 ***		0.44 ***	
항상 바쁨	0.42 ***		0.59 ***		0.77 **		0.41 ***		0.26 ***	
Log Likelihood	-4009.38 ***		-6307.62 ***		-6225 ***		-4515 ***		-3705.21 ***	

* p<0.5 ** p<0.1 *** p<0.001

주) 모델에서는 요일, 성, 교육수준, 가계소득, 자녀연령구성, 맞벌이여부가 통제되었음.

<표 4-8> 주관적 시간압박 수준과 다섯 가지 여가행위시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요약

	Sports		Rest		Outdoor		Walk		Watch TV	
	B	Sig.	B	Sig.	B	Sig.	B	Sig.	B	Sig.
시간압박(준거: 전혀없음)										
없는 편임	7.30		5.91		6.39 ***		0.40		0.96	
종종 바쁨	-9.10		-0.15		6.11 **		-4.88		-23.28 ***	
항상 바쁨	-5.86		-10.54 ***		6.50 *		-7.73 *		-36.67 ***	
n	1492		6246		3574		1882		8580	
F	181.82 ***		753.26 ***		265.56 ***		549.09 ***		1633.44 ***	

* p<0.5 ** p<0.1 *** p<0.001

주) 모델에서는 요일, 성, 교육수준, 가계소득, 자녀연령구성, 맞벌이여부가 통제되었음.

<표 4-8>은 행위자들 내에서의 각 여가활동의 시간량이 시간압박수준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투여한 각 여가활동시간량에서도 텔레비전과 휴식시간의 감소가 유의미하였다. 그런가하면, 운동과 걷기 행위는 이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행위시간의 차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문화 및 야외활동은 시간압박을 많이 느끼는 집단에서 문화 및 야외활동행위자 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 이는 시간압박이 있더라도 이러한 야외활동시간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으로 시간압박이 이러한 야외활동으로 인해 나타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6) 시간압박과 여가활동의 개념적 유형화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시간압박의 수준과 여가에 소비하는 총시간을 가지고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개인수준에서 시간압박의 상황에서 여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기 위함이다. 도식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간압박 수준을 압박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 그리고 총여가시간이 긴 집단과 짧은 집단의 2x2 교차결과는 아래와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다. 노동시간과 여가의 상호배타성-시간압박이 크면, 여가활동이 감소하는 방향-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의 셀에서 나타나는 방향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입장, 다시 말해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24시간 내에서 둘 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집

단이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oen, 2003). 이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반드시 교환관계가 아니며,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시간압박이 높은 가운데, 여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지금까지 노동 및 시간압박과 여가에 관한 논의와는 상이한 관점이기는 하나, 여가생활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러한 유형의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것과 대칭이 되는 위치에 있는 여가로부터 소외된 집단, 즉 시간압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가시간도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는 집단의 존재에도 관심을 갖아야 하는 시점임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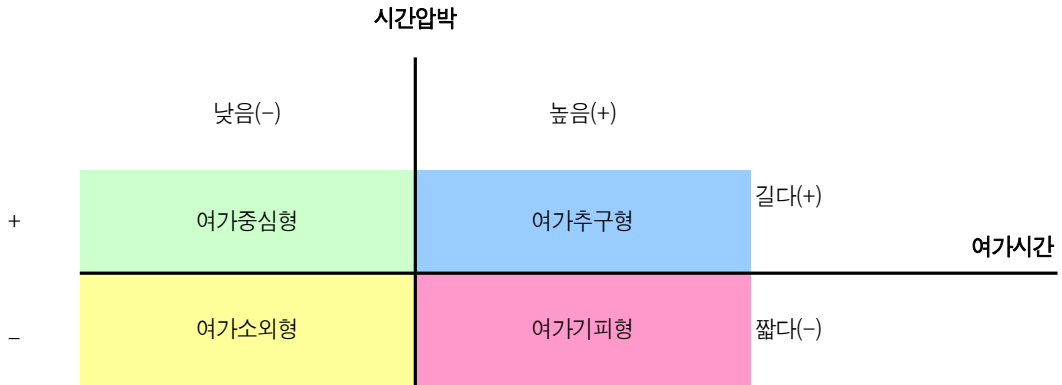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여가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압박수준과 앞서 살펴본 활동시간을 합한 총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각각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시간압박수준은 4점 척도였기 때문에 시간압박을 느끼는 집단과 느끼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 변수를 구성하였다. 총여가시간은 그 분포로 보았을 때 여가시간을 0으로 응답한 응답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평균값보다는 최빈값(mode)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시간압박과 총여가시간 집단의 조합을 통해 유형을 구성하였다.

이 네 개의 유형은 각각의 여가활동방식을 기준으로 이름을 명명하였다. 시간압박이 높으면서도 여가활동에 일정시간을 투자하는 유형은 “여가추구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다. 시간압박이 없이 일상이 여가활동으로 구성된 집단을 “여가중심형”으로 보았다. 시간압박 수준은 낮지만, 그렇다고 여가시간도 길지 못한 집단은 여가활동으로부터 소외된 “여가소외형”으로 간주하였다. 시간압박도 높고, 여가시간도 낼 수 없는 집단은 일상이 여가이외의 활동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여가기피형”으로 이름 지었다.

<표 4-9> 시간압박-여가시간 유형분포와 유형별 특성

	여가기피형		여가소외형		여가중심형		여가추구형	
전체	635	6.4%	3510	35.5%	1982	20.0%	3764	38.1%
요일								
평일	413	7.1%	2423	41.5%	1111	19.0%	1895	32.4%
토요일	125	6.2%	620	30.9%	436	21.7%	824	41.2%
일요일	97	4.7%	467	22.8%	435	21.3%	1045	51.2%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253	5.3%	1573	33.0%	930	19.5%	2010	42.2%
여성	382	7.5%	1936	37.8%	1052	20.5%	1754	34.2%
교육수준								
중졸이하	203	9.5%	537	25.3%	735	34.6%	651	30.6%
고졸	283	6.6%	1638	38.6%	801	18.6%	1593	36.9%
대졸	142	4.5%	1211	38.5%	414	13.2%	1377	43.8%
대학원이상	7	2.3%	124	40.5%	32	10.5%	143	46.7%
평균연령 (세)	48.0	0.39	42.5	0.16	52.1	0.22	44.9	0.16
평균가계소득 (만원)	276.8	164.7	341.2	170.9	256.5	170.7	337.1	173.7

<그림 4-4> 시간압박에 따른 여가시간 유형의 개념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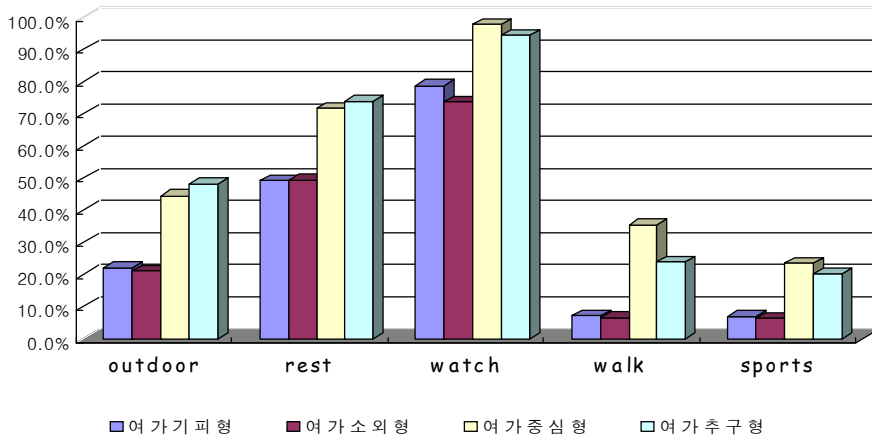


이와 같은 시간압박과 여가의 유형에서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점은 개인수준에서는 어느 한 유형에 고정되기 보다는 요일에 따라 유형을 서로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주말에는 여가추구나 여가중심형의 시간활용이 나타나다가도, 평일에 일이 많아지면, 여가활동으로부터 소외되거나 혹은 다른 일이 바빠서 여가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일별 유형분포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유형분포를 보게 되면, 여가추구형과 여가소외형이 압도하는 가운데, 여가중심형 그리고 여가기피형의 비율 순서로 나타났다. 그런데, 요일별 분포로 보게 되면, 예측한 바와 같이 평일에는 여가소외형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높았고, 그 다음이 여가추구형이었다. 대체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여가소외형 비중이 점차로 감소하는 패턴인 반면, 여가추구형은 토요일, 일요일에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한 개인이 요일에 따라 여가를 즐기는 패턴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일에도 여가소외형 못지않게 여가추구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가중심형의 경우는 평일과 휴일에서 거의 패턴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개인이 요일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가추구나 여가중심형에서 발견되는 패턴은 평소에도 여가와 관련해서는 특징적인 여가생활유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여가생활의 유형별로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 유형별로 선택하는 여가행동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를 <표 49>의 아래에 제시하였다. 남녀의 비율면에서는 남성에서 여가추구형이 그리고 여성에서 여가소외형의 비중이 약간 높았지만, 그 비율상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여가소외형과 여가추구형이 가계소득이 높고, 교육수준도 높아 다른 두 집단-여가중심형, 여가기피형-에 비해 계층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연령의 차이에서도 여가소외형과 여가추구형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평균연령이 어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5>은 위의 다섯 가지 여가활동이 각 유형마다 어떠한 비중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한 유형에서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한 비율은 각 유형에서 해당 활동의 행위자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4-5> 다섯 가지 여가활동에서 유형별 비중



자료: 통계청 2009생활시간자료 재구성

여가추구형과 여가중심형은 거의 모든 활동에서 여가기피형이나 여가소외형에 비해 우세하였다. 여가를 즐기는 집단(여가추구형과 여가중심형)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볼 때 비중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걷기와 스포츠 활동분야였다. 한편, 여가추구형과 여가중심형 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가추구형의 경우 문화활동이나 야외활동의 비중이 여가중심형에 비해 높았던 반면에, 여가중심형은 여가추구형에 비해 걷기와 스포츠활동 등 신체활동의 비중이 약간 높은 차이가 있었다. 여가기피형과 여가소외형 역시 둘 다 여가를 즐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지만, 이 다섯 가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여가기피형이 여가소외형에 비해 우세하게 나타나는 활동은 텔레비전시청 부분이었다. 그런가하면, 거의 모든 활동에서 해당활동의 행위를 자체가 네 집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즉, 여가기피형과 여가소외형의 차이는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면에서도 여가소외형은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여가소외형이 주로 평일에 많이 이루어지는 여가패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평일에는 텔레비전시청은 물론 신체활동이나 야외활동 모두 감소하여 여가생활자체가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소결

얼마 전 네티즌들을 열광시켰던 한 컷의 사진이 있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의 얼굴로 요일을 나타낸 것이다. 요일별로 나타나는 표정의 차이가 시사하는 것이 단순하게 요일에 대한 선호도만을 나타낸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요일로 대표되는 활동들, 특히 노동과 그로인한 시간압박을 피해 할 수 있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있는 휴일, 휴일의 활동과 관련된 희비가 엇갈리고 있음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표정에서 공감하는 바처럼, 여기는 “그저 남은 시간에 하는 활동”이 아닌 그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안달하게 만드는 “그 무엇”을 내포한다.

이 연구결과와 나타나는 여가의 소비방식을 보게 되면, 각 여가활동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필요한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시간압박은 여

가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소비하는 시간양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자료 가운데 20-60대 기혼남녀 9891명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의 소비에는 사회적 제약과 역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 연령에 따라 계층에 따라, 또한 가구 내에 따라 여가활동의 종류가 선택되는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남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개인이 가진 자원과 맥락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시간압박이 높아지면, 모든 측면에서 여가행위나 여가시간량은 감소한다. 특히 시간압박이 크면-그것이 시간표상의 구조적 압박이든,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압박이든 간에- 쉬기, 걷기,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에서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혼자 할 수 있고,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활동, 개인적인 활동의 희생이 큰 경향성을 나타냈다고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문화활동을 포함하는 야외 활동과 같이 계획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활동,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희생될 가능성은 오히려 적었다. 큰 단위의 시간블록을 차지하는 이러한 계획된, 혹은 다른 사람들과 시간표를 조율해야하는 여가의 희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한시적 조직화 가설에는 배치되나, 이러한 활동이 개인에게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사회적 동기화 가설과는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문화 및 야외활동이 학동기 자녀가 있는 가족에서, 사회계층의 측면에서도 교육수준이 높고,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행위비율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결혼한 남녀의 여가활동이 사회적 관계 맥락-특히 가족-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셋째, 그렇다면 시간압박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가? 시간압박을 느끼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여가시간은 모든 측면에서 증가하지만, 앞서 살펴본 시간압박을 느끼는 사람들과는 상반되게, 여가활동 중에서도 행위이행이 상대적으로 쉽거나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의 시간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이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압박이 적을 때 선택되는 여가는 주로 개인적인 활동인 텔레비전 시청, 걷기, 휴식이었다. 특히 텔레비전 시청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재 대표적인 여가활동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기는 하나, 장시간 텔레비전 시청이 이루어지는 긴 사례는 사회적으로도 일부 계층에 국한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위 우리가 언급하는 “일하는 연령대” 사람들 중에서 시간압박을 별로 느끼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가는 오히려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이러한 여가활동과 시간압박의 관련성에서의 모순된 부분은, 스포츠 활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느끼고, 실제로 시간이 없을 때 스포츠를 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간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은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걷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까다로운 활동”인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활동이 여가활동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도 일정량의 바쁜 와중에도 일정시간을 감내 할 수 있는 시간계좌가 있어야 한다. 즉, 시간, 그 자체가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그것만으로 스포츠와 같은 건강행동을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자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가 바로 시간자원과, 경제적 자원 부분이었다. 한국사회는 “일을 권하는 사회”, 모두들 “열심히 일하는” 사회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공감대는 의외

로 크다고 생각된다. 나만 바쁜 것이 아닌 모두들 바쁘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임에는 틀림이 없다.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노동시간, 그리고 바쁘다는 것 자체는 이 “일하는 연령”에서는 권장되고, 심지어 성공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압박으로 인한 결과물,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온전하게 개인의 몫으로, 특히 개인의 인적·물적 자원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객관적인 자원에서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가시간에 더 큰 차이를 야기하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때문에 동일하게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그 결과물이 다른 것은 비단 노동시간동안의 생산성이 아닌 이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여가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관련된 정책적 논의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논의함에 있어 절실함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사람들이 여가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파악하는 작업과 동시에 어떠한 상황과 자원이 이러한 의사결정과 욕구의 저변에 내재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하위집단 간의 여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서구에서 시간압박과 여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정책적 쟁점은 후기산업화사회에 들어가는 노동시간과 가족부양의 문제가 흑여 개인의 사회참여, 사회적 교류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있었다. 후기사회의 개인화, 비정치성에 관한 담론들은 개인들이 점점 더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단체나 집단 활동에 소극적이며, 정치적 담론 자체에 무신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들이 시간부족에 시달리고 “바쁘기” 때문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압박에 관한 연구들은 시간압박감이 강하면, 사람들은 습관적인 행동, 반복적인 행동에 익숙해져서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간다는 유명한 소설이나 우화도 이러한 우려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최근의 서구실증연구결과에서는 시간압박과 시간의 활용은 보다 복잡한 문법이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시간연구에서는 시간압박이 클수록, 자원봉사나 단체 활동 참여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노동시간이 길거나 맞벌이로 “바쁜 사람”들이 자원봉사와 같이 소위 말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의 시간연구에서도 맞벌이 가구에서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고, 또한 맞벌이 가족의 경우 가족 이벤트나 자녀의 학교 및 스포츠 행사 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가활용 패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시간사용의 사회적 원리는 사회규범과 사회적 기대-즉, 가장 가깝게는 가족과의 상호작용-라는 부분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연구에서도 시간압박감이 높고, 노동시간이 긴 경우 모두에서 개인적인 시간들은 희생당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가족 혹은 다른 사회적 관계와 함께 할 것으로 예측되는 문화활동, 야외활동은 상대적으로 제한의 폭이 적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후기산업화 사회에 여전히 가족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실제로 시간압박 측면에서는 길어지는 노동시간과 늘어나는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압박 속에 오히려 개인의 시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장시간 노동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가족단위 규범과 기대가 커지면서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압박감은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개인의 시간과 사회적 시간이 적절한 수준에서 조율되는 방안과 정책적 논의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구창모, 『청소년의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 김기현·이경상, 『청소년 생활 시간 활용 실태 및 변화』, 한국청소년개발원, 2007.
- 김두섭,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년기의 가족관계」,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23~72쪽.
- 김복수, 「한국인의 여가와 미디어 사용」,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 생애주기별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225~260쪽.
- 김상진, 「생활시간조사 연구를 통한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연구: 맞벌이부부 중심」, 전남대 행정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순홍 외, 『한국청소년의 삶과 의식구조』, 사회연구소, 2003.
- 김승택·김원식, 『근로시간 단축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김외숙·조희금·두경자, 『시간의 사용과 관리』, 교문사, 2000.
- 김정배 외, 『21세기 청소년자원봉사 정책과 추진방향』,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김정석, 「노년기 관광여가문화의 탐색」, 『한국노년학』, 제23권 1호, 2003b, 43~58쪽.
- 김정석, 「노후생활에서의 성별차이-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권 10호, 2003a, 59~77쪽.
- 김정석, 「한국 노인들의 일상생활」,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 생애주기별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51~178쪽.
- 김진옥,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2호, 2006, 149~177쪽.
- 김현주·이창현·박소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장인들의 주말 여가문화 이용 행태 변화 - 설문 조사를 통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1회 여가·문화 포럼 -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생활문화의 변화』 자료집, 여가·문화학회, 2002, pp.24~37.
- 김효정,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권 2호, 2001, 83~96쪽.
- 두경자, 「시간관리 교육 후의 교육효과 측정」, 『사회과학 연구』 15권, 2002, 1~14쪽.
- 문숙재,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1996.
- 박민자·손문금,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권 2호, 2007, 93~120쪽.
- 박민자·손문금, 「고령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 『사회과학연구』 11권, 2005, 121~145쪽.
- 박수미, 『젠더문제와 여성의 노동참여: 노동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연구총서, 2005.
- 박수미·선보영·김진옥, 『한국여성의 생활세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5.
- 박수미, 「한국고령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여성연구』 72호, 2007, 5~30쪽.
- 박영도, 「거세된 시간, 식민화된 시간, 젠더화된 시간」,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I: 일상생활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26쪽.
- 박영도 외,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I: 일상생활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손문금,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

- 니즘연구』 5권, 2005b, 239~287쪽.
- 손문금, 「맞벌이부부여성의 이중부담과 시간의 특성: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a.
- 손문금, 「시간일기와 자기기입식 시간측정의 비교: 성별, 종사상지위별 유급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통계연구』, 통계청 11권 1호, 2006, 88~117쪽.
- 손애리,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과정」, 『조사연구』 1권 1호, (2000, 135~148쪽.
- 안정옥, 「시간의 정치와 생활세계」, 『가족과 문화』 19집 2호, 2007, 171~204쪽.
- 안정옥, 「시간준거, 문화생태와 가족체제」, 『한국사회학』 40권 6호, 2006, 56~91쪽.
- 안정옥, 「현대 미국에서 '시간을 둘러싼 투쟁'과 소비적 현대성: 노동, 시간과 일상생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오만석, 「한국 대학생들의 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I: 일상생활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a, 127~181쪽.
- 오만석, 「한국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하루 시간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 생애주기별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b, 1~50쪽.
- 오만석 외,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 생애주기별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오만석, 「하루 시간 사용을 통해서 본 한국 학생들의 일상생활」, 『현대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의 일상생활: 역동성과 다양성』, 2009 한국문화심층연구결과발표회 자료집, 1~33쪽.
- 유성용, 「가족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동시간: 1999/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권 3호, 2008c, 28-62쪽.
- 유성용, 「측정방법에 따른 노동시간의 차이: 자기기입식 질문법과 시간일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권 1호, 2008b, 99~125쪽.
- 유성용,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간 변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8a.
- 윤소영, 「우리나라 부부의 가계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평가를 위한 총노동시간 및 노동분담률 분석」, 『대학가정학회지』 40권 8호, 2002, 23~36쪽.
- 윤인진·배은식,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한국인의 여가활동 격차와 특성: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의 비교」, 2009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자료집, 503~519쪽.
- 윤철경, 『청소년 과외활동실태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은기수,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3권 3호, 2009, 145-171쪽.
- 은기수, 「한국인의 잠에 관한 연구」,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 생애주기별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a, 179~224쪽.
- 은기수,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행동유형별 시간량의 관계」,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I: 일상생활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b, 27~60쪽.
- 은기수, 「한국노인들의 경제생활」,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271~332쪽.
- 이기영 외,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이미식·전필여, 「학생의 생활시간 활용 및 도덕과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28권, 2008, 158~183쪽.
- 이은진, 「직업별 노동시간의 변화」, 『사회연구』 14권, 2001, 179~196쪽.

- 이재현, 「노동과 텔레비전, 그리고 생활패턴의 동시화」, 『언론정보연구』 31권, 1994, 117~143쪽.
- 이재현, 「생활시간패턴과 텔레비전 편성」, 『방송문화연구』 8권, 1996, 267~291쪽.
- 이재현, 「생활양식의 사사회와 텔레비전에 대한 의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재현, 「여가,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생활시간으로 본 미디어 구도의 변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연구』 13권, 2001, 59~81쪽.
- 이종희·이연숙,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권 4호, 2002, 165~177쪽.
- 장원봉, 「생활시간조사를 통한 실업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실업자의 교제활동을 중심으로」, 『도시와 비곤』 59호, 2002, 106~132쪽.
- 조성은·문숙재,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권 10호, 1998, 35~47쪽.
- 조희금,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대학가정학회지 35권 1호, 1997, 1~14쪽.
- 진미정,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0권 3호, 2008, 187~211쪽.
- 채구목, 「비정규근로자의 인구학적 및 직업·산업별 특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58권, 2003, 276~310쪽.
- 최영기, 『노동시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1.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1999.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04.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09.
- 황익주, 「공장 노동자들의 여가생활 : 경기도 성남지역 노동자들의 사례연구」, 한국인의 소비와 여가생활,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pp.125~189.
- Becker, G.,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s Journal* LXXV(September), 1965, pp. 493~517.
- Berger, P. and H. Kellner, "Marriage and the Construction of Reality", *Diogenes* 46, 1964, pp. 1~23.
- Bianchi, Suzanne M., Lynne M. Casper and Rosalind B. King, *Work, Family, Health and Well-Being*. New Jersey: Lawrence, 2005.
- Bianchi, Suzanne, John, P. Robinson and Melissa A. Milike,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ew York: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6.
- Bourdieu, P.,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4.
- Daly, K., *Families and Time: Keeping pace in a hurried culture*. California: Sage, 1996.
- Daly, K.J., *Minding The Time In Family Experience: Emerging Perspectives and Issues* (Edt). Oxford: Elsevier Science, 2001.
- Folbre, N., "Inequality and time use in the household", in W. Salverda, B. Nolan, and T. Smeeding(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Fuligni, Andrew J. and Stevenson Harold W., "Time Use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mong

-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Vol. 66, No.3, 1995, pp. 830~842.
- Gershuny, Jonathan, *Changing Times-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 Press, 2000.
- Hedges, J.N. and D.E. Taylor, "Recent trends in worktime: hours edge downward", *Monthly Labor Review* March 1980, pp. 3~11.
- Hochschild, A., *The Second Shift*, New York: Avon Books, 1989.
- Hochschild, A., *Time Bind*, New York: Henry Holt, 1996.
- Jacobs, J.A. and K. Gerson, "Who are the Overworked Americans?" *Review of Social Economy* 56, 1998, pp. 442~459.
- Jacobs, J.A. and K. Gerson, "Overworked Individuals or Overworked Families? Explaining Trends in Work, Leisure, and Family Time," *Work and Occupation* Vol. 28, No. 1, 2001. pp. 40~63.
- Jacobs, J.A. and K. Gerson, *The Time Divide: Work,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Jacobs, J.A. and J.C. Gornick, "Hours of Paid Work in Dual-Earner Couples: The United States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Sociological Focus* 35(2), 2002, pp.169~187.
- Kraaykamp, van Gils and Van der Lippe "Working Status and Leisure: An analysis of the trade-off between solitaty and social time" *Time and Society* 18, 2009, pp. 264~283.
- Krueger, Alan B.(eds), *Measur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 Lahmers, Amy G. and Zulauf, Carl R., "Factors Associated with Academic Times Use and Academic Performanc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41, No.5, pp. 544~556.
- Lewis, H.G., "Hours of Work and Hours of Leisure", *Proceedings of the Ninth Annual Meeting of the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Association*, 1956, pp. 196~206.
- Mattingly, M. J. and Sayer, L.C., "Under pressure: Gender difference in relationship beteen free time and feeling rush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2006, pp. 205-221.
- Mill, J. 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 to Social Philosophy*, London: Longman's Green & Co., 1892.
- Rindfuss, R., "The Young Adult Years: Diversity, Structural Change, and Fertility," *Demography* 28, 1991, pp. 493~512.
- Robbins, L., "On the Elasticity of Demand for Income in Terms of Effort", *Economica* June 1930, pp. 123~29.
- Robinson, J.P., *How Americans Use Time: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of Everyday Behavior*, NY: Praeger, 1977.
- Robinson, J.P., "Trends in Americans' Use of Time: Some Preliminary 1965-1975-1985 Comparisons", Final Report to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U.S. Congress, Mimeo, September 1986.
- Robinson, J. P. & Godbey, G.,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9.
- Robinson, J. P.,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Diaries versus Alternative Time Use Measure, in F. T. Juster and F. P. Stafford(eds.), *Time, Goods and Well-being*, University of Michigan, 1985, pp. 33~62.
- Schneider, B. and Wait, L. "Timely and timelessness: Work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Bianchi, S.M. Casper, L.M. and King, R.B. (eds). *Work, Family, Health, and Well-being*, 2005, pp. 67-79,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chor, J.,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HarperCollins, 1991.
- Schor, J.,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 Books, 1992.
- Schor, J., *The Overspent American: Why We Want What We Don't Want*,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8.
- Shanahan, Michael J. and Flahery, Brian P., "Dynamic Patterns of Time Use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72, No. 2, 2001, pp. 385~401.
- Southerton, D. "Squeezing time: Allocating Practice Coordinating Networks and Scheduling Society", *Time and Society* 12(1), 2003, pp. 1~25.
- Southerton, D. "Analysing Temporal Organization of Daily Life: Social Constrains, Practice and Their Allocation" *Sociology* 40(3), 2006, pp. 435~454.
- Sullivan, O. "Cultural voraciousness: A new measure of pace of leisure in a context of 'harrid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Research* 4(1), 2007, pp. 30-46.
- Timmer, S. G., J. Eccles and K. O'Brien, "How Children Use Time," in F. T. Juster and F. P. Stafford(eds.), *Time, Goods and Well-being*, University of Michigan, 1985, pp. 353~382.
- Veblen, T.,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Viking Press, 1967.
- Zerubavel, Eviatar, *Hidden Rhythms: Schedules & Calendars in Social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 Zerubavel, Eviatar, *The Seven Day Circle: The History and Meaning of the Week*, The Free Press, 1985.
- Zill, Nicholas, Christine W. Nord and Laura S. Loomis, *Adolescent Time Use, Risky Behavior, and Outcomes: An Analysis of National Data*,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1995.